우성이와 지성이
이야기 정원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것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것.

차례

첫째 마당 · 연두집의 날들 13

너를 기다리는 자리 15

창문은 세 번 두드리는 거야 23

뇨끼의 아래층 31

모리의 끊어진 끈 39

딸기는 하나인데 47

하나씩 많은 날 55

느루가 먼저 도착한 날 63

이 돌은 안 바꿔 71

둘째 마당 · 비 오는 날과 빈자리 79

모리네 집에 비가 와 81

내 바구니도 있어 89

누가 내 바지를 고쳤지? 97

오늘은 돌도 쉬는 날 105

지도는 맞는데 길이 없어 113

저녁 종은 두 번 울렸어 121

쿠마타가 없는 아침 129

오늘 숲은 이렇게 살았어요 137

셋째 마당 · 달님이 비추는 밤 145

의자를 치우지 않은 밤 147

달님이 다시 길을 비춘 밤 155

달님이 보따리를 싸 준 날 163

넷째 마당 · 먼 길에서 온 친구들 171

아루의 배 173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어 179

종이라니까, 냄비라니까 187

수프가 앞치마를 입었대 195

다섯째 마당 · 돌아오는 길 203

보물상자의 질문.....205

해달의 풀어진 바구니.....213

지성이가 먼저 달린 길.....221

먼저 내어 주는 자리.....229

다행이다,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237

숲에 사는 친구들



우성이

네 살 형. 놀고 싶은 게 생기면 벌써 신발을 신고 있어요. “내가 알아. 잠깐만, 이쪽이었나?”



지성이

세 살 동생. 남들이 다 지나간 바닥에서 보물을 찾아 주머니에 넣어요. “형아, 이건 아직 안 봤잖아.”



해달

파란 해달. 돌마다 이름을 붙이고, 바구니를 비울 때는 하나하나 작별 인사를 해요.



뇨끼

목이 긴 연두 공룡. 작은 것을 오래 들여다보면 목이 버근해져요. “보여!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닿아.”



모리

후드를 쓴 똑똑한 친구. 아는 게 많아 길게 설명하다가 문득 멈춰요. “아, 네 얘기는 아직 못 들었네.”



보리

파란 멜빵옷의 주황 곰. 혹시 몰라 짐을 잔뜩 싸고, 빵을 나누느라 자기 빵은 늘 찌그러져 있어요.



두두

멜빵바지의 분홍 돼지. 초대장 두 장을 들고 다니며 시간과 장소에 설명을 자꾸 덧붙여요.



피오

작고 목소리 큰 흰 새. “알려 줄게!” 하고 먼저 외치다가 뒷말을 못 들어요. “들었지? 나도 여기 있어!”



콩이

땅속 지도를 그리는 두더지. 설명할수록 지도가 커져서 듣는 친구가 지도 뒤로 사라져요.



느루

달팽이. 걸음이 느려서 출발이 빨라요. “나, 아침부터 가고 있었어.”

그리고 파란 빈백에 누워 있기를 좋아하는 길쭉한 갈색 곰 쿠마타, 하늘에서 늘 함께하는 햇님과 달님.

읽어 주실 때

한 편을 한 번에 다 읽지 않아도 좋아요. 편마다 가운데쯤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자리가 있으니, 거기서 나누어 이틀 밤에 읽어도 괜찮아요. 세 살 아이와는 쉬어 가는 자리까지만 읽어도 한 편이에요. 아이가 그림을 오래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면, 그만큼 천천히 읽어 주세요.

몇몇 친구에게는 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해달의 "들어가, 들어가", 보리의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두두의 "어디서? 언제? 누구랑?"이에요. 두 번째로 나올 때부터는 아이와 같이 불러 보세요.

괄호 속 작은 글은 숲에 사는 이야기꾼이 슬쩍 덧붙이는 말이에요.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읽으면 좋아요.

그루터기 식탁에는 늘 하나 남는 자리와 컵이 있어요. 이야기 속 친구들은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딱 잘라 말하지 않아요. 아이가 물으면 어떻게 느꼈는지 먼저 들어 주세요. 책 뒤의 '어른에게 건네는 한 장'도 함께 읽어 보세요.

첫째 마당

연두집의 날들

첫 번째 이야기

너를 기다리는 자리



아직 아무도 없던 때였어요.

하늘도 비어 있고 땅도 비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머리카락을 날릴 아이가 없고, 아침이 와도 눈을 비비며 일어날 얼굴이 없었어요.

하늘부모님은 생각하셨어요.

"아, 외롭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 줄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함께 웃고, 함께 바라보고,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다."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생각하니 해 주고 싶은 일이 자꾸자꾸 떠올랐어요. 그 누군가는 뛰어놀다 목이 마를 거예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플 거예요. 어떤 날은 괜히 혼자인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목마르면 마실 물을 두셨어요. 지치면 누울 풀밭을 펴셨어요. 누우면 등이 살짝 간지러운 풀이에요.

뜨거운 날에는 쉬어 갈 그늘도 드리우셨어요. 큰 나무 밑에는 큰 그늘을, 작은 나무 밑에는 작은 그늘을요.

작은 발들이 서로를 찾아갈 길도 내셨어요. 너무 곧으면 걷는 재미가 없을까 봐 길은 일부러 구불구불 휘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낮에는 햇님으로, 밤에는 달님으로 세상을 비추기로 하셨어요. 어디를 걷든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요.

숲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렇게 숲에 첫 아침이 왔어요.

.

그 뒤로 아침이 아주 많이 지나간 어느 봄날, 하늘이 유난히 파랬어요.

"지성아, 오늘은 밖에서 먹자!"

우성이가 연두집 계단을 두 칸씩 뛰어 내려가며 외쳤어요. 지성이는 난간을 붙잡고 한 발씩 모아 내려왔어요.

"밖에서? 카페처럼?"

"응. 컵도 놓고 의자도 놓고."

지성이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도 컵이 나온다니까 벌써 좋았어요.

둘은 친구들을 부르러 다녔어요. 주황빛 작은 곰 보리는 파란 멜빵옷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빵 바구니를 들고 나왔어요. 동글동글한 해달은 강가 납작돌 위에서 막 숨을 고르는 중이었어요.

해달의 집은 바다예요. 아침마다 강을 거슬러 숲까지 헤엄쳐 와요. 그래서 아침의 해달한테서는 늘 짭짤한 바다 냄새가 나요.

목이 아주아주 긴 뇨끼는 부르지 않아도 왔어요. 나무 위로 쑥 솟은 머리가 마당 어디서나 보이니까요.

(숨바꼭질할 때 뇨끼가 숨을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 구름 속뿐이에요. 그것도 구름이 낮게 뜬 날에만요.)

우성이는 컵 쟁반을, 지성이는 숟가락 한 줌을 들었어요. 마당 끝 그루터기 식탁까지는 몇 걸음 안 되는데, 그새 숟가락이 두 개나 풀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식탁 앞에서 모두 우뚝 멈춰 섰어요.

식탁이 벌써 차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루터기 위에 컵들이 빙 둘러 놓여 있었어요. 큰 컵, 작은 컵, 손잡이가 아예 없는 컵. 둘레에는 생김새가 제각각인 의자들.

"우리가 차리려고 했는데."

우성이가 쟁반을 든 채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이거 누구 거지? 누가 준비했어?"

"몰라."

지성이가 손가락으로 컵을 하나씩 짚었어요.

"하나, 둘, 셋…… 많이."

지성이에게 셋 다음은 '많이'예요. 그래서 우성이가 다시 셌어요.

"나, 지성이, 보리, 해달, 뇨끼."

손가락 다섯 개가 다 펴졌는데 컵이 하나 남았어요. 의자도 하나.

"하나 많아."

해달이 배 위에서 납작한 돌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몽글이도 세야지. 아침 먹을 때 옆에 있어 주는 돌이야."

"돌도 밥 먹어?"

"아니. 구경만 해."

몽글이까지 세니까 딱 맞았어요. 모두 와, 하고 손뼉을 쳤어요. 그런데 해달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몽글이는 물 안 마셔."

그러면 또 하나가 많았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뇨끼가 컵을 세어 보려고 고개를 낮추었어요. 길고 긴 목이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동그란 얼굴이 지성이 코앞에서 멈췄어요. 둘의 코끝이 간질간질.

"에취!"

누가 재채기를 했는지는 끝내 아무도 몰라요. 지성이는 숟가락을 몽땅 떨어뜨렸어요.

"쿠마타 거 아니야?"

보리가 마당 쪽을 가리켰어요.

파란 빈백 위에 길쭉한 갈색 곰 쿠마타가 누워 있었어요. 빈백 옆 풀밭에는 빈백처럼 파랗고 아주 커다란 쿠마타 컵이 따로 놓여 있었어요.

"쿠마타, 이거 네가 차렸어?"

쿠마타는 눈을 반쯤 뜨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빈백이 사각사각 따라 울렸어요.

"그럼 저 의자는 쿠마타 의자야?"

쿠마타는 또 절레절레. 쿠마타에게는 빈백이 의자니까요.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아 버렸어요.

"모르면 그냥 내가 앉을래!"

우성이가 남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러다 엉덩이를 들썩했어요.

"앗, 따뜻해."

그 의자에는 햇빛이 고여 있었어요. 나뭇잎 사이로 내려온 빛이 다른 자리는 금방 비켜 가는데, 그 자리에서만은 떠날 줄을 몰랐어요.

해달이 그 앞의 컵을 번쩍 들었어요.

"우성이 팔꿈치에 걸리겠다. 컵은 내려가 있어."

해달은 컵을 풀밭에 살그머니 내려놓았어요. 물이 찰랑 넘쳐 해달 앞발에 묻었어요.

"어, 미지근해."

지성이가 쪼르르 달려갔어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더니 식탁 위,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올려놓았어요. 손잡이도 의자 쪽으로 돌려서요.

"이건 여기."

"왜?" 해달이 물었어요.

"여기 있었어."

지성이는 그 말만 하고 컵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우성이는 괜히 엉덩이가 근질근질했어요. 꼭 남의 자리에 앉은 것 같았어요.

"이 자리는 왜 생겼지?"

그때 바람이 컵들 사이로 불어와 우성이 앞머리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바람 속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와 함께 앉고 싶었단다."

지성이는 눈을 깜박였어요. 깜박, 깜박.

"들었어?"

우성이는 입을 벌린 채였어요.

"들었어."

해달은 몽글이를 꼭 쥐었어요. 보리는 빵 바구니를 끌어안았고, 뇨끼는 하늘 쪽으로 목을 쭉 늘였다가 살며시 내렸어요.

누가 와 있나 봐야 했어요. 우성이는 의자 밑을, 지성이는 그루터기 뒤를 들여다보았어요. 의자 밑에는 개미 한 마리. 그루터기 뒤에는 도토리 모자가 하나.

"형아, 이거 봐. 아직 안 본 거야."

둘이 도토리 모자를 들여다보는 사이, 보리가 바구니에서 빵을 꺼냈어요. 고소한 냄새가 식탁 위로 퍼졌어요. 우성이 배가 꼬르륵. 지성이 배도 꼬르륵.

그러자 다들 누가 차렸는지 잊어버렸어요. 정말 깨끗이요.

"여기 앉자."

우성이가 따뜻한 의자에서 쏙 내려와 지성이 옆, 자기 의자로 옮겨 앉았어요.

지성이 의자는 너무 높아서 발이 대롱대롱했어요.

"형아, 이거 산이야."

"의자야."

"산 같은 의자."

보리가 빵을 나누고, 해달이 조개를 몽글이로 톡 깨뜨렸어요. 뇨끼의 콧김에 컵 속 물이 잔잔하게 떨렸어요.

지성이는 주머니에서 도토리 모자를 꺼내 빈 의자 앞 컵 옆에 놓았어요.

"여기 앉아도 돼."

햇빛은 해가 저쪽 나무 뒤로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오래된 마음인지, 아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두 번째 이야기

창문은 세 번 두드리는 거야



그날 아침 우성이는 혼자 연두집을 나섰어요. 지성이가 신발 한 짝을 찾는 사이에 먼저 마당을 건너 버렸어요. 보리네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거기서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요. 빵 냄새가 벌써 숲길까지 나와 있었어요.

보리네 부엌 창문은 우성이 키보다 조금 높아요. 우성이는 발끝을 세우고 창문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반죽을 하던 보리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코끝에도, 파란 멜빵옷에도 하얀 밀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나야. 지성이 왔어?"

"오기로 했는데."

보리는 반죽이 엉겨 붙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으로는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 기다려. 우리 문은 잠꾸러기라서 두 번 밀어야 깨."

우성이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창틀을 붙잡고 영차 기어올라 부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바닥에 내려설 때 밀가루가 폴싹.

"두 번이라니까." 보리가 한숨처럼 웃었어요.

"이게 더 빨라."

부엌 어디에도 지성이는 없었어요. 식탁 밑에도, 밀가루 자루 뒤에도요.

문이 쿵, 쿵 두 번 울리더니 활짝 열렸어요. 먼지 낀 분홍빛 두두가 뛰어 들어왔어요. 동그랗고 납작한 코가 빵 냄새에 벌름벌름. 풀빛 멜빵바지 주머니에는 연필이 삐죽.

"내가 지성이한테 말했어. 빵 굽는 집에서 만나자고."

"여기잖아."

"맞아. 그런데 내가 따뜻한 데라고 했나? 창문이라고 했나? 손 씻고 오라고도 했나? 몇 시라고 했지?"

두두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자기한테 물었어요. 접을 손가락이 모자랐어요.

보리가 오븐을 열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우성이는 나가려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발은 문 쪽인데 얼굴은 자꾸 오븐 쪽으로 돌아갔어요.

"찾으면서 먹어."

보리는 손가락을 호호 불며 갓 구운 빵 두 조각을 종이에 싸 줬어요. 동그랗고 반듯한 빵.

우성이는 빵을 받아 들고 손을 또 내밀었어요.

"하나 더."

"그렇게 배고파?"

"지성이 거."

보리는 오븐에서 반듯한 빵을 하나 더 꺼내 얹어 줬어요. 우성이는 빵 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봉지가 따끈해서 배까지 따뜻해졌어요.

우성이와 두두는 햇볕 드는 강가 돌 위로 가 보기로 했어요. 따뜻한 데라면 거기가 제일이니까요.

"내가 앞장설게. 내가 알아."

우성이가 성큼성큼 걸어 나가다 덤불 앞에서 딱 멈췄어요.

"잠깐만, 이쪽이었나?"

"저쪽 아니야?" 두두가 반대쪽을 가리켰어요.

돌 위에는 지성이 대신 해달의 돌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해달이 낮잠을 재워 놓고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일 동그란 돌 위에 하얀 털뭉치 하나가 엎드려 있었어요. 보송보송 아이보리 깃털에 작은 가방을 멘 꼬마 새, 피오예요.

"지성이 없네. 따뜻한 데서 기다리랬는데."

두두 말에 피오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따뜻한 데! 들었지? 나 여기 있어!"

"너한테 한 말 아니야."

피오는 벌써 다음 말을 외치는 중이었어요.

"돌 따뜻해!"

그러다 빵 봉지 바스락 소리에 눈이 번쩍.

"나도 하나!"

"이건 지성이 거야." 우성이가 봉지를 등 뒤로 감췄어요. "내 거 떼 줄게."

우성이가 자기 빵 귀퉁이를 떼어 주자 피오는 한입에 꿀꺽 삼켰어요. 그러고는 아쉬운지 우성이 손가락까지 콕 쪼았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두두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지성이에게 준 초대장과 똑같이 써 둔 한 장이에요. 두두는 늘 한 장을 더 써서 가지고 다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릴까 봐요.

'빵이 따뜻할 때.'

그 아래에 나중에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글씨가 점점 작아지다가 종이 끝에서 꼬부랑.

'창문에서 기다려.'

"어느 창문?" 우성이가 물었어요.

두두는 입을 벌렸다가 꾹 다물었어요. 보리네 집에는 창문이 두 개예요. 빵 굽는 창문과, 뒷마당을 보는 창문.

"창문이 두 개였나? 언제부터?"

"창문 두 개! 창문 두 개!"

피오는 벌써 낮게 포르르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 창문인지는 듣지도 않고요. 우성이도 빵 봉지를 안고 뛰기 시작했어요. 봉지 속에서 빵 세 조각이 통통, 통통.

지성이는 뒷창문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등을 딱 붙이고 두 다리를 쭉 벋은 채였어요. 무릎 위에는 작은 새의 빈 밥그릇이 하나. 신발은 짝짝이. 한 짝은 자기 것, 한 짝은 신발장 구석에 있던 형아 헌 신발.

"피오가 배고플까 봐."

피오가 그릇을 보자마자 날개를 퍼덕였어요.

"내 그릇!"

둥지 옆에 두고 쓰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된 그릇이었어요.

"길에서 주웠어." 지성이가 그릇을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형아, 이건 아직 못 봤지?"

우성이는 지성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숨이 차서 말이 금방 안 나왔어요.

"두두가 빵 굽는 집이랬어. 따뜻한 데랬어. 창문이랬어."

지성이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어요. 두두가 늘 하는 것과 똑같이요.

"여기가 제일 따뜻해. 해가 여기로 와."

"왜 안 불렀어?"

"두드렸어."

지성이는 일어나서 창문을 톡, 톡 두드려 보였어요. 아주 작고 얌전한 소리.

창문 안쪽에서는 반죽 치는 소리가 났어요. 탁, 탁. 탁, 탁.
지성이의 톡, 톡은 보리의 탁, 탁 속으로 쏙 숨어 버렸어요.

우성이는 창문 앞에 섰어요. 두 번으로는 어림없겠다 싶었어요.

"창문은 세 번 두드리는 거야."

톡, 톡, 톡.

반죽 소리가 뚝 멈췄어요. 보리가 뒷창문을 덜컹 열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빵 식겠다!"

그러다 우성이를 내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까는 두 번 두드렸잖아."

"아까는 아까고."

모두 창문 아래에 앉았어요. 보리도 문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창틀을 넘어 나왔어요. 동그란 엉덩이가 창틀에 잠깐 걸렸다가 쑥 빠졌어요.

우성이는 두두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고, 지성이 몫도 꺼냈어요. 빵은 아직 따끈따끈. 지성이는 빵을 떼어 피오의 그릇에 놓았어요.

"먹어."

피오가 부스러기를 콕콕 쪼았어요.

우성이는 그제야 지성이 발을 봤어요.

"그거 내 옛날 신발이야."

"내 거야."

"형아 거잖아. 봐, 크잖아."

"지금은 내 거."

지성이는 발을 쑥 내밀고 흔들었어요. 헐렁한 신발이 발끝에서 달랑달랑. 그러다 툭 벗겨져 우성이 무릎 앞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따뜻해."

지성이가 신발을 도로 주워 신으며 우겼어요. 우성이는 뭐라고 하려다 그냥 자기 빵을 한 입 먹었어요.

두두는 쪽지를 뒤집어 연필로 창문을 그렸어요. 네모 하나에 십자 하나. 그 옆에 지성이도 그렸어요. 동그란 얼굴, 쭉 벋은 두 다리, 무릎 위의 작은 그릇까지.

두두는 쪽지를 주머니에 쏙 넣었다가 곧바로 다시 꺼냈어요.

"다음번엔 어디서 만나지?"

두두는 연필을 흔들며 노래하듯 외쳤어요.

"어디서? 언제? 누구랑?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하나 더가 뭐야?" 우성이가 물었어요.

두두는 연필 끝을 깨물고 하늘을 봤어요.

"그건…… 내일 알려 줄게."

세 번째 이야기

뇨끼의 아래층



놀이터 미끄럼틀 앞에서 우성이와 지성이는 뇨끼를 기다렸어요. 뇨끼가 미끄럼틀 꼭대기 옆에 목을 대 주면, 그 목을 타고 한 번 더 미끄러져 내려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긴 미끄럼틀이 될 거라고, 우성이는 벌써 다섯 번은 말했어요.

그런데 뇨끼가 안 왔어요. 미끄럼틀을 열 번 타고, 신발 속 모래까지 다 쏟아 낼 때까지도요.

"찾으러 가자."

숲에서는 무당벌레를 타고 다녀요. 가까운 길은 빨간 무당벌레와 노란 무당벌레가 등에 태워 줘요. 아주 먼 길을 날아가는 커다란 날개 무당벌레도 있는데, 늘 어디선가 자고 있어서 아직 아무도 못 타 봤어요. 우성이는 빨간 무당벌레에, 지성이는 노란 무당벌레에 올라탔어요.

뇨끼는 길 한가운데 있었어요. 커다란 몸은 길 위에 있는데 기다란 목은 길옆 풀밭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머리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우성이가 뇨끼의 연둣빛 등을 통통 두드렸어요.

"뇨끼, 일어나. 놀자."

대답 대신 꼬리가 움찔했어요. 왼쪽으로 한 번. 그게 다였어요.

지성이가 납작 엎드려 뇨끼 배 아래를 들여다보았어요. 우윳빛 배 너머 풀숲 속에 뇨끼 얼굴이 살짝 보였어요.

"눈은 떴는데."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야?"

"깜빡했어. 방금."

형제는 시원한 배 밑에 누워 뇨끼 숨을 따라 쉬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후우, 하아.

피오가 길가 돌 위로 폴짝 올라섰어요.

"뇨끼 왜?"

"모르겠어. 안 움직여." 우성이가 배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아픈 건지, 아니면……"

피오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뇨끼가 아프대!"

피오는 벌써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어요. 피오는 높이는 못 날아도, 소문은 숲에서 제일 빨리 날라요.

"아프다고 안 했는데?"

숲 저쪽에서 피오 목소리만 점점 작아졌어요. "뇨끼가 아프대! 뇨끼가아!"

우성이는 팔짱을 꼈어요.

"내가 알아. 아플 때는 물을 마셔야 해."

우성이는 모자를 벗어 들고 길옆 개울로 달려갔어요. 모자 가득 물을 떠 왔어요. 뇨끼는 크니까요. 너무 서두르다 보니 모자가 기우뚱, 풀밭에 물이 쏟아졌어요.

풀숲 속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났어요.

"거기 말고!"

지성이가 두 손으로 풀을 살살 갈랐어요.

작은 잎 아래에 달팽이 느루가 있었어요. 돌돌 말린 황토빛 껍데기를 등에 지고, 잎사귀 하나를 우산처럼 쓰고 있었어요.

"물 더 주면 넘쳐." 느루가 말했어요.

"뭐가?"

"내 정원."

느루 둘레에는 작은 잎사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잎마다 이슬이 하나씩. 쏟은 물은 바로 그 옆에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어요.

"미안." 우성이가 젖은 모자를 등 뒤로 숨겼어요.

지성이는 잎사귀에 코를 바싹 대려다 멈췄어요.

"봐도 돼?"

"응. 그 대신 후 하고 불지 마. 이슬이 흔들려."

지성이는 두 손으로 입을 꼭 막았어요. 콧김이 너무 세서 결국 이슬이 파르르 떨렸는데, 느루는 못 본 척해 주었어요.

(느루는 숲의 물웅덩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요. 이름도 다 붙여 두었대요. 오늘 생긴 웅덩이 이름은 '우성이 모자'예요.)

뇨끼는 느루의 정원을 보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 아주 가까이.

"이렇게 작은 데 숲이 또 있어."

뇨끼가 소곤소곤 말했어요. 형제도 뇨끼 얼굴 옆에 나란히 엎드렸어요. 풀이 볼을 간질간질.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이슬 속에는 나무가 거꾸로 서 있었어요. 하늘은 아래에 있고 뿌리는 위에 있어요. 그 한가운데에 뇨끼 얼굴도 아주 작게 들어 있었어요.

"뇨끼 쪼그매." 지성이가 웃었어요.

"나도 들어갈래."

우성이가 얼굴을 바싹 들이밀자, 이슬 속에 우성이 코만 커다랗게 들어갔어요.

"형아 코밖에 없어."

뇨끼도 웃음이 났나 봐요. 웃을 때면 늘 고개가 옆으로 기우는데, 오늘은 기울다 말고 중간에 딱 멈췄어요.

"그럼 왜 안 일어나?"

"일어나고 싶은데. 아야야. 아침 내내 여기 보고 있었더니 뻐근해."

작은 숲 구경에 빠져서 목이 굳어 가는 줄도, 미끄럼틀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미끄럼틀은?" 지성이가 물었어요.

"아." 뇨끼 눈이 동그래졌어요. "미안. 목이 풀리면 꼭 해 줄게."

우성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뇨끼 목을 두 팔로 끌어안았어요.

"내가 밀어 줄게. 영차 하면 돼."

뇨끼는 눈만 데굴 굴렸어요.

"목은 말고. 목은 지금 무서워. 여기 잡아."

뇨끼가 눈짓한 데는 자기 볼 옆이었어요. 우성이는 슬그머니 팔을 풀었어요.

그런데 뇨끼 볼 바로 밑에 느루의 잎사귀 하나가 깔려 있었어요.

"잠깐. 그 잎 먼저 옮기고." 느루가 더듬이를 뻗었어요. "이 잎, 아침부터 옮기던 거야."

우성이가 잎을 집어 주려 하자 느루가 더듬이를 쏙 집어넣었어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모두 기다렸어요. 느루는 잎사귀를 끌고, 쉬고, 또 끌었어요.

우성이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발가락이 자꾸 꼼지락거렸어요. 신발 속에서 꼼지락, 신발 밖으로 빠져나와서 또 꼼지락.

느루는 그 발가락 앞을 지나가느라 빙 돌아가야 했어요.

"형아 발가락 때문에 느루가 멀리 가." 지성이가 입을 가리고 알려 주었어요.

우성이는 발가락을 꾹 오므렸어요. 너무 꾹 오므려서 얼굴까지 빨개졌어요.

잎사귀가 다 옮겨지자 형제가 뇨끼 볼 밑에 손을 댔어요. 우성이는 왼쪽 볼, 지성이는 오른쪽 볼. 뇨끼의 볼은 생각보다 말랑하고 따뜻했어요.

"하나, 둘....."

"셋은 천천히." 뇨끼가 부탁했어요.

"세에엣."

뇨끼가 천천히 목을 펴요. 풀숲에서 얼굴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요. 형제는 입을 헤 벌린 채 위를 쳐다봐요.

뇨끼가 목을 한 바퀴 휘휘 돌렸어요. 우두둑!

"고마워. 이제야 위쪽 숲이다."

뇨끼 얼굴에는 나뭇잎이 잔뜩 달라붙어 있었어요. 이마에 하나, 코끝에 하나, 턱 밑에 셋. 지성이는 그걸 보고 풀밭을 데굴데굴 굴렀어요.

숲 저쪽에서 쿵쿵 발소리가 났어요. 피오가 보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피오는 보리 머리 위에 앉아 있고, 보리는 커다란 이불을 둘둘 말아 품에 안고 있었어요. 등에는 가방이 하나, 둘, 셋.

"어디가 아파?"

보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지금은 안 아파." 뇨끼가 말했어요. "그런데 앉을 건 필요해."

보리는 짐을 쌀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하나 더 넣자."

오늘은 그 노래를 세 번이나 불렀어요. 그래서 가방이 셋이에요. 첫 번째 가방에서 작은 의자, 두 번째 가방에서 물병, 세 번째 가방에서 빵이 나왔어요. 아프면 배도 고프니까요.

"피오가 뇨끼가 아프대, 많이 아프대, 엄청 아프대 하고 다녔어. 오는 동안 점점 더 아파지더라."

"들었지? 내가 먼저!" 피오가 가슴을 쭉 내밀었어요.

보리는 이불을 풀밭에 활짝 폈어요. 느루의 정원은 비켜서, 바로 그 옆에.

이불 위에 모두 엎드렸어요. 머리만 이불 끝에 걸친 뇨끼까지요. 느루가 이슬 담긴 잎을 하나 더 끌고 와서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다 같이 이슬을 들여다보았어요. 거꾸로 선 나무들 사이로 우성이 얼굴, 지성이 얼굴, 보리의 둥근 귀, 뇨끼의 콧구멍이 차례차례 비쳤어요. 피오가 날개를 퍼덕였어요.

"내 얼굴은?"

뇨끼가 고개를 살짝 뒤로 뺐어요. 이슬 속 커다란 콧구멍 자리에 피오 얼굴이 쏙.

네 번째 이야기

모리의 끊어진 끈



모리네 처마 밑에는 별별 물건이 다 있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물건, 고쳐 달라고 맡긴 물건, 아직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물건. 처마 끝 아래에는 빗물 받는 컵도 하나 있어서, 처마에 남은 빗물이 가끔 그 속으로 퐁, 떨어져요.

오늘은 지성이도 맡길 것이 있었어요. 바퀴 하나가 빠진 장난감 수레예요. 모리는 맞는 못을 찾으러 처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상자 뒤지는 소리가 오래 났어요.

그사이 우성이는 실패 하나를 찾아냈어요. 굵은 실이 동글동글 감긴 나무 실패였어요.

우성이가 실패를 길에 내려놓고 데굴 굴렸어요. 실이 길 위로 길게 풀려 나갔어요.

"여기까지가 강이야!"

지성이는 한 발로 강을 건넜어요. 깡충.

"나 강 건넜어!"

"그럼 더 넓은 강!"

우성이는 실패를 더 멀리 굴렸어요. 실이 길모퉁이를 돌아 구불구불 휘어요.

"으아아, 물살이 세!"

지성이는 일부러 비틀비틀, 일부러 풀밭에 철퍼덕. 우성이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실패를 또 굴렸어요.

"여기부터는 지성강."

지성이는 자기 강을 건널 때마다 두 발로 콩콩 뛰었어요.

그때 모리가 처마 밑에서 나왔어요. 후드를 쓰고, 단추 두 개 달린 옷을 입은 모리예요. 후드 속 동그란 우윳빛 얼굴이 더 동그래졌어요. 모리는 얼른 실 끝을 잡았어요.

"그거 바구니 고칠 끈이야. 첫째, 해달 바구니 바닥이 빠졌어. 둘째, 이 끈은 질겨서 엮어 두면 아주 오래가. 셋째, 왜 오래가냐면……"

우성이는 모리 설명을 반쯤 들었어요. 나머지 반은 실패를 보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굴리고 싶었어요. 딱 한 번만.

우성이가 실패를 쥔 손을 끌어당겼어요. 모리도 끝을 잡은 손을 끌어당겼어요. 끈이 팽팽해지더니, 뚝.

"왜 잡아당겨!"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지성이가 한 발을 든 채로 그대로 굳었어요.

모리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끊어진 쪽을 내려다보다가, 소매에 붙은 실 한 가닥부터 떼었어요. 손톱 끝으로, 아주 천천히.

해달이 바구니를 안고 강에서 올라왔어요. 바구니 바닥은 덜렁덜렁.

"모리, 끈 있어? 퐁당이가 자꾸 바닥으로 빠지려고 해."

퐁당이는 해달이 아끼는 둥근 돌이에요.

모리는 끊어진 두 끈을 주워 끝과 끝을 묶었어요. 매듭이 동그랗게 불룩 솟았어요. 그 끈을 바구니 구멍에 꿰어 보았는데, 매듭이 구멍 앞에서 딱 걸려 버렸어요.

"내일 다시 해 줄게."

"괜찮아. 얘들은 하루 더 여기서 자면 돼."

해달은 바구니에서 돌을 하나씩 꺼내 처마 밑 선반에 눕혔어요. "잘 자." "내일 봐." "너는 코 골지 마."

(돌은 원래 코를 안 골아요. 그런데 해달의 돌 가운데 딱 하나는 골아요. 아주 작게, 드르릉.)

해달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우성이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실패를 길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서서 뛰었어요.

우성이는 처마에서 안 보이는 나무 뒤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에는 짧은 끈 한 토막이 남아 있었어요. 아까 자기가 지른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왕왕 울렸어요.

지성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손에는 모리 소매에서 떨어진 실 한 가닥이 들려 있었어요.

"모리 화났어?"

사실은 우성이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지성이는 실 가닥을 손가락에 감았어요.

"몰라. 조용했어."

우성이는 끈 토막을 손가락에 칭칭 감았다가 풀었어요. 말 많은 모리가 아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지성이는 아주 쉬운 일처럼 말했어요.

"아는데, 입이 안 돼."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우성이는 입술을 손가락으로 꾹꾹 밀어 봤어요. 미, 안, 하고 입 모양을 만들어 보려는데 입술이 오리 부리처럼 삐죽 나왔어요. 지성이가 따라 하다 킥 웃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우성이 입은 끝내 안 됐어요.

밤이 되자 연두집 창가에 달님이 오셨어요. 이불 위로 하얀 빛이 네모나게 내려앉았어요.

잠옷을 입은 우성이는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 올렸어요. 그러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달님, 나 내일은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입이 잘 열리게 해 주세요."

옆 이불에서 지성이가 꼼지락거렸어요.

"나도. 수레 바퀴도."

"그리고 끈도 다시 붙으면 좋겠고…… 해달 돌들도 선반에서 안 춥게……"

우성이 목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그리고…… 퐁당이는……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성이도 몰라요. 벌써 새근새근 잠이 들었으니까요. 지성이는 그보다 먼저 잠들었어요. 입을 헤 벌리고, 발 하나를 이불 밖으로 내놓은 채로요.

(달님은 귀가 아주 밝대요. 잠결에 하다 만 말도, 달님 너머 더 먼 데까지 들린대요.)

달님은 그 발 위까지 빛을 덮어 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지성이가 숟가락을 들고 외쳤어요.

"형아, 밥에 반짝이 뿌려 줘!"

지성이는 김 가루 반짝이를 뿌린 밥을 제일 좋아해요. 우성이가 통을 너무 신나게 흔드는 바람에 밥이 새까매졌어요.

"많이 반짝이네."

지성이는 새까만 밥을 맛있게 다 먹었어요.

처마에 가 보니 모리는 어제 그 매듭을 풀고 있었어요. 해달은 선반에 누운 돌들 옆에 턱을 괴고 있었어요. 컵 속으로 빗물이 퐁.

우성이는 모리 바로 앞까지 갔다가 신발코만 보았어요.

모리가 매듭을 든 채 말을 꺼냈어요.

"이 매듭은 한 번 조이면 잘 안 풀려. 그래서 끝을 이렇게 살살…… 아, 네 얘기는 아직 못 들었네."

지성이가 뒤에서 형 옷자락을 살짝 밀었어요.

입이, 됐어요.

"소리쳐서 미안해. 물어보고 썼어야 했어."

"응. 나도 놀랐어."

모리가 매듭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야. 묶으면 매듭이 생기고, 매듭이 생기면 구멍을 못 지나가고."

우성이는 바구니 구멍에 눈을 바싹 대 보았어요. 구멍은 작고, 매듭은 뚱뚱했어요. 그러다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매듭이 구멍에 안 들어가면, 매듭은 안에서 살라고 하면 되잖아."

"안에서?"

"응. 바구니 안에. 집에 있으라고."

우성이는 끈을 바구니 안쪽에서부터 꿰어 보였어요. 매듭이 바구니 안쪽 벽에 딱 걸려서 멈췄어요. 이제 끈은 빠지지 않았어요.

모리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거 내가 생각 못 한 거야! 매듭이 안쪽에서 문고리 노릇을 하는 거네. 문고리라는 건 원래 문에 다는 건데……"

모리 설명은 길고 길었어요. 우성이는 중간에 바구니를 엮으러 가 버렸고, 지성이는 실패를 지키느라 바빴어요. 실패가 움찔만 해도 "안 돼!" 하고 두 손으로 꾹 눌렀어요.

끝까지 들은 건 선반 위의 돌들뿐이에요.

남은 짧은 끈 한 토막은 지성이 수레 바퀴를 묶는 데 썼어요. 바퀴가 다시 데굴데굴.

"내 수레!"

바구니 바닥이 다 엮이자 해달이 선반에서 돌을 하나씩 데려왔어요. 그리고 바구니에 넣을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들어가, 들어가, 오늘은 나랑 가자. 나와, 나와, 내일은 네가 쉬어."

돌 하나에 한 번씩. 돌이 열한 개라 노래도 열한 번이에요. 세 번째쯤부터 지성이가 따라 불렀고, 다섯 번째쯤부터는 우성이도, 여덟 번째쯤부터는 모리도 불렀어요.

마지막은 퐁당이 차례였어요. 이번엔 다 같이 목청껏 불렀어요.

"들어가, 들어가, 오늘은 나랑 가자!"

다섯 번째 이야기

딸기는 하나인데



그날 오후 우성이와 지성이는 마당 그루터기 식탁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우성이가 탑을 높이 쌓으면 지성이가 맨 위에 작은 블록을 하나 더 얹어요. 그러면 탑이 와르르. 그러면 둘이 같이 깔깔.

해달이 딸기를 하나 들고 강에서 올라왔어요. 아주 빨갛고, 아주 동그랗고, 해달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딸기였어요.

우성이 귀가 쫑긋 섰어요. 우성이는 세상에서 딸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해달은 식탁 한가운데에 딸기를 내려놓고 빤히 내려다봤어요.

"아까 둘이었는데."

마침 놀러 와 있던 두두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하나는? 어디 갔어? 언제?"

해달은 앞발을 꼼지락거렸어요. 입가에 빨간 물이 묻어 있었지요.

"아까 먹었어. 하나는 먹고, 하나는 가져오고. 그렇게 정해 놨어."

해달은 헤엄쳐 오는 내내 딸기를 배 위에 올리고 두 앞발로 꼭 덮고 왔어요. 덕분에 딸기는 하나도 안 젖었는데, 해달 배털이 분홍색이 되어 버렸어요.

지성이가 블록을 내려놓고 딸기 앞에 접시를 하나 놓았어요.

우성이는 접시를 하나 더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성이 거 하나, 자기 거 하나, 그리고 자기 거 하나 더.

"형아, 형아 거 두 개야."

"……이건 연습용이야."

두두는 마당이 떠나가라 친구를 불렀어요.

"보리야! 피오야! 딸기 봤어? 딱 하나야! 안 올 거야?"

두두는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내 연필로 급히 적었어요.

'딸기 모임. 지금. 딸기는 하나. 늦으면 없을 수도 있음.'

그 밑에 조그맣게 한 줄을 더 보탰어요.

'그래도 오면 좋음.'

피오가 제일 먼저 뛰어왔어요.

"딸기 어디?"

보리는 숨을 몰아쉬며 뒤따라왔어요. 등에는 불룩한 가방, 손에는 보리차 병. 보리는 앉자마자 컵부터 채웠어요. 첫 잔은 아무도 앉지

않은 그 자리 앞 컵에. 누가 차렸는지 모를 식탁을 만난 그날 뒤로 보리는 늘 그래요. 왜냐고 물으면 "첫 잔이니까" 하고 말지요. 두 번째 잔부터가 친구들 거예요.

"반으로 나누자." 우성이가 손날로 딸기를 가리켰어요. "반으로 자르면 돼."

"몇이 먹는데? 여섯 아니야?" 두두가 물었어요.

우성이는 손가락을 하나씩 폈어요.

"해달, 두두, 보리, 지성이, 나……"

다섯 손가락이 다 펴졌어요. 피오가 그 손가락 끝에 폴짝 앉았어요.

"나는?"

"지금 세려고 했어."

지성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많이로 자르면 돼!"

"많이는 몇 개야?"

"많이."

두두가 "그럼 여섯도 많이야? 열도?" 하고 묻자, 지성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응! 여섯도 많이, 열도 많이."

우성이가 피오가 앉은 손을 쑥 내밀었어요.

"아니야. 여섯은 여섯이야. 봐, 손가락 다섯 개랑 피오."

보리가 가방을 열었어요. 우산, 털장갑이 차례차례 나왔어요.

"털장갑은 왜?" 우성이가 장갑을 끼어 보았어요.

"딸기가 차가울 수도 있잖아."

맨 밑에서는 둥글넓적한 빵이 나왔어요.

"이걸 깔고 그 위에 딸기를 올리면 돼."

보리가 빵 가운데를 꾹 누르자 빵이 옆으로 납작하게 퍼졌어요. 이제는 빵이 접시보다 커요. 두두가 접시 두 개를 붙여 받쳤어요.

우성이가 털장갑 낀 손가락으로 딸기를 조심조심 집었어요. 그런데 장갑 낀 손가락은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딸기가 쭈욱 눌리더니 빵 위에 툭 떨어져요.

모두 입이 쩍. 빨간 즙이 번져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내 딸기……"

우성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피오는 그 손가락에서 식탁으로 옮겨 앉았어요.

딸기는 이제 반으로도, 여섯으로도, 많이로도 자를 수 없었어요. 우성이는 눈을 끔벅끔벅했어요.

"이건……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왜? 언제부터?" 두두가 물었어요.

우성이는 입만 달싹달싹. 보리가 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봤어요.

"괜찮아. 빵이 딸기를 입었네. 쭉 펴 바르면 다 딸기 맛이야."

우성이가 숟가락을 집으려는데, 지성이가 먼저 숟가락을 낚아챘어요.

"내가 할래."

"같이 하자."

"내가 할 거야!"

지성이는 숟가락 등으로 딸기를 꾹 눌렀어요. 그리고 옆으로 쓱, 자기 앞쪽으로만 밀었어요. 또 꾹, 또 자기 앞쪽으로. 빨간 물이 지성이 앞에만 모여들어요.

"지성아, 거기만 빨개."

"여기가 맛있는 데야."

고집이 났을 때 지성이 숟가락은 바위만큼 무거워요.

우성이는 숟가락을 뺏지 않았어요. 대신 붙여 둔 두 접시를 양손으로 잡고, 빵을 빙글 돌렸어요.

지성이 숟가락은 제자리에 있는데 빵이 돌아가요. 빨간 물이 숟가락 밑을 지나 빙 둘러 퍼져 나가요. 빙글, 빙글, 빙글. 빵 위에 꼭 달팽이 껍데기 같은 빨간 소용돌이가 생겼어요.

"달팽이 빵!" 피오가 외쳤어요.

지성이는 자기가 그린 줄 알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성이는 아무 말 안 하고 한 바퀴를 더 돌렸어요.

보리가 칼을 들자 두두가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짚었어요.

"여기? 아니, 여기? 몇 번 잘라? 피오 건 작아도 돼?"

"안 돼! 똑같이!"

두두가 묻는 사이 보리는 벌써 칼을 세 번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조각은 두껍고 어떤 조각은 얇아요.

해달은 자기 조각과 지성이 조각을 번갈아 보더니 접시를 쓱 밀었어요.

"바꿀래? 이쪽이 더 커."

정말로 해달 조각이 더 컸어요. 대신 딸기는 거의 묻어 있지 않았어요.

"난 이거."

지성이가 자기 빵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작고 얇지만 가장자리까지 빨간 조각이었어요.

해달은 자기 빵을 한 입 먹었어요. 오물오물.

"그럼 나는 이거."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한 입 더 먹었어요.

피오는 자기만큼 작은 조각을 두 발로 꼭 붙잡고 콕콕 쪼았어요. 우성이는 털장갑을 낀 채로 소용돌이 끝이 걸친 조각을 아주 천천히 먹었어요.

두두가 마당 입구 쪽을 봤어요.

"모리는? 누가 모리 불렀어? 아무도?"

모두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모리는 늦게 와. 고칠 게 많아서." 우성이가 아는 척을 했어요.

보리는 빈 의자 하나를 끌어다 놓고, 자기 빵을 반으로 갈라 소용돌이가 지나간 쪽을 그 앞에 놓았어요.

그 옆 빈자리 앞에서는 보리가 부어 둔 첫 잔이 아직 찰랑찰랑했어요.

해달은 딸기 꼭지를 작은 접시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놓았어요. 초록 잎이 별처럼 벌어진 꼭지.

모리가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고치던 주전자 뚜껑을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딸기 냄새가 처마까지 왔어."

모리는 숨을 고르며 식탁을 둘러보다가 작은 접시 앞에서 멈췄어요.

"딸기 꼭지는 말이야. 딸기 씨는 원래 겉에 붙어 있는데, 그게 왜냐면……"

그러다 말을 멈추고 물었어요.

"이거 내 거야?"

"그건 보고만 있어." 해달이 말했어요. "네 빵은 저기."

모리는 소용돌이 빵을 한 입 먹고 눈을 꼭 감았어요.

"딸기 맛이다."

해달이 배를 톡톡 두드렸어요.

"내일은 세 개 찾아볼게. 하나는 먹고, 둘은 가져오고."

"그럼 하나는 내 거!" 우성이가 장갑 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럼 또 모자라잖아? 누구 거부터 빼?"

두두가 소리치자 다들 배를 잡고 웃었어요. 지성이만 고개를 갸웃했어요.

"둘이면 많이야?"

여섯 번째 이야기

하나씩 많은 날



아침 일찍 두두가 연두집 계단 아래에서 초대장을 흔들었어요.

"어디서? 언제? 누구랑?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묻는 것도 두두, 대답하는 것도 두두예요.

"어디서? 그루터기 식탁! 언제? 해가 머리 꼭대기에 올 때! 누구랑? 다 같이!"

"하나 더는 뭐야?" 계단 위에서 우성이가 소리쳤어요.

두두가 뒷장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오늘 점심은 다 같이 쓱쓱 비벼 먹기. 각자 넣을 것 하나씩 가져오기. 뭘 가져오는지는 비밀. 쿠키랑 주스는 보리네 부엌에서 다 같이 만들기."

"비밀!"

지성이는 두 손으로 입을 꾹 막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형제는 오리 옷을 입고 계단을 쿵쿵 내려왔어요. 노란 옷에, 후드 끝에는 주황 부리가 달렸어요. 지성이가 아끼고 아끼는 옷이에요. 형아 것과 똑같으니까요.

모두 보리네 부엌으로 와르르 몰려 들어갔어요. 뇨끼만 창밖에서 코끝을 들이밀었어요.

보리가 앞치마 끈을 묶으며 일을 나누었어요.

"우성이는 달걀 깨기, 지성이는 반죽 젓기, 해달은 쿠키 나르기, 모리는 주스. 뇨끼는 창밖에서 응원. 두두는 초대장 했으니까 쉬기."

우성이가 달걀을 집어 들었어요.

"내가 알아. 달걀은 탁 치면 돼."

탁!

너무 셌어요. 달걀은 껍데기째 그릇 속으로 퐁당 빠졌어요.

"어……"

"괜찮아, 내가 할게!"

지성이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손가락 끝으로 껍데기를 건져 올려요.

"하나. 둘. 형아, 여기 또 숨었어."

그런데 반죽 젓기는 심심해요. 저어도 저어도 누렇기만 해요. 지성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점심때 비밀로 가져가려던 작은 통이 손에 잡혔어요.

밥에 뿌려 먹는 반짝이! 지성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솔솔.

"지성아! 그건 밥에 뿌리는 거야!" 우성이가 소리쳤어요.

"쿠키도 반짝반짝해야 돼."

지성이는 통을 꼭 쥐고 한 번 더 흔들었어요. 솔솔솔.

보리가 반죽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봐요. 짭짤하고, 고소하고, 바닷바람 냄새가 나요.

"괜찮아, 내가 할게! 쿠키를 두 가지로 구우면 돼."

보리는 반짝이 반죽을 동글동글 떼어 오븐에 쏙 넣었어요.

"이건 지성이 쿠키. 단 건 새로 하나 더."

보리 손이 바빠졌어요. 밀가루를 붓고, 휘휘. 밀가루가 하얗게 피어올라 옆에 있던 우성이를 덮어 버렸어요. 노란 오리가 순식간에 하얀 오리가 됐네요.

"에취!"

너무 바빠서 보리는 오븐을 깜박 잊어버렸어요.

두두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보리야, 냄새가 왜 까매?"

오븐 틈으로 거뭇한 연기가 모락모락 새어 나와요. 보리는 두 손에 반죽이 잔뜩 묻어 꼼짝을 못 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내 목은 길잖아."

창문으로 뇨끼의 목이 쑥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오븐 장갑을 입으로 물어다 코에 폭 씌우더니, 장갑 낀 코로 쟁반을 끌어내 그대로 창밖 높이 들어 올렸어요.

"위에는 바람이 많아. 금방 식을 거야."

뇨끼는 쿠키를 눈앞에 바싹 대고 하나씩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아까 센 거였나? 하나, 둘……"

쟁반은 나무 꼭대기 높이에 둥실. 뇨끼는 셀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셌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괜찮아, 내가 할게! 나 나무 잘 타."

해달이 뇨끼 목을 타고 쪼르르 올라가, 물 위에 뜰 때처럼 쟁반 옆에 벌러덩 드러누웠어요. 그리고 쿠키를 하나씩 배 위로 옮겨 실었어요.

"너는 동글이. 너는 거뭇이. 너는 반짝반짝이."

해달은 뇨끼 목을 미끄럼틀 삼아 주르륵 내려왔어요. 배 위의 쿠키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해달 배 위에는 원래 거뭇한 돌도 하나 있었어요.

"어느 게 돌이지?"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런 건 내가 잘 알지."

모리가 주스 주전자를 든 채 나섰어요.

"쿠키랑 돌을 가리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째, 두드려 본다. 쿠키는 톡, 돌은 딱. 둘째……"

모리는 주전자 쥔 손으로 쿠키를 하나씩 두드렸어요. 톡, 톡, 톡, 딱.

"찾았다!"

모리가 거뭇한 돌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주전자도 같이 번쩍 기울었어요.

쪼르르르.

주스가 쏟아진 곳은 하필 밀가루를 뒤집어쓴 우성이 머리 위였어요. 하얀 오리가 주황 오리가 되어 버렸어요.

모리가 빈 주전자를 내려다봤어요.

"아, 셋째가 '주전자를 똑바로 든다'였는데."

"괜찮아." 우성이 머리에서 주스가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할게."

우성이는 오리 후드를 벗어 거꾸로 들었어요. 후드 안에 고인 주스를 자기 컵에 조심조심 따랐어요.

"봐. 하나도 안 버렸어."

그다음에 실수할 차례는 아무한테도 오지 않았어요. 해가 벌써 머리 꼭대기에 와 버렸거든요.

그루터기 식탁 한가운데에 커다란 나무 그릇이 놓였어요. 모두 등 뒤에 비밀을 하나씩 감추고 둘러섰어요.

"셋 하면 넣는 거야. 하나, 둘, 아, 놀라도 돼? 안 돼? 몰라, 셋!"

보리가 보따리를 풀었어요. 하얀 밥이 나왔어요.

"혹시 아무도 밥을 안 가져올까 봐."

두두가 봉투를 열자, 봉투에서도 밥이 나왔어요.

"다들 밥을 깜빡할 것 같아서."

모리가 작은 바구니를 열었어요. 또 밥.

"비벼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 하니까. 비빈다는 말은 원래……"

뇨끼가 머리에 이고 온 솥을 쿵 내려놓았어요. 솥 가득, 밥!

"밥이 모자라면 슬프잖아."

그릇 위에 밥이 소복소복, 또 소복소복 쌓였어요. 그릇이 보이지 않을 만큼이요.

해달은 배 위에서 미역 한 줄기를 꺼냈어요. 미역이 밥산 꼭대기에 깃발처럼 걸쳐졌어요.

우성이 비밀은 딸기! 해달이 찾아다 줄 때마다 안 먹고 모아 둔 딸기 다섯 알이 하얀 비탈을 데굴데굴 굴러 내려갔어요.

"딸기를 밥에?" 두두가 소리쳤어요.

"나는 딸기가 제일 좋아."

마지막으로 지성이가 반짝이 통을 거꾸로 들고 탈탈 흔들었어요. 반짝이가 밥산 위로 함박눈처럼 펑펑 내렸어요.

"됐다. 이제 맛있어."

모두 숟가락을 들고 쓱쓱 비볐어요. 비빌수록 밥산이 무너져 풀밭까지 흘러내렸어요.

두두는 입을 쭉 내밀었어요.

"비밀이 다 밥이면 그게 무슨 비밀이야?"

머리가 끈적끈적한 우성이는 밥에 섞인 딸기를 한 알 먹어 보더니 얼굴을 잔뜩 찡그려요.

"딸기에서 밥 맛이 나."

보리는 가장자리가 거뭇한 쿠키를 집어 들고 한숨을 폭 쉬었어요.

해달만 신이 났어요. 반짝이 쿠키를 한 입 먹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짭짤하다. 바다 맛이야."

"그치?" 지성이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요.

보리가 쿠키를 나누다가 손을 멈추었어요.

"하나, 둘, 셋…… 여덟. 우리는 일곱인데."

두두가 주스 컵을 세었어요. 여덟. 모리가 숟가락을 세었어요. 그것도 여덟. 뇨끼가 밥그릇을 세었어요. 또 여덟.

"왜 하나씩 많지?"

모두 생각에 잠겼어요.

두두는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했어요. "내가 누굴 한 번 더 초대했나?"

보리는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어요. "혹시 몰라서 하나 더 구웠나?"

해달은 남은 쿠키를 귀에 대 봤어요. 쿠키는 아무 말도 해 주지 않았어요.

"치울까? 남으면 이상하잖아?" 두두 입은 아직도 삐죽 나와 있어요.

남은 쿠키 하나와 주스 한 컵은 식탁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도 그 옆에 있었어요.

보리가 쿠키를 집으려 하자 지성이가 두 손을 쫙 펴서 막았어요.

"나 이대로가 좋아."

그리고 밥알이 잔뜩 붙은 숟가락을 높이 들었어요.

“다 같이 재밌게 먹자!”

일곱 번째 이야기

느루가 먼저 도착한 날



소풍 가는 날, 느루는 해가 숲 위로 뜨기 훨씬 전에 집을 나섰어요.

가방도 도시락도 없이요. 등에 진 껍데기 하나면 되니까요.

“나 먼저 갈게. 풀밭에서 만나.”

그렇게 말했지만 들은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아직 꿈속이었거든요.

해가 높이 뜬 뒤에도 보리는 부엌에서 보따리를 싸고 있었어요. 빵을 넣고, 물병을 넣고, 비가 올지도 모르니 커다란 천도. 하나 넣을 때마다 보리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하나 더 넣자."

노래가 끝나면 보리 손에는 무언가가 또 들려 있어요. 숟가락, 또 숟가락, 그리고 작은 의자.

"풀밭에 앉으면 되잖아?" 두두가 물어도 소용없어요.

"풀이 젖어 있을 수도 있잖아."

소풍 모자를 쓴 우성이와 지성이가 부엌 문을 덜컥덜컥 두 번 밀고 들어왔어요.

"다 쌌어? 언제 가?"

"거의 다." 보리는 대답하면서 숟가락을 하나 더 넣었어요.

보따리는 이제 보리보다 동그래졌어요. 두두가 보따리 위에 올라앉아 엉덩이로 꾹 누른 다음에야 겨우 묶였어요.

두두가 주머니에서 봉투 두 장을 꺼냈어요. 하나는 우성이 것, 하나는 지성이 것.

"풀밭에서 점심 먹기. 그런데 점심이 언제지? 꼬르륵 전? 꼬르륵 다음?"

우성이는 대답 대신 앞장서 달려 나갔어요.

"따라와. 언덕 넘어서 쭉 가면 돼."

그런데 몇 걸음 가다 돌아보니 따라오는 친구가 없네요. 지성이는 부엌 문 앞에 주저앉아 신발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고 있었어요. 작은 돌 하나가 톡 떨어졌어요.

"이거였어."

그동안 보리는 보따리를 다시 풀고 의자를 꺼냈어요.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이건 두고 가자."

의자는 부엌 문 옆에 혼자 남았어요.

갈림길에서 우성이가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이쪽이 빨라. 아마도. 거의 확실히."

그런데 오른쪽 길 한가운데에 커다란 나무가 넘어져 있지 뭐예요. 지성이는 나무 밑으로 엎드려 기어갔어요. 보리는 보따리가 걸려서 나무 끝까지 빙 돌아갔어요.

나무 밑 젖은 흙에는 가느다랗게 반짝이는 줄이 나 있었어요. 지성이 무릎이 바로 그 옆을 지나갔어요.

다음에는 작은 개울이 나왔어요.

우성이가 개울가를 오락가락하며 건널 곳을 찾는 동안, 지성이는 엎드려 두 손으로 물을 떠 마셨어요. 고개를 드는데 풀잎 아래로 반짝이는 선 하나가 지나가 있었어요. 아까 나무 밑에서 본 것과 똑같은 선이에요.

"느루도 여기 왔어."

"응, 느루도 오겠지." 우성이 눈은 개울만 보고 있었어요.

"아니, 왔어."

"찾았다! 여기가 제일 얕아!"

우성이가 얕아 보이는 쪽에 힘차게 발을 넣었어요.

첨벙.

물이 발목을 넘어 신발 속까지 가득 찼어요.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신발이 철벅, 철벅 대답했어요.

두두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넘어진 나무 너머로 보리네 지붕이 콩알만 하게 보였어요.

"우리 소풍이 왜 자꾸 집 쪽으로 가?"

그사이 지성이는 풀잎 하나를 들추고 있었어요.

"형아, 여기는 아직 안 봤잖아."

풀잎 뒤에 납작한 돌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었어요. 물에 잠기지 않은 돌과 돌 사이로 반짝이는 선이 이어져요. 꼬불꼬불, 아주 천천히 지나간 길이에요.

(느루가 지나간 길은 햇빛이 비스듬히 비칠 때만 반짝여요. 거미들은 그 길을 몰래 걷어다 실로 쓰고 싶어 한대요.)

이번에는 형이 돌아왔어요.

보리는 보따리부터 건넸어요. 두두가 받고, 돌 위에 선 우성이가 받았어요. 보따리는 빵 냄새를 풍기며 손에서 손으로 개울을 건넜어요.

지성이는 맨 마지막에 건넜어요. 반짝이는 선을 밟지 않으려고 혀끝이 입 밖으로 쏙 나왔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풀밭에는 느루가 와 있었어요.

제일 넓은 잎사귀 위에 동그마니 앉아서요. 잎 끝에는 이슬이 조그맣게 남아 있었어요. 아침에는 훨씬 컸을 이슬이에요.

"느루야!" 지성이가 달려갔어요.

"많이 기다렸어?" 우성이도 뒤따라 물었어요.

느루는 더듬이 하나를 숲 끄트머리 쪽으로 기울였어요.

"해가 저쪽에 있을 때부터."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해가 있던 자리였어요. 지금 해는 머리 바로 위에 있었어요.

두두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귀퉁이가 꼬깃꼬깃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거 느루 거야. 어제 줬어야 했나?"

"괜찮아. 그저께 들었어. 그래서 어제는 저녁도 안 먹고 일찍 잤어."

두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저께라면 두두가 소풍을 막 생각해 낸 날이었으니까요.

보리가 보따리를 폈어요. 물병이 나오고, 커다란 천이 나오고, 혹시 몰라 넣은 숟가락이 다섯 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의자를 빼낸 자리에는 빵이 들어 있었어요.

보리는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맨 마지막에 남은 보리 몫은 보따리 밑에 깔려 납작해져 있었어요. 보리는 그걸 들고 싱긋.

"이건 원래 이렇게 생긴 빵이야."

두두가 빵을 반쯤 먹다가 물었어요.

"그런데 우린 빠르게 왔잖아? 왜 네가 먼저야? 언제 왔어?"

느루는 빵을 먹느라 대답할 틈이 없었어요. 느루는 먹는 것도 아주 천천히니까요. 두두는 기다리다 빵을 다 먹어 버렸어요. 느루는 아직도 오물오물.

드디어 느루가 입가를 닦았어요.

"나는 아침부터 오고 있었어."

"우리도 아침에 나왔는데."

"나는 아주아주 아침."

지성이가 빵을 먹다 말고 말했어요.

"나무 밑에도 반짝반짝 있었어."

"그거 내 길이야. 너희가 내 길을 자꾸 밟고 가더라. 나무 밑에서 한 번, 개울가에서 한 번, 돌 위에서 한 번."

두두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 보다가 입을 딱 벌렸어요.

돌아갈 때가 되자 보리가 두리번거렸어요. 풀밭을 한 바퀴 돌고, 빈 보따리를 탈탈 털어 보았어요.

"내 의자 어디 갔지?"

그러다 손뼉을 짝 쳤어요.

"아, 안 가져왔지."

두두는 웃다가 그만 딸꾹질이 났어요.

느루는 벌써 출발했어요. 저녁 먹기 전에 집에 닿으려면 지금 떠나야 하니까요.

우성이가 느루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에는 아직 덜 마른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어요.

"느루야, 여기 타고 갈래?"

"신발에?"

"응. 안이 축축해. 느루는 축축한 거 좋아하잖아."

느루는 더듬이를 내밀어 신발 속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앞코도, 뒤꿈치도, 신발 끈 구멍까지 하나하나.

"……좋아. 그런데 들어 올릴 때는 천천히."

우성이는 신발을 풀밭에 눕혀 놓고, 느루가 스스로 기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 두두는 딸꾹질을 다 멈췄고, 보리는 숟가락 다섯 개를 두 번이나 다시 셌어요.

느루가 신발 앞코에 쏙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 시원하다. 꼭 아침 같아."

우성이는 한쪽 발에만 신발을 신고, 느루가 탄 신발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어요. 신 신은 발은 탁, 맨발은 사박. 탁, 사박. 걸음 소리가 우스워서 지성이도 따라 해요. 탁, 사박.

느루가 신발 앞코에서 더듬이를 쭉 내밀었어요.

"이렇게 빨리 가 보기는 처음이야. 오늘은 저녁 전에 도착하겠다!"

여덟 번째 이야기

이 돌은 안 바꿔



그날 아침 해달은 강가 납작돌 위에 누워 돌 하나를 닦고 있었어요.

해달 배만 한 납작한 돌. 한쪽 귀퉁이가 깨져 있고, 가운데에는 손톱으로 살짝 그은 듯한 작은 흠집도 있어요. 해달은 그 돌을 물에 한 번 담갔다가, 털에 쓱쓱 문질렀다가, 또 물에 퐁당.

강가 여기저기에는 해달의 돌이 놓여 있어요. 해달은 날마다 그날 데리고 다닐 돌을 골라 바구니에 넣고, 나머지는 강가에서 쉬게 해요. 돌마다 이름도 있어요. 아침 돌, 졸린 돌, 두두가 빌려 갔다 돌려준 돌.

(강가 돌들은 해달이 이름을 불러 줄 때마다 더 반들반들해져요. 모리는 그게 다 물 때문이라고 하지만요.)

뇨끼가 긴 목을 쭉 내려 해달 앞에 자갈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물에 젖어 반짝반짝하고, 하얀 줄이 두 개나 지나가는 자갈이에요.

"이거 봐. 이쪽이 더 예쁜데."

해달은 자갈을 힐끗 보더니, 깨진 돌을 배 위에 올려놓고 두 팔로 꼭 감쌌어요.

"이건 안 바꿔."

우성이와 지성이가 강가로 내려온 건 그때였어요. 우성이 눈에는 해달 배 위의 돌이 먼저 들어왔어요. 팔 사이로 금 간 자리가 빼꼼.

"깨졌는데도?"

"응."

해달은 또 닦았어요. 더 닦을 데도 없어 보이는데 자꾸자꾸.

뇨끼는 그 흠집이 얼마나 작은지 보려고 코끝을 돌에 바짝 대고 오래오래 들여다봤어요.

"너무 작아서 하나도 안 보여."

코끝이 흠집에 닿아 있었는데도요.

강가로 내려오던 모리도 깨진 돌을 봤어요. 모리는 처마 쪽으로 뛰어갔다가 작은 풀통을 들고 돌아왔어요. 숨이 차서 후드가 들썩들썩.

"깨진 데는 이걸로 붙이면 돼. 첫째, 비가 와도 안 떨어져. 둘째, 너무 많이 바르면 손가락끼리 붙어. 셋째……"

해달은 셋째가 나오기 전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이대로."

모리는 풀통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붙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은 처음 받아 봤어요.

친구들은 새 돌을 찾으러 물가로 갔어요. 해달은 납작돌 위에 앉아 돌을 말렸어요. 그런데 깨진 귀퉁이 바로 옆, 오목하게 파인 곳이 잘 마르지 않았어요. 해달은 볼을 동그랗게 부풀려 그쪽에 바람을 불었어요. 후, 후.

그러자 오목한 곳에서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났어요. 삐이. 풀피리보다도 작은 소리.

우성이는 물가에서 돌을 세 개 골랐어요. 둥근 돌, 줄무늬 돌, 그리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돌.

"이거 해달 주자. 이걸 주면 깨진 돌은 안 갖고 다녀도 되잖아."

지성이가 구멍 난 돌을 빌려 눈에 댔어요. 한쪽 눈을 꼭 감고 구멍으로 형을 봤어요.

"형아가 작아졌네."

"아니야, 나 커."

우성이가 발뒤꿈치를 들었어요. 구멍 속의 형은 그래도 작았어요.

지성이는 돌을 돌려주고 쪼그려 앉았어요. 물가 모래 속에서 콩알만 한 분홍 조약돌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형아, 이거는 아직 못 봤지?"

"그건 너무 작아. 해달은 큰 거 좋아해."

지성이는 대꾸도 없이 조약돌을 주머니에 쏙.

뇨끼는 물가 끝에서 아침에 찾아 둔 돌을 밀어 봤어요. 뇨끼 몸통만큼 둥글고 넓적한 돌이에요. 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형제가 뒤에서 같이 밀었는데, 셋이 나란히 엉덩방아만 찧었지요.

"돌을 못 데려가면, 해달을 이리로 데려오면 되겠다."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친구들은 고른 돌을 들고 해달에게 돌아왔어요.

해달은 새 돌들을 차례로 굴려 보고, 세어 보고, 귀에 대 봤어요. 그러고는 납작돌 옆에 나란히 놓고 이름을 지어 줬어요.

"너는 데굴이. 너는 줄줄이. 너는 졸졸이."

그런데 배 위의 돌은 끝내 내려놓지 않았어요.

지성이가 해달 옆에 바싹 붙어 앉았어요.

"이 돌 이름은 뭐야?"

"바람구멍."

"구멍 없는데?"

해달은 깨진 귀퉁이 옆 오목한 곳에 입을 대고 후, 불었어요. 삐이. 지성이가 "우와!" 하고 입을 벌렸어요.

"비 오던 날 생긴 소리야." 해달이 말했어요. "혼자 강가에 있었는데, 모리가 왔어."

지성이가 물었어요. "비 오는데 왜 혼자 있었어? 바다로 안 가고?"

"돌들이 다 젖잖아. 하나씩 뒤집어 주고 있었어. 젖은 쪽은 아래로, 마른 쪽은 위로."

"그럼 또 젖잖아."

"그러니까 계속 뒤집었지."

우성이는 입을 벌린 채 해달을 봤어요.

"그날 나는 길을 잃었어." 모리가 끼어들었어요. "다 아는 길인데, 비가 오니까 전부 처음 보는 길이더라고."

해달이 말을 이었어요. "모리가 앉을 데가 없어서, 내가 이 돌을 밀어 줬어. 밀다가 저 바위에 딱 부딪혔고."

해달은 돌의 깨진 쪽을 만졌어요.

"둘이 앉기에는 작았어."

"그래서 나는 반만 걸쳤지." 모리가 엉덩이를 한쪽으로 빼 보였어요. "나머지 반은 계속 비를 맞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엉덩이 밑에서 삐이, 삐이 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조개 과자를 나눠 먹었어." 해달이 말하자 모리가 손을 저었어요.

"나눠 먹은 게 아니야. 내가 다 먹었어. 해달이 하나씩 계속 줘서. 다 먹고 보니까 해달 건 하나도 없더라."

해달은 그때처럼 빈손을 펴 보였어요. 지성이가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렸고, 해달도 돌을 안은 팔을 들썩이며 따라 웃었어요.

뇨끼가 목을 길게 빼고 물었어요.

"그럼 큰 돌은 보러 안 가?"

해달이 바구니를 들었어요. 어제 데리고 다닌 돌 둘은 오늘 쉬는 차례예요. 해달은 그 둘을 새 돌들 옆에 내려놓고, 바람구멍을 바구니 맨 위에 조심조심 올렸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들어가, 들어가, 오늘은 나랑 가자. 나와, 나와, 내일은 네가 쉬어."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야 해달은 뇨끼에게 대답했어요.

"가야지. 거기 앉으면 강이 보여?"

"다 보여. 저 건너 나무까지 보여."

해달은 뇨끼를 따라가다 멈추고, 납작돌 옆의 돌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데굴아, 줄줄아, 졸졸아. 금방 올게. 혹시 늦어도 기다려."

작별 인사가 길어서 우성이가 두 번이나 데리러 돌아와야 했어요.

커다란 돌에는 모두 앉을 수 있었답니다.

우성이와 지성이가 앉고, 뇨끼가 목을 접고 앉고, 해달이 앉았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발밑으로 강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가요.

해달은 바구니에서 바람구멍을 꺼내 옆에 놓았어요. 깨진 귀퉁이와 작은 흠집이 위를 봐요.

지성이가 주머니에서 분홍 조약돌을 꺼내 바람구멍 위에 살짝 올렸어요. 조약돌은 깨진 귀퉁이에 반만 쏙 들어가 꼭 끼었어요. 나머지 반은 밖으로 빼꼼.

해달이 그걸 보고 수염을 파르르 떨었어요.

"반만 들어가서 좋다. 콩알도 강 구경은 해야지. 얘 이름은 지성이가 지어."

"콩알."

지성이는 그것만 말하고 형 옆으로 돌아갔어요.

뇨끼가 자기가 앉은 큰 돌을 앞발로 톡톡 두드렸어요.

"그럼 이 큰 돌은? 이름 뭐라고 할 거야?"

해달은 큰 돌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친구들 엉덩이 사이사이를 지나서요.

"아직 몰라. 오늘 다 앉아 보고 정할래."

모리는 큰 돌의 맨 끝, 바람구멍이 놓인 쪽으로 가서 엉덩이를 반쯤 걸치려 했어요. 몸이 저절로 그쪽으로 갔어요.

해달이 모리를 불렀어요.

"오늘은 이쪽이 넓어."

해달이 옆으로 비켜 앉았어요. 모리는 그 자리로 와서 앉았어요. 엉덩이가 끝까지 다 올라갔어요.

모리는 다리를 흔들며 강을 봐요. 후드는 하나도 젖지 않았어요.

둘째 마당

비 오는 날과 빈자리

아홉 번째 이야기

모리네 집에 비가 와



그날 아침 지성이는 노란 비옷에 장화까지 신고 나왔어요.

"해 떴는데?" 우성이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오늘은 장화 날이야."

지성이는 그 말만 하고 그루터기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마른 풀밭에서 장화가 뽀득뽀득 울어요.

보리가 따뜻한 차를 주전자 가득 끓여 와서 컵마다 따랐어요. 첫 잔은 늘 그렇듯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 앞의 컵. 그다음 우성이 컵, 지성이 컵, 두두 컵, 모리 컵, 뇨끼의 커다란 컵, 그리고 보리 컵.

지성이가 컵들을 하나씩 손바닥으로 짚어 봤어요.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그런데 빈자리 앞 컵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건 안 뜨거워."

우성이도 만져 봤어요. 미지근했어요. 방금 따른 차인데요.

그사이 해가 스르르 구름 뒤로 숨었어요. 우성이 코끝에 무언가 톡 떨어졌어요.

"비다!"

"봐, 장화 날이지."

여름 들어 처음 오는 큰비였어요. 친구들은 제일 가까운 지붕을 향해 달렸어요. 모리네 처마로요.

처마 밑에는 언제나 물건이 가득해요. 친구들은 그 사이로 몸을 밀어 넣고 문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어요.

모리가 천장을 쳐다보더니 컵 하나를 가져다 바닥에 놨어요.

똑.

우성이가 덥석 그 컵을 집어 들었어요.

"그건 지붕 물 받는 거야."

우성이는 입에 대려던 컵을 얼른 제자리에 내려놨어요. 똑. 컵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해요.

책장 위에서도 똑. 모리가 컵을 놓자, 다음엔 창문 옆에서 똑.

두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컵이 몇 개까지 있어? 다 놓으면? 그다음엔?"

"걱정 마. 첫째, 이 집 새는 데는 세 군데야. 둘째, 지붕 끝 물길에 잎이 끼면 문 위로도 새는데……"

똑.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리에서 소리가 났어요.

"거기는…… 처음인데."

모리는 컵을 하나 더 놓고 찬장을 열어 봤어요.

"마시는 건 두 개 남았어."

보리가 젖은 앞치마를 비틀어 짰어요.

"다 같이 우리 부엌으로 가자. 거긴 안 새. 오븐도 켜져 있어."

모리는 창문 밑에 깔아 두었던 커다란 천을 비틀어 짜는 중이었어요.

"먼저 가. 나는 이거 옮기고 갈게."

선반 아래에는 실패, 단추 통, 끈 떨어진 가방. 친구들이 맡겨 둔 물건이에요.

친구들은 빗속으로 뛰었어요.

처마 밖에는 뇨끼만 남았어요. 뇨끼는 아까부터 몸은 비를 맞으며 고개만 창문으로 들이밀고 있었어요. 창문이 작아서 코와 눈 하나만 겨우 들어갔지만요.

"나도 곧 갈게."

뇨끼한테는 보리네 부엌 문도 이 창문만큼 작다는 걸 알면서요.

모리는 짜던 천을 탁탁 털어 창문 밖으로 내밀었어요. 그리고 뇨끼 머리에 폭.

"이거라도 써."

보리네 부엌까지 가는 길에는 물웅덩이가 다섯 개 있어요. 지성이는 세 번째 웅덩이에서 일부러 두 발로 철퍽! 내려앉아요. 장화 날이니까요.

부엌에 들어서자 오븐 열기가 얼굴을 확 감쌌어요.

보리는 컵에 따뜻한 우유를 따라 하나씩 나눠 줬어요. 두 손으로 컵을 받던 지성이가 멈칫했어요.

"모리는 마시는 컵 있어?"

우성이는 막 한 입 베어 물려던 빵을 내려놨어요.

"두 개 남았댔어."

"지금은?"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만 점점 커졌어요.

두두는 식탁 옆 의자 하나를 비워 두고, 그 위에 마른 수건을 반듯하게 접어 놨어요.

"모리는 언제 와? 이 의자면 돼? 모리는 우유에 빵 찍어 먹지? 그치?"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문이 덜컹, 덜컹, 두 번 밀려서 열렸어요. 그때마다 두두는 말을 멈추고 문 쪽을 돌아봤어요. 들어오는 건 바람뿐.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그동안 모리네 집에서는 컵이 일곱 개로 늘어났어요.

똑, 또옥, 똑. 컵마다 소리가 달라요. 물이 많이 찬 컵은 낮게, 빈 컵은 높게 울리지요.

뇨끼가 쓴 천도 다 젖어 머리에 착 달라붙었어요. 모리는 의자를 딛고 올라가 실패를 높은 선반으로 옮기는 중이었어요.

보리네 부엌에서는 지성이가 의자를 창가로 끌고 갔어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유리창에 이마를 콕 댔어요. 하늘은 온통 회색이라, 햇님이 어디쯤 계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성이가 두 손을 꼭 모았어요.

"햇님, 빵 많이 주세요."

우성이가 옆 의자로 올라섰어요.

"빵? 모리는 컵이 없는 거야."

지성이는 눈을 꼭 감은 채로 다시 말했어요.

"……컵도 주세요. 그리고 빵 많이요. 모리는 빵을 우유에 찍어 먹으니까요."

두두가 풉 웃었어요. 보리가 오븐 문을 열어 보니 동그란 빵이 잔뜩 부풀어 있었지요.

"빵은 아까부터 굽고 있었는데."

우성이는 의자에서 폴짝 뛰어내려 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 번 밀었어요. 한 번, 두 번. 바람이 하던 것처럼요.

보리는 구운 빵과 따뜻한 우유 병을 보따리에 쌌어요. 두두는 마른 수건을 목에 둘렀어요. 지성이는 한 손으로 형 손을 잡고, 남은 손에는 보리네 제일 작은 컵을 꼭 쥐었어요.

"우리 왔어."

모리네 문을 열자 컵 일곱 개가 한꺼번에 똑. 의자 위의 모리가 뒤를 돌아봤어요. 후드 끝에서 물이 똑 떨어졌어요.

"왜 왔어? 부엌은 안 새잖아."

지성이가 빈 컵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컵 가져왔어."

두두가 바닥의 컵을 한쪽으로 모으다가 손을 멈췄어요.

"어? 이건 마시는 컵 아니야?"

남은 두 개 가운데 하나까지 어느새 지붕 물을 받고 있었어요. 보리가 지성이 컵에 따뜻한 우유를 따르자, 지성이가 그 컵을 모리에게 내밀었어요.

처마 밖에서 뇨끼가 물었어요.

"모리, 아까 지붕 물길에 뭐가 끼면 어떻다고 했지?"

"문 위로 물이 넘쳐."

뇨끼가 목을 길게 뻗었어요. 지붕 끝까지 쭉.

"찾았다! 큰 가지가 물길을 막았어."

모리가 창문 안에서 긴 막대를 내밀었어요. 뇨끼는 막대 끝을 입에 물었어요.

"하나, 둘, 셋!"

가지가 빠지자 물길에 고여 있던 물이 바깥으로 콸콸 쏟아졌어요. 컵 세 개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쪽에서는 아직 똑, 똑. 거기는 그냥 새는 자리였어요.

뇨끼는 문밖에서 빵을 먹었어요. 보리가 제일 큰 빵을 창문으로 내밀어 주었거든요.

보따리 맨 아래 빵 하나는 빗물이 스며 한쪽이 축축하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지성이가 그 빵을 집어 들었어요.

"이건 우유에 찍은 셈 치면 돼."

지성이가 크게 한 입 베어 물자, 모리가 소리 내어 웃었어요. 그날 처음 들은 모리 웃음소리였어요.

안에서는 모두 뇨끼 쪽으로 의자를 돌렸어요. 두두는 다리 짧은 의자에, 지성이는 형 무릎에 앉았어요.

지성이는 컵 소리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많이."

"많이가 벌써 나와?" 두두가 이어받았어요. "넷, 다섯…… 아까 그 컵 세었나? 저 컵은? 저건?"

두두는 세다 말고 짧은 의자 위에서 기우뚱, 꾸벅 잠이 들어 버렸어요. 입가에 빵 부스러기를 붙인 채로요.

모리는 젖은 후드를 벗었어요. 보리가 빵 보따리를 털어 펴서 모리 어깨에 둘러 줬어요.

모리는 엉덩이를 들썩였다가 도로 앉았어요. 옮길 물건이 또 생각났지만,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지성이가 형 무릎 위에서 창문 쪽으로 고개를 쭉 뺐어요.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달싹였는데, 이번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지붕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똑.

모리는 지성이가 가져온 작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우유는 벌써 다 마셨는데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열 번째 이야기

내 바구니도 있어



강가에서 다 같이 빵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지성이는 마당의 파란 빈백과 씨름하는 중이었어요. 두 팔로 끌어안고 끙 하고 일어서면, 빈백은 들리는 대신 지성이 모양대로 푹 꺼져요. 또 끌어안고, 또 끙.

(파란 빈백은 누가 들어 올리려고 하면 더 무거워져요. 들려 가는 것보다 누가 누워 주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건 원래 안 들리는 거야."

우성이는 그렇게 말하며 빈백에 털썩 드러누웠어요. 빈백이 기다렸다는 듯 우성이 모양으로 푹 꺼졌어요.

"빵은 들려."

지성이 대답은 그게 다였어요.

오솔길 너머에서 보리네 부엌 문이 한 번 덜컥, 두 번 덜컥 하는 소리가 났어요. 곧 보리가 커다란 빵 바구니를 두 팔로 안고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갓 구운 빵 냄새는 보리보다 앞서 마당에 나와 있었고요.

지성이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보리 앞을 막아섰어요.

"오늘은 내가 들래."

바구니는 지성이보다 커요. 지성이가 들어가 앉아도 남을 만큼요.

"이거…… 많이 무거운데. 동그란 빵이 열 개, 길쭉한 빵이 두 개, 혹시 몰라서 넣은 잼 병도 하나 있어."

"들 수 있어."

지성이가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자, 보리가 살며시 손을 떼었어요.

쿵.

바구니 한쪽이 땅에 닿고, 지성이 몸도 그쪽으로 기우뚱.

우성이가 빈백에서 튀어 나와 반대쪽을 들었어요.

"형이 이쪽 들게."

"나 혼자."

입술이 쭉 나온 걸 보니 지성이는 진심이에요. 우성이가 손을 슬그머니 놓자 바구니는 다시 기울고, 바구니 바닥이 풀을 스치며 질질 끌려요.

"밥이었으면 가벼운데. 반짝이 뿌린 밥."

"밥도 열 그릇이면 무거워."

"아니야. 밥은 가벼워."

지성이는 끝까지 우겼어요. 밥 열 그릇을 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요.

우성이가 연두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지성이가 조약돌 주울 때 쓰는 바구니예요.
손잡이가 지성이 팔에 꼭 맞아요.

"이거 네 거잖아. 네 바구니는 네가 들면 돼."

지성이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지성이는 작은 바구니를 팔에 걸고 큰 바구니 안을 뒤졌어요. 동그란 빵, 동그란 빵, 잼 병, 동그란 빵. 그 사이에서 쑥 뽑아 든 건 길쭉한 빵이었어요.

"이거."

보리가 잼 병을 꺼내 들었어요.

"이것도 넣어 줄까? 빵에 발라 먹게."

지성이는 자기 바구니를 내려다보았어요. 길쭉한 빵 하나로 벌써 꽉 찼는걸요.

"안 돼. 그건 무거워."

길쭉한 빵 끝이 바구니 밖으로 쑥 나와서, 걸을 때마다 까딱까딱 흔들렸어요.

.

강 쪽 길에 들어서자 해달이 올라왔어요. 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도 뭐 들까?"

"해달은 그냥 와도 돼." 보리가 말했어요.

해달은 손을 털고 지성이 옆에 붙어 걸었어요. 눈은 까딱까딱하는 길쭉한 빵 끝에 가 있었어요. 지성이가 뒤를 돌아보면 해달은 얼른 하늘을 봐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아주아주 열심히.

지성이는 바구니를 다른 팔로 옮겼어요.

해달도 슬그머니 반대편으로 왔어요.

지성이가 또 팔을 바꾸면, 해달도 또 자리를 바꾸고. 뒤에서 보리가 웃음을 참느라 큰 바구니가 들썩들썩 흔들렸어요.

"해달, 왜 자꾸 이쪽으로 와?"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바람은 하나도 불지 않았어요. 빵 냄새만 솔솔 불었지요.

강가로 내려가는 돌계단 앞에서 지성이가 멈췄어요. 계단 하나가 지성이 무릎만큼 높아요.

지성이가 바구니를 형에게 쑥 내밀었어요.

"여기만 잡아. 놓지 말고."

"여기만?"

"응. 계단까지만."

우성이는 손잡이 한가운데를, 지성이는 바구니 밑을 두 손으로 받쳤어요. 둘은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갔어요. 길쭉한 빵 끝이

계단마다 우성이 코앞에서 꾸벅꾸벅 인사를 해요. 해달은 바로 뒤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따라 내려왔어요.

계단 아래에서 지성이는 바구니를 돌려받았어요. 이제는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어요. 길쭉한 빵 끝이 지성이 턱을 간질간질.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강가 납작돌에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지성이도 작은 바구니에서 길쭉한 빵을 꺼냈어요.

그런데 빵 끝에 아주 작은 자국이 있었어요. 손톱만 한 반달 두 개가 나란히.

"여기."

모두 빵 끝을 들여다보았어요. 누가 앙, 하고 딱 한 입 문 자국이에요.

지성이 눈이 우성이한테 갔어요. 계단에서 빵 끝이 내내 형 코앞에 있었으니까요.

"형아가 먹었지?"

"아니야!"

우성이는 입을 크게 벌려 보였어요.

"봐. 내 입은 이만해."

정말 우성이 입은 자국보다 훨씬 컸어요. 보리도 입을 벌려 보였어요. 보리 입은 더 컸어요.

지성이는 빵을 들고 해달 앞으로 갔어요. 해달은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아까처럼 아주아주 열심히.

"해달, 아 해 봐."

해달은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저었어요. 볼이 동그랗게 부풀었어요.

"아."

해달이 아주 조금 입을 벌렸어요. 작고 하얀 앞니 두 개가 빼꼼. 지성이가 빵 자국을 해달 이에 살짝 대 보았어요. 딱 맞았어요.

"해달 이빨 모양이야."

해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팔 바꿀 때 딱 한 번만 앙 했어."

우성이가 풀밭에 벌러덩 넘어가 깔깔 웃었어요. 보리는 웃다가 큰 바구니를 놓칠 뻔했어요. 해달도 손가락 사이로 친구들을 보다가 같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성이는 빵을 내려다보았어요. 끝에는 해달 이 자국, 가운데는 너무 꼭 끌어안아서 쏙 들어간 지성이 팔 자국.

지성이는 빵을 두 손으로 잡고 똑 잘랐어요. 이 자국 난 쪽은 해달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해달 거. 벌써 시작했으니까."

가운데가 쏙 들어간 쪽은 보리 앞에 놓았어요. 보리 눈이 반짝 커졌어요.

"나는 이렇게 생긴 게 제일 좋은데."

해달은 자국 바로 옆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크게, 앙!

돌아갈 때가 되자, 우성이가 보리의 큰 바구니를 들어 보았어요. 잼 병만 남은 바구니는 우성이 혼자서도 번쩍 들렸어요.

"이건 내가 들게."

"그럼 나는 뭘 들지?"

보리는 빈손을 내려다보다가 잼 병을 꺼내 앞치마 주머니에 쏙 넣었어요.

"나는 이거."

해달이 물가에서 하얀 조약돌 하나를 주워 왔어요.

"이거 실어 줄래? 빵 값."

지성이는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바닥에는 빵 부스러기 몇 알. 지성이는 부스러기를 한쪽 구석으로 밀어 자리를 만들었어요.

"응, 이건 돼."

해달은 조약돌을 바구니에 내려놓고 손을 흔들었어요.

"얘 이름은 앙이야. 앙아, 지성이네 가서 잘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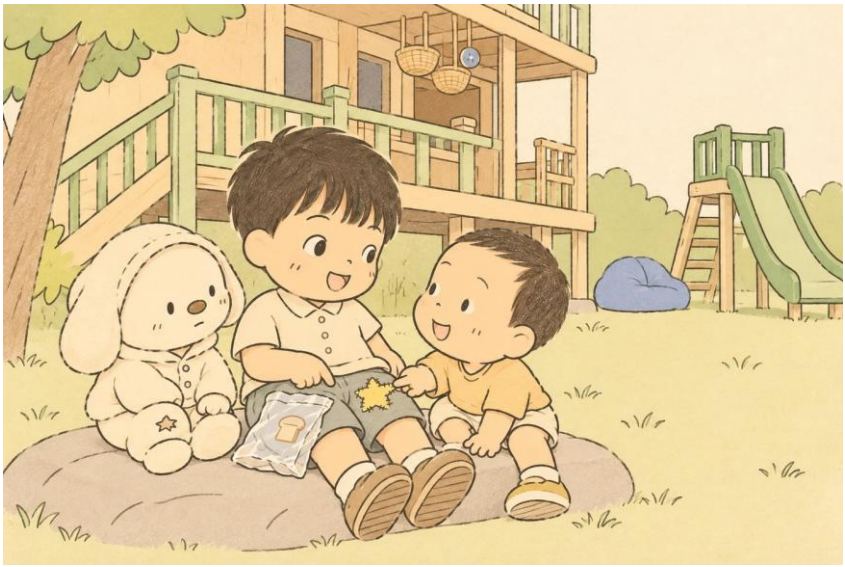
지성이는 앞장서 걸으며 바구니를 높이 흔들었어요.

"내 바구니도 있어!"

바구니 속에서 앙이가 달그락, 대답했어요.

열한 번째 이야기

누가 내 바지를 고쳤지?



아침에 바지를 입던 우성이가 한 발을 든 채 멈추었어요.

엉덩이 한쪽에 노란 천으로 오린 별이 하나 꿰매져 있지 뭐예요.

어제까지는 구멍이 있던 자리예요.

어제 저녁 마당 빨랫줄에 휙 걸어 두고 잊어버린 바지예요.

별을 보려고 고개를 뒤로 돌리면 별도 같이 뒤로 돌아가요.

우성이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아요.

지성이가 별을 손가락으로 짚어 가다가 한 군데에서 멈췄어요.

"한쪽이 길어."

다섯 끝 가운데 하나만 혼자 쭉 늘어나 있어요.

"왜 별이지?"

지성이가 물었어요. 우성이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어요.

"어제 저녁에 걸었는데 아침에 고쳐져 있어. 그럼 밤에 한 거야. 해달은 밤엔 바다 집에 가 있고, 뇨끼는 바늘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피오는 날개라서 바늘을 못 잡아."

"모리는? 모리는 맨날 고치잖아."

"모리는 밤엔 바느질 안 해. 바늘구멍이 안 보인다고 모리가 그랬어. 내가 알아."

우성이가 마지막 손가락을 접었어요.

"그럼 보리야. 보리는 뭐든 잘 만들잖아."

우성이가 보리네 부엌 문을 두 번 밀었어요.

"내 바지 고쳐 줘서 고마워."

보리는 반죽을 치대다 말고 앞치마 자락을 들어 올렸어요. 거기에도 손가락 두 개가 쏙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었어요.

"나 아니야. 나도 모리한테 맡겨야 해."

"모리는 밤엔 안 한다니까."

지성이가 보리 앞치마 끈을 당기며 물었어요.

"보리야, 왜 별이야?"

"글쎄. 내가 했으면 빵 모양으로 했을 텐데."

보리는 갓 구운 빵 두 개를 봉투에 담아 주었어요.

"찾으러 다니면 배고프잖아. 찾으면 그 친구도 하나 줘."

부엌을 나오자 지성이가 불쑥 말했어요.

"콩이."

"콩이는 땅만 파잖아."

"콩이야. 콩이 안경이 동그래."

안경이 동그란 거랑 별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지성이는 입을 앙다물고 콩이네 쪽으로 앞장섰어요.

콩이네 입구는 두 갈래예요. 집 그림과 삽 그림이 있는 표지판은 오늘도 거꾸로 서 있어요. 집 그림 쪽으로 씩씩하게 들어간 우성이는 흙더미에 코를 박고 나왔어요.

"퉤, 퉤. 여기 창고네."

다른 입구에는 콩이가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어요. 콩이는 땅굴에 사는 작은 두더지예요. 동그란 안경을 쓰고, 품에는 늘 접힌 종이를 넣고 다녀요.

"콩이야, 네가 형아 바지 고쳤지?"

지성이가 다 안다는 얼굴로 물었어요. 콩이는 안경을 밀어 올렸어요.

"아니. 나는 바늘이 없어. 그런데 이런 모양의 굴은 알아."

콩이가 접힌 종이를 펼쳤어요. 한 번 펴면 콩이 얼굴이 가려지고, 두 번 펴면 지성이가 통째로 가려져요.

"이 굴은 끝이 하나만 길지? 땅속에 큰 돌이 있어서 그래. 그 돌을 피해서 파다가 지렁이를 만났는데……."

별 이야기는 그만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콩이는 지도를 착착 접고, 지도를 싸 두었던 파란 천을 꺼냈어요.

"아, 맞다. 이거 모리한테 돌려줄래? 어제 빌렸어."

지성이가 천을 받아 주머니에 쏙 넣었어요.

모리는 집에 없었어요. 그 대신 두두가 봉투 두 장을 흔들며 뛰어왔어요.

"너희 모리 찾아? 왜? 엉덩이에 그거 별이야?"

두두가 한쪽 발을 쑥 내밀었어요. 신발끈이 리본 위에 리본, 두 번 묶여 있어요.

"이건 봤어? 누가 묶어 줬게? 궁금하지?"

지성이가 두두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두두, 왜 별이야?"

"별? 밤에 뜨는 별? 그게 왜 엉덩이에 떴어?"

우성이는 대답하다 지쳐서 그냥 걸었어요. 그제야 두두 목소리가 뒤따라왔어요.

"아 참! 모리는 강가에 있어! 내 신발도 모리가 묶어 줬어! 어젯밤에, 깜깜할 때!"

우성이 발이 멈칫했어요. 어젯밤에?

형제는 빙글 돌아서 강 쪽으로 뛰었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강가 납작돌 위에 모리가 앉아 있어요. 무릎에는 실과 바늘.

우성이는 돌아서서 엉덩이의 별을 가리켰어요.

"네가 했어? 밤에는 바늘구멍 안 보인다며."

모리는 별의 긴 끝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어요. 귀가 살짝 발그레해요.

"안 보이지. 그래서 실은 해 있을 때 미리 꿰어 뒀어. 바늘이 천에 들어가는 건 눈이 아니라 손끝이 알아."

"그럼 이건?"

지성이가 긴 끝을 짚었어요.

"가위는 손끝이 잘 몰라. 깜깜해서 한쪽이 길어졌어."

우성이가 손뼉을 짝 쳤어요.

"거봐, 내 말 맞지? 깜깜해서 안 보였잖아."

"형아는 모리 아니라고 했잖아."

지성이 말에 우성이 귀가 빨개졌어요.

"왜 별이야?"

지성이가 물었어요. 오늘만 벌써 네 번째 묻는 말이에요.

모리 눈이 반짝 빛났어요.

"그건 말이지. 깜깜해서 여기에 빛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 그런데 해는 안 돼. 해는 크고 동그래서 엉덩이가 다 덮여. 그래서 별로 했어. 별은 작아도 밤에 빛나니까."

지성이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어요.

"별은 이렇게 만들어. 첫째, 천을 반으로 접어. 둘째, 또 반으로 접어. 셋째, 비스듬히 한 번 싹둑."

"싹둑, 또 해 줘."

모리는 처음부터 다시 말해 주었어요. 접고, 또 접고, 싹둑. 지성이는 허공에 천을 접는 시늉을 하며 따라 했어요.

"이거 주려고."

우성이가 빵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거꾸로 탈탈 털자 부스러기 몇 알. 그게 다예요.

보리네 부엌을 나와서 한 입. 콩이 지도 밑에서 한 입. 두두 이야기를 듣다가 한 입. 지성이도 한 입, 또 한 입. 한 입씩이 모여서 빵 두 개가 됐어요.

모리는 빈 봉투를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맛을 말해 줘. 어떤 맛이야?"

"따뜻해."

지성이가 말했어요.

"겉은 바삭, 안은 말랑, 끝이 조금 탔어."

우성이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말했어요.

모리는 눈을 감고 입을 오물오물 움직였어요. 바삭, 하고 씹는 시늉을 하고, 말랑, 하고 볼을 부풀리고, 탄 데에서는 코를 살짝 찡그리고.

"음. 탄 데가 제일 맛있네."

그런데 모리 바지 무릎에도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덧댈 천이 없어서 바늘만 들고 있던 참이에요.

지성이가 주머니에서 파란 천을 꺼냈어요.

"이걸로는 돼?"

"어, 이건 내 천인데. 콩이한테 빌려준 거."

"콩이가 돌려준대."

지성이가 심부름 온 얼굴로 전했어요. 모리는 천을 무릎에 대고 동그랗게 꿰맸어요. 오늘은 햇빛이 밝아서 바늘구멍이 잘 보여요.

다 꿰매고 나자 지성이가 별을 다시 짚었어요. 이번에는 모리 손가락이 옆에서 같이 짚었어요. 한 땀, 한 땀.

"하나, 둘, 셋."

지성이 손가락이 거기서 멈추자, 모리가 이어서 셌어요.

"넷, 다섯, 여섯……"

"많이!"

"아니, 일곱."

"왜 일곱이지?"

모리는 들킨 얼굴이 되었어요.

"여섯 땀은 좀 모자라 보이고, 여덟 땀은 좀 많아 보이거든. 그건 내가 정한 거야. 책에는 없어."

지성이는 그 대답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손가락 일곱 개를 펴 보려다가 열 개가 다 펴져서, 세 개를 도로 접느라 끙끙댔어요.

.

집에 가는 길에 지성이가 별을 또 만졌어요.

"이름 붙여 줄까?"

우성이는 손을 뒤로 돌려 별의 긴 끝을 살살 쓰다듬었어요.

"모리별."

지성이는 그 이름이 좋아서 자꾸 따라 불렀어요. 모리별, 모리별. 그러다 자기 바지를 앞으로 당겨 보고, 뒤로 돌려 보았어요. 구멍은 아무 데도 없어요.

지성이는 무릎을 길바닥에 쓱쓱 문질렀어요.

“형아, 아직 안 났어.”

(옷 어딘가에 누가 몰래 고쳐 준 자리가 있으면, 이름을 붙여 주세요. 쿠마타별이든, 보리별이든요.)

열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돌도 쉬는 날



강에서 올라온 해달은 늘 납작돌부터 찾아요. 거기 올라앉아 한숨 돌리는 게 해달의 첫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오르자마자 바구니에서 돌 하나를 꺼냈어요.

길쭉하고 머리 쪽이 살짝 기운 돌이에요. 이름은 '꾸벅이'. 어젯밤 해달이 붙여 준 이름이에요. 세워 두면 꼭 졸다가 고개를 떨군 모양이 되거든요.

(해달의 돌은 이름을 받으면 그날부터 살짝 무거워진대요. 해달 바구니가 날마다 무거워지는 까닭이에요.)

해달은 꾸벅이를 납작돌 위에 옆으로 눕히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웠어요. 배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고, 눈은 꼭 감고.

얼마 뒤 두두가 종종걸음으로 왔어요. 겨드랑이에 낀 봉투 두 장이 바람이 불 때마다 팔랑팔랑.

"해달! 초대장 받을래? 내일 거? 모레 거? 근데 너 자?"

해달이 눈도 안 뜨고 손가락 하나로 꾸벅이를 가리켰어요.

"꾸벅이 누웠지?"

"응."

"그럼 나도 자는 거야."

두두는 해달과 꾸벅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돌 하나, 해달 하나. 둘 다 똑같이 누워 있어요.

"그럼 꾸벅이가 서 있으면?"

"놀자는 거지."

해달은 그 말을 끝으로 정말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수염이 살랑살랑.

두두는 봉투를 꽉 쥐었어요. 누가 모르고 와서 큰 소리로 부르면 어떡해요.

두두는 봉투 한 장을 뒤집어 연필로 커다랗게 썼어요. 뒷면이 깨끗한 건 모레 초대장뿐이었어요.

'해달을 깨우지 마시오.'

글씨가 너무 커서, 끝의 '시오'는 종이 끄트머리에 겨우 매달렸어요. 두두는 해달을 등지고 길목에 서서, 종이를 번쩍.

바람이 불면 모서리를 꼭 붙잡고, 나비가 날아오면 나비한테도 "쉿." 나비는 영문도 모르고 다른 꽃으로 날아갔어요.

.

맨 처음 온 건 우성이와 지성이였어요.

"해달! 놀……."

"쉿!"

두두가 종이를 형제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여기 써 있잖아."

우성이와 지성이는 종이를 뚫어지게 보았어요. 둘 다 아직 글자를 못 읽어요. 종이 위에 까만 꼬불꼬불이 잔뜩 있을 뿐이에요.

"뭐라고 써 있는데?"

두두가 아주 작게, 그 대신 아주 길게 읽어 주었어요.

"해달을, 깨우지, 마시오. 알았지? 발뒤꿈치로 걸을 수 있어? 말은 개미만 하게 할 수 있어? 해 볼래?"

지성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깨? 밥에 뿌리는 깨?"

"그 깨 말고. 잠 깨는 깨."

지성이는 해달 쪽을 넘겨다보았어요. 해달 수염 끝에 깨만 한 모래알이 하나 붙어 있어요. 지성이는 그걸 떼어 주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깨우지 말랬으니까요.

우성이가 살금살금 발끝을 세웠어요. 지성이도 따라서 까치발. 둘은 해달 쪽으로 손만 한 번 흔들고 물러났어요. 몇 걸음

가서부터는 그냥 뛰었어요. 강물이 발목까지만 찰랑이는 얕은 물가까지.

얕은 물가에도 해달의 돌이 줄지어 놓여 있어요. 우성이는 돌 하나에 엉덩이를 대려다 말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도 누워 있어. 자는 돌이야."

옆 돌도 누워 있고, 그 옆 돌도 누워 있어요. 둘은 결국 풀밭에 앉았어요. 돌 옆을 지날 때마다 까치발을 하느라 다리가 다 아팠어요.

지성이가 물에 발을 담갔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첨벙!

지성이는 놀란 얼굴로 앉아 있다가, 형이 웃으니까 따라서 깔깔 웃었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해달이 눈을 떴을 때는 해가 한 뼘쯤 옮겨 가 있었어요.

해달은 하품을 하며 일어나 앉았어요. 목이 바싹 말라요. 혼자 홀짝이는 물 말고, 누구하고 마주 앉아 마시는 물이 마시고 싶어요.

해달은 꾸벅이를 두 손으로 안아 일으켜 세웠어요.

"꾸벅이 일어났다. 나도 일어났다."

이만하면 누구라도 알아보겠지. 해달은 꾸벅이 옆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해달은 수염을 쓰다듬어 보다가, 흠흠 헛기침도 해 보았어요.

헛기침 소리에 길목의 두두가 종이를 더 높이 들었어요.

"쉿! 누구야?"

길에는 개미 한 마리 없어요.

두두는 여전히 해달을 등지고, 길 쪽만 보고 있어요.

먼 데서 뇨끼가 긴 목을 쭉 빼고 납작돌 쪽을 넘겨다보았어요.

"어, 꾸벅이 섰다. 해달 일어났나 봐."

"쉿! 쉿!"

두두가 종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어요. 뇨끼 목이 높아지면 종이도 높아지고, 뇨끼 목이 옆으로 가면 종이도 옆으로 가요. 결국 뇨끼 눈앞에는 종이만 남았어요.

"안 보여."

"안 보여야 돼. 해달 자는 중이야."

뇨끼는 긴 목을 축 늘어뜨리고 돌아갔어요.

다음에는 우성이와 지성이가 돌아왔어요. 지성이 바지가 무릎까지 흠뻑 젖었어요. 우성이가 납작돌 쪽을 가리켰어요.

"봐, 꾸벅이 일어났어. 그럼 해달도 일어난 거야."

"쉿! 종이에 아직 '깨우지 마시오'라고 써 있잖아."

두두가 종이를 탁탁 두드렸어요.

납작돌 위에서 해달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일어났어요. 터벅터벅 걸어와 두두 바로 등 뒤에 섰어요.

"두두."

두두는 돌아보지도 않고 종이를 더 높이 들었어요.

"쉿! 해달 자는 중이야!"

"나 해달인데."

두두가 화들짝 돌아섰어요. 해달 얼굴, 손에 든 종이, 다시 해달 얼굴.

"어…… 언제 깼어?"

"꾸벅이 일어날 때."

두두는 종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종이는 맞게 썼는데. 꾸벅이가 먼저 일어나 버렸잖아."

우성이가 맨 처음 웃음을 터뜨렸어요. 두두는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웃었어요. 종이 앞쪽의 '깨우지 마시오'가 같이 들썩들썩. 지성이는 왜 웃는지 잘 몰랐지만 제일 크게 웃었어요.

웃다 보니 다들 목이 말랐어요. 해달은 강물을 길어 와 친구들 앞에 한 그릇씩 놓았어요. 돌아가던 뇨끼도 다시 불러와 맨 큰 그릇을 주었어요. 뇨끼가 고개를 옆으로 갸웃 기울였어요. 물은 차갑고 달아요. 해달은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친구 얼굴을 하나씩 돌아보았어요.

지성이가 납작돌에 엎드려 꾸벅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세우지도 눕히지도 않고, 비스듬히 기대 놓았어요.

"이건?"

모두 해달을 쳐다보았어요. 해달은 턱을 괴고 오래오래 생각했어요.

"곧 잘지도 몰라."

두두가 얼른 종이를 집어 들었어요. 해달이 두두 손을 꾹 눌렀어요.

"그건 진짜 잘 때."

.

해가 기울자 해달은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납작돌 위의 돌들을 하나씩 바구니에 담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들어가, 들어가, 오늘은 나랑 가자."

꾸벅이 앞에서는 노래 뒷부분을 불러 주었어요.

"나와, 나와, 내일은 네가 쉬어."

꾸벅이는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고 납작돌 위에 옆으로 누웠어요. 두두가 그 밑에 '해달을 깨우지 마시오' 종이를 끼웠어요. 이번엔 종이가 맞는 말을 해요.

해달은 꾸벅이 발치에서 작고 동그란 돌을 집어 지성이 손바닥에 올려 주었어요.

"꾸벅이 아기야. 얘는 오늘 너희 집에서 자."

그러고 나서 강물에 등을 대고 동동 누웠어요. 바구니는 배 위에. 강물이 해달을 천천히 실어 갔어요.

잘 시간이 되자, 지성이는 머리맡에 꾸벅이 아기를 비스듬히 세워 두었어요.

"형아, 나 곧 잘지도 몰라."

대답이 없어요. 우성이는 이불 위에 앉은 채로, 꾸벅이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열세 번째 이야기

지도는 맞는데 길이 없어



"우리 집에 놀러 와. 오는 길은 여기 다 있어."

콩이가 흙 묻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큰 나무가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알겠어!"

우성이는 지도를 받자마자 신발부터 신었어요. 콩이는 입을 벌린 채 멈췄어요. 아직 첫 문장도 못 끝냈는데요.

"형아, 기다려."

지성이가 한쪽 신발을 손에 든 채 뛰어나왔어요. 피오도 폴짝폴짝 따라왔어요.

"들었지? 나도 간다!"

콩이가 뒤에서 뭐라고 더 말했어요. 아래쪽이 어떻고, 구멍이 어떻고. 우성이 귀에 들어온 건 딱 한마디였어요.

"지름길."

큰 나무로 가는 길에 지성이가 쪼그려 앉았어요. 길가에 노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어요. 꽃잎 하나가 반쯤 접혀서, 꼭 한쪽 눈을 찡긋하는 얼굴이에요.

"형아, 이 꽃 윙크해."

"나중에 봐. 콩이네 가야 돼."

지성이는 꽃한테 같이 찡긋해 주고 나서야 일어났어요.

큰 나무는 금방 나타났어요. 우성이는 지도대로 씩씩하게 왼쪽으로 꺾었어요.

지도에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는 나무뿌리뿐이에요. 굵은 뿌리들이 땅 위로 불룩불룩 솟아 이리저리 엉켜 있어요.

피오가 제일 높은 뿌리에 폴짝 올라섰어요.

"콩이네야?"

"아니. 거의 다 왔어."

우성이는 뿌리를 빙 돌아갔어요. 지성이는 뿌리를 넘다가 발이 푹 빠졌어요. 신발 속으로 흙이 들어가서,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서걱서걱.

"형아, 신발에 흙."

"참아. 거의 다 왔다니까."

뿌리를 한 바퀴 돌고 나니 낯익은 꽃이 보였어요. 아까 지성이가 같이 찡긋해 준 바로 그 꽃이에요.

"이 꽃, 아까 봤는데."

"비슷한 꽃이 많아서 그래."

그런데 꽃잎 접힌 모양까지 똑같은걸요.

우성이는 지도를 코앞까지 들어 올렸어요.

"내가 알아. 큰 나무에서 왼쪽, 그다음에 쭉. 아니, 오른쪽이었나?"

지성이가 형 소매를 잡아끌었어요.

"아니야. 이쪽!"

지성이가 가리킨 건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덤불 사이로 난 좁은 틈이었어요.

"거기는 지도에 없어."

"이쪽이야. 나 알아."

지성이는 발을 쾅 구르더니 혼자 덤불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성이와 피오는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덤불을 지나고, 뿌리를 지나고, 돌멩이 세 개를 지나서…….

노란 꽃이 또 나왔어요. 여전히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지성이는 입을 꾹 닫고 슬금슬금 형 뒤로 가서 섰어요.

"내가 볼게!"

피오가 낮은 가지로 폴짝 뛰어올랐어요. 날개가 짧아서 가지 하나 높이가 고작이에요. 피오는 몸을 쭉 늘이고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나무 많아!"

그건 우성이도 알아요.

지성이가 뿌리 위에 털썩 앉아, 신발을 거꾸로 들고 흙을 털었어요.

"형아, 집 어디야?"

우성이는 지도를 돌렸어요. 지도 위의 작은 집 그림이 우성이 쪽을 보다가, 피오 쪽을 보다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섰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나도 모르겠어."

우성이가 지도를 내려놓았어요. 말하고 나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우성이는 소매로 눈을 쓱 문질렀어요. 문질러도 자꾸 젖었어요.

훌쩍.

지성이가 형 무릎에 손을 얹었어요.

그 훌쩍 소리를 피오가 들었어요. 피오는 가지 끝에서 가슴을 한껏 부풀리더니, 숲이 떠나가라 외쳤어요.

"우성이 여기 있다! 우성이 여기 있다아!"

작은 새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클까요? 뿌리 밑까지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그러자 뿌리 뒤에서 흙이 들썩들썩하더니, 둥근 안경이 쏙 나왔어요. 콩이예요!

"거기 있었어? 계속 기다렸는데. 왜 안 내려와?"

꽃 옆 풀잎에서는 느루가 더듬이를 쭉 내밀었어요.

"너희, 아까부터 이 꽃 앞을 빙빙 돌더라. 부르려고 하면 벌써 저만치 가 있고."

우성이는 얼른 지도를 얼굴 앞에 들었어요. 젖은 눈이 들킬까 봐요.

"내려오라니?"

"여기 구멍으로. 지름길은 땅속으로 오는 길이야. 내가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콩이가 뿌리 사이의 작은 구멍을 가리키고는, 품에서 큰 종이를 또 꺼냈어요.

우성이는 지도 앞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엉덩이 밑에 깔았어요. 손이 또 지도를 낚아채서 뛰어가 버리지 못하게.

"이제 끝까지 말해 줘. 내 손은 깔고 앉았어."

지성이도 형을 따라 두 손을 엉덩이 밑에 깔았어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콩이는 말 대신 지도를 폈어요.

"여기가 큰 나무."

한 칸.

"여기가 땅속 길."

또 한 칸.

"여기가 비 오는 날 길."

또 한 칸. 펼 때마다 지도가 콩이보다 커져요.

(콩이 지도를 끝까지 다 펼쳐 본 친구는 아직 없어요. 콩이도요.)

종이가 또 펴지더니, 그 끝이 피오를 덮었어요.

"깜깜해! 밤이다!"

피오가 종이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종이는 이제 우성이 무릎까지 덮었어요. 손은 깔고 앉았으니, 자꾸 말려 올라가는 모서리는 턱으로 꾹꾹. 지성이는 반대쪽 모서리를 무릎으로 꾹꾹.

우성이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 엉덩이 밑에서 손가락 하나만 빼서 지도 한쪽을 짚었어요.

"이거, 그 꽃이야. 윙크하는 거. 세 번이나 봤어."

"맞아."

콩이가 좋아서 지도를 한 칸 더 폈어요. 이번엔 지성이 머리 위로 종이가 덮였어요.

느루가 지도 가장자리로 다가와 더듬이를 길게 뻗었어요.

"여기는 비 오면 웅덩이가 생겨. 나는 맨날 거기 지나가."

콩이가 연필로 파란 줄을 쓱쓱 그었어요.

"대신 '느루 길'이라고 써 줘. 내가 아침부터 가는 길이니까."

우성이는 꽃 그림 옆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아까 잘못 꺾어 들어갔던 자리에는 꼬불꼬불한 뿌리를 그렸어요. 콩이가 그 옆에 '뿌리만 있음'이라고 적어 주었어요. 지성이는 덤불 틈에 작은 화살표를 하나 그렸어요.

"그건 뭐야?"

"꽃한테 가는 길."

콩이가 지도를 들어 올려 이리저리 비춰 보았어요.

"틀린 길까지 있는 지도는 처음 그려 봐."

친구들은 새 지도를 들고 콩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피오가 우성이 어깨 위에서 "오른쪽!" 하고 외쳤어요. 느루는 콩이 손바닥에 올라탔어요. 물론 물어보고 나서요.

콩이네 문 앞 표지판은 오늘도 거꾸로예요.

"두두가 세웠어. 바꾸면 두두가 서운해할까 봐 그냥 뒀어."

친구들은 둥글게 앉아 볶은 콩을 오도독오도독 나누어 먹었어요. 피오는 콩 한 알을 가방에 넣어 두었어요. 혹시 또 길을 잃으면 먹으려고요.

.

해가 기울 무렵 형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는 길에 그 노란 꽃이 또 나왔어요. 오늘 하루에만 네 번째예요.

지성이는 지도의 동그라미에 손가락을 대고, 꽃잎에도 손가락을 살짝 댔어요.

"지도에 있으니까 진짜 같다."

우성이는 지도를 네모반듯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연두집 창밖에서 누가 외쳤어요.

"우성이 여기 있다!"

피오였어요. 다음에 또 쓸지 모르니 연습해 두는 거래요.

우성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어요.

"알아! 나 여기 있어. 집이야!"

열네 번째 이야기

저녁 종은 두 번 울렸어



땡그랑, 땡그랑.

두두가 그루터기 식탁 옆에서 저녁 종을 울렸어요. 종소리가 마당을 지나 놀이터 미끄럼틀까지 데굴데굴.

보리는 커다란 냄비 앞에서 수프를 젓고, 피오는 식탁 가장자리에서 빵 조각을 세요.

"하나, 둘, 셋…… 처음부터!"

셀 때마다 하나씩 맛을 보니 자꾸 모자라요. 보리는 못 본 척, 몇 조각을 슬쩍 더 넣어 주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모리 의자가 비어 있어요.

"모리는?"

해달이 무릎 위의 바구니를 내려다보았어요. 바구니 끈 끝에 못 보던 매듭이 하나 생겨 있어요. 단단하고 동글동글한 매듭이에요.

"아까 납작돌에 왔었어. 끈이 또 풀리려고 한다고, 이것만 묶어 준다고."

그러고 보니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콩이 모자의 처진 챙은 빳빳하게, 두두 멜빵 단추는 단단히, 보리 보따리의 터진 귀퉁이도 감쪽같이.

모두의 눈이 피오에게 갔어요. 피오가 얼른 씨앗빛 가방을 열어 보았어요.

"난 멀쩡해!"

그러고는 좀 서운한 얼굴로 가방을 닫았어요.

보리는 수프를 작은 냄비에 옮겨 담고, 보자기에 빵 두 덩이를 쌌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손가락만 한 초 한 자루.

"누가 가져다줄래?"

"내가 갈게."

우성이가 의자에서 내려오자, 지성이도 따라 내려왔어요. 지성이 그릇에는 아직 수프가 가득한데요.

"지성이는 먹고 있어도 돼."

지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형 옷자락을 잡았어요.

"나도."

보리는 형제의 숟가락 두 개를 보자기 매듭에 꽂아 주었어요. 우성이는 냄비를 들고, 지성이는 보자기를 안았어요.

"형아, 무거워?"

"아니."

우성이 팔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지성이는 보자기를 한 팔로 옮겨 안고, 남은 손으로 냄비 손잡이 한쪽을 잡았어요. 그러자 냄비가 덜 흔들려요.

식탁을 떠나 몇 걸음 가다가 우성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식탁 둘레는 벌써 어둑해요. 그런데 식탁 한쪽 빈자리, 그 앞의 컵 위에만 저녁 햇빛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둘은 냄비를 사이에 두고 게처럼 옆으로 걸었어요. 옆으로, 옆으로, 모리네 처마까지.

처마 밑에는 낯익은 물건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단추 떨어진 조끼, 손잡이 빠진 바구니, 우성이가 맡긴 오리 후드, 손잡이가 흰 숟가락.

모리는 그 사이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실을 바늘에 꿰고 있었어요.

"나 곧 가. 이것만."

모리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어요.

"첫째, 두두 가방 끈. 둘째, 해달 바구니 손잡이. 셋째, 이 조끼 단추……."

해는 벌써 넘어가는 중이에요. 바늘구멍이 어두워서, 실 끝이 자꾸 구멍 옆으로 비껴가요.

지성이가 보자기를 풀어 빵을 꺼냈어요.

"모리, 빵."

한 손엔 바늘, 한 손엔 실. 모리는 빵을 받을 손이 없어요.

지성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빵을 엄지손톱만 하게 떼어 모리 입 앞에 내밀었어요.

"입 벌려."

모리가 그만 푸핫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바람에 실이 미끄러지고, 실패가 데구루루 굴러갔어요. 우성이가 달려가 실패를 잡았어요.

"먹고 해. 우리 여기 있어."

"응, 이것만 하고."

모리는 또 바늘을 들었어요. 바늘구멍은 아까보다 더 깜깜해졌는데도요.

우성이는 실패를 등 뒤에 감추고 생각했어요. 모리는 고장 난 걸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렇다면.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우성이가 자기 배를 두 손으로 문질렀어요.

"모리, 나 여기 고장 났어."

"어디?"

모리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배. 아까부터 꾸르륵 소리가 나. 지성이도."

지성이가 얼른 입으로 소리를 냈어요.

"꾸르르르륵."

모리는 우성이 배를 들여다보고, 지성이 배에도 귀를 대 보았어요.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건 바늘로는 못 고치는데."

그러자 지성이가 냄비 뚜껑을 똑똑 두드렸어요.

"수프로 고쳐. 모리도 같이 먹어야 고쳐져."

모리는 바늘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수프 냄새가 확. 지성이가 빵 조각을 모리 입에 쏙 넣어 주었어요.

"맛있다. 보리 빵이네. 이건 반죽을 오래 치대서 결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원래 빵이라는 건……."

모리는 말을 하다 말고 지성이 얼굴을 보았어요. 지성이는 다음 빵 조각을 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참, 너희는? 너희는 저녁 먹었어?"

지성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꾸르륵. 이번엔 진짜 배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때 그루터기 식탁 쪽에서 저녁 종이 다시 울렸어요.

땡그랑땡그랑, 땡그랑!

처음보다 더 길게.

그런데 숟가락이 두 개뿐이에요. 우성이 것 하나, 지성이 것 하나. 모리 숟가락은 저기, 손잡이가 흰 채로 고칠 물건 더미에 누워 있어요.

지성이가 자기 숟가락을 모리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모리 해."

"그럼 지성이는?"

지성이는 빵을 하나 더 떼어 자기 입에 넣었어요. 볼이 불룩한 채로 히죽.

얼마 뒤 처마 밑이 북적북적해졌어요. 맨 앞은 종을 든 두두. 그 뒤로 큰 냄비를 안은 보리, 숟가락 한 줌을 쥔 콩이. 맨 뒤는 그릇 바구니를 든 해달. 뇨끼는 너무 커서 창문으로 긴 목만 쑥 들이밀었어요. 피오는 느루를 마중 나가, 나란히 걸어오는 중이에요.

처마 밑은 금세 깜깜해졌어요. 수프 김만 하얗게 보여요.

"혹시 몰라서."

보리가 그 초를 꺼냈어요. 불이 붙자 처마 밑이 노랗게 환해졌어요. 단추가 반짝, 바늘이 반짝, 모두의 숟가락이 반짝.

"봐. 혹시 몰라서 넣은 건 꼭 쓰인다니까."

모리는 후드를 벗고 바닥에 앉았어요.

"처마 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네. 나는 여기가 물건 두는 데인 줄만 알았어."

"뇨끼는 반만 앉았어."

지성이가 창문을 가리켰어요. 뇨끼는 창틀에 턱을 얹은 채 히히 웃었어요.

우성이는 모리 무릎 위의 바늘을 집어, 선반 맨 위 높은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모리는 친구들을 하나씩 둘러보았어요. 해달 바구니의 새 매듭, 콩이 모자의 빳빳한 챙, 두두의 단단한 멜빵 단추가 촛불에 다 보여요.

"다들 나 때문에 여기서 먹네."

"수프는 어디서 먹어도 수프야."

보리가 국자로 냄비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몫으로 챙겨 온, 한쪽이 납작한 빵을 반으로 갈라 모리에게 건넸어요.

다 먹고 나서 두두가 종 손잡이를 보았어요. 감긴 끈이 실 몇 가닥만 겨우 붙어 있어요. 종을 두 번이나 세게 흔든 탓이에요.

모리가 손을 쓱 내밀었어요.

두두는 얼른 종을 등 뒤로 숨겼어요.

"이건 내일."

"그럼 내일 맨 처음에."

"아니. 내일 맨 처음은 아침밥이야."

처마 밑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틈에 지성이가 손가락 세 개를 펴 들었어요.

"내일은 숟가락 세 개."

모리가 고칠 물건 더미에서 흰 숟가락을 집어 들었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큰 냄비에 쑥 넣어 수프를 떴어요.

"이건 안 고칠래. 흰 숟가락은 수프가 빙 돌아서 들어오니까, 더 오래 맛있어."

그러고는 한 입. 수프 반은 입으로, 반은 턱으로 들어갔어요.

열다섯 번째 이야기

쿠마타가 없는 아침



어제 오후, 지성이는 파란 빈백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출렁, 출렁. 그게 재미있어서 자꾸자꾸. 그 밑에 쿠마타가 누워 있었는데도요.

쿠마타는 연두집에서 제일 길쭉한 갈색 곰이에요. 하루의 거의 전부를 빈백에 누워서 보내요.

"음."

쿠마타는 한 번 뒤척였을 뿐, 눈을 뜨지 않았어요.

우성이가 와서 쿠마타 팔을 흔들었어요.

"쿠마타, 놀이터 가자. 미끄럼틀 같이 타자."

대답이 없었어요. 우성이는 풀잎 하나를 뜯어 쿠마타 코끝을 간질였어요. 코가 씰룩. 그래도 눈은 그대로.

우성이는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쿠마타는 맨날 자. 재미없어."

쿠마타 귀가 한 번 움찔했어요. 우성이는 그걸 보고도 그냥 놀이터로 뛰어갔어요. 지성이도 빈백에서 뛰어내려 형을 따라갔어요.

형제가 가고 나서, 쿠마타는 한쪽 눈을 살짝 떴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다시 감지 않았어요.

미끄럼틀은 생각만큼 재미있지 않았어요. 우성이는 열 번을 타고도 자꾸 마당 쪽을 돌아봤어요. 지성이는 미끄럼틀 꼭대기에 앉아 내려오지도 않고 마당 쪽만 봤어요.

모리는 가끔 연두집에 놀러 와서 자고 가요. 그날 밤, 모리는 형제 방에서 옛날이야기를 하다가 그대로 잠들었어요.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 모리가 먼저 코를 골았어요.

우성이는 잠이 안 왔어요.

"지성아, 자?"

"응. 자."

지성이도 잠이 안 왔나 봐요. 둘은 이불 속에서 천장만 말똥말똥 봤어요. 우성이가 창밖을 내다보니, 쿠마타가 누운 채 마당 너머를 오래오래 보고 있었어요. 별이 다 뜰 때까지.

.

아침이 됐어요. 우성이는 마당 쪽을 보지 않고 세수를 했어요. 지성이도 마당 쪽을 보지 않고 양말을 신었어요. 짝짝이로.

아침상에서 모리가 빵 하나를 따로 덜었어요.

"오늘은 둘 다 왜 이렇게 조용해? 이건 쿠마타 몫. 누가 갖다줄래?"

"지성이가."

"형아가. 형아가 맨날 잔다고 했잖아."

"너는 그 위에서 뛰었잖아."

지성이 입이 삐죽 나왔어요. 모리는 두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빵을 반으로 갈라 하나씩 쥐여 줬어요.

"그럼 둘이 반씩."

지성이는 자기 반쪽에 딸기잼을 듬뿍듬뿍 발랐어요. 빵이 안 보일 만큼.

"왜 그렇게 많이 발라?"

"미안한 만큼."

형제는 빵 반쪽씩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살금살금. 둘 다 빈백 쪽은 보지 않고 제 발끝만 보며 걸었어요.

"형아, 뭐라고 할 거야?"

"몰라. 너는?"

"나도 몰라."

지성이는 형 등 뒤에 반쯤 숨었어요. 빵을 쥔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가서, 딸기잼이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왔어요. 빈백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세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우성이가 눈을 꼭 감고 빵을 쑥 내밀었어요.

"쿠마타, 이거……."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대답이 없었어요. 우성이가 한쪽 눈을 떴어요.

빈백이 길쭉하게 꺼져 있었어요.

머리 자리는 동그랗게, 등 자리는 길게, 발 자리는 저 끝까지. 쿠마타가 밤새 누워 있던 모양 그대로예요. 그런데 쿠마타가 없어요.

"이만큼 자국이 있는데, 쿠마타는 없네."

그때 모리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계단 밑에 이게 있었어."

종이에는 커다란 글씨가 두 줄. 모리가 읽어 준 말은 이랬어요.

'잠깐 다녀올게. 쿠마타.'

"어디를?"

모리가 종이를 뒤집었어요. 뒷면은 하얬어요.

형제는 손에 든 빵 반쪽만 내려다봤어요.

모리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건 말이지. 곰은 그늘을 좋아하고, 그늘은 나무 밑에 있으니까……."

"물 마시러 갔어. 쿠마타는 일어나면 물부터 마시잖아."

우성이가 모리 말을 끊었어요.

"그럼 누가 찾나 보자."

빨간 무당벌레에는 우성이가, 노란 무당벌레에는 모리와 지성이가 탔어요. 두 무당벌레는 마당을 빠져나가 서로 다른 길로 갈라졌어요.

우성이는 물가로 달려갔어요. 옆이 훵해요. 늘 노란 무당벌레가 나란히 달리고, 그 위에서 지성이가 이것저것 가리키던 자리예요.

물가에 큰 갈색 등이 보였어요. 둥그스름하고 길쭉한 등.

"쿠마타!"

우성이는 뛰어내려 달려가서 손을 얹었어요. 차갑고 딱딱해요.

바위였어요.

우성이는 바위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어요.

"쿠마타. 맨날 잔다고 해서……."

말이 목에 걸렸어요. 바위한테 하는 말인데도요. 우성이는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쿠마타. 어제 맨날 잔다고 한 거, 미안해."

세 번째는 쿠마타 귀가 있을 만한 자리에 대고 작게 했어요. 그러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늘 누워만 있던 쿠마타는 어디가 그렇게 가 보고 싶었을까?

.

그 시각, 모리와 지성이는 나무 그늘에 닿았어요. 늦여름 한낮에도 서늘한 곳이에요. 그늘 한가운데에서 뇨끼가 긴 목을 구부려 제 발을 내려다보고 있지 뭐예요.

"뇨끼! 쿠마타 못 봤어?"

"못 봤어. 내 발 보고 있었어. 오늘따라 멀어 보여서."

지성이는 그늘에 털썩 앉아 나뭇가지로 땅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어요. 그 안에 길쭉한 쿠마타를, 그 위에 폴짝 뛰어오른 작은 발 두 개를. 동그라미 옆에는 손을 하나. 손가락이 다섯 개보다 좀 많은 손이에요.

지성이가 그림 속 손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깨웠으면 미안해. 다음엔 물어볼게."

갈림길에서 두 팀이 만났어요. 뇨끼도 성큼성큼 따라왔어요. 아무도 쿠마타를 못 찾았어요.

지성이가 모리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높이 들었어요.

"다녀온댔잖아. 우리도 집에 가 보자."

.

연두집 마당에 들어서니 노랗고 동글동글한 배들이 빈백 앞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빈백에는, 쿠마타가 있었어요. 아침의 자국에 몸을 딱 맞추고 길게 누워서.

쿠마타가 눈을 한쪽만 떴어요.

"왔어? 그늘 쪽 배가 달더라."

"우리가 없어진 건 안 찾았어?"

우성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쿠마타는 느릿느릿 하품을 했어요.

"편지가 없어서, 곧 올 줄 알았지."

지성이는 자기 빈손을 내려다봤어요.

"우리는…… 편지 안 썼다."

우성이가 빈백 끄트머리에 앉았어요. 우성이는 바위 앞에서 세 번 연습한 말을 꺼냈어요.

"어제 맨날 잔다고 한 거, 미안해."

지성이도 형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나는 위에서 뛰었어."

"응. 좀 놀랐어. 다음에는 옆에서 불러 줘."

형제는 하루 종일 쥐고 다닌 빵 반쪽을 내밀었어요. 둘 다 납작. 쿠마타는 두 쪽을 맞대어 하나로 만들고 한 입에 넣었어요. 턱에 딸기잼이 묻어 반짝반짝.

"쿠마타, 어디 갔다 왔어?"

"배 따러."

지성이가 자기 배를 통통 두드렸어요.

"배는 여기 있는데?"

"그 배 말고."

"혼자?"

"응. 누워서 보면 늘 그 나무가 보였거든. 나도 한 번 가 보고 싶었어."

우성이는 쿠마타 옆에 등을 대고 누워 봤어요. 정말로 마당 너머에 배나무 꼭대기가 조그맣게 보여요.

"그런데 배는 왜 가져왔어?"

"같이 먹으려고."

쿠마타가 눈을 감았어요. 드르렁.

지성이는 배를 빈백 앞에 한 줄로 세웠어요. 우성이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성이는 친구들도 셌어요. 지성이, 모리, 뇨끼, 쿠마타, 그리고 자기.

"우리도 다섯이고."

지성이는 배를 한 번 보고, 친구들을 한 번 봤어요.

"둘 다 많이네."

우성이가 쿠마타 옆의 빈자리를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넓혔어요.

열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 숲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날은 늦여름 아침 해가 유난히 좋았어요. 빈백도 따끈, 미끄럼틀도 따끈, 연두집 계단 난간까지 따끈따끈.

두두가 오늘은 초대장을 한 묶음이나 안고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오늘 저녁에 그루터기 식탁에서 해 지는 거 볼 사람? 너? 너도? 근데 늦으면 어떡해? 해는 안 기다려 주잖아!"

형제는 두두를 따라 초대장을 나르러 나섰어요. 피오가 길가 돌 위에서 먼저 외쳤어요.

"알려 줄게!"

그러고는 짧은 날개를 파닥파닥, 덤불 밑으로 낮게 날아가 버렸어요. 무엇을 알려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첫 번째 집은 느루의 잎사귀 정원이에요. 느루는 초대장을 받자마자 더듬이를 쭉 세웠어요.

"해 질 때? 그럼 나 지금 가야 해. 내 걸음이면 내일 아침쯤 도착할걸."

느루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지성이가 얼른 쪼그려 앉아 손바닥을 내밀었어요.

"태워 줄게."

"아니. 오늘은 내 발로 갈래."

지성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강가 납작돌에는 해달이 막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은 강물이 자꾸 코를 밀어서 늦었어."

해달은 바구니에서 돌을 하나씩 꺼내 물 젖은 모랫길 위에 한 줄로 눕혔어요. 몽글이, 바람구멍, 동글납작이, 그리고 아직 이름 없는 막내.

"돌을 왜 길에 놔?"

"볕 쬐라고. 물에서 오느라 다들 축축해."

돌 인사가 워낙 길어서, 두두는 초대장 한 장 건네는 동안 질문을 열 개나 했어요.

모리네 처마 밑에서는 뇨끼가 목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개미줄을 내려다보느라 목이 뻐근해요. 모리가 손가락 하나를 번쩍 세웠어요.

"그건 말이지. 첫째, 목을 한쪽으로만 구부리면 뼈들이 '야, 좀 비켜' 하고 다퉈. 둘째, 그러니까 쭉 펴서 평평한 데에 내려놔. 셋째, 그럼 뼈들이 한 줄로 서서, 차례차례……."

우성이는 하품을 했어요. 두두는 그사이 초대장을 뇨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주었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데에 쭉. 알았지?"

"응. 근데 졸려."

콩이는 두 갈래 입구 앞에서 지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식탁까지 가는 길을 연필로 굵게 긋고는, 자국이 마르라고 풀밭에 활짝 펴 두었어요.

마지막은 보리의 부엌이에요. 문을 두 번 밀자 빵 냄새가 와락 쏟아졌어요. 보리는 저녁에 가져갈 바구니를 싸는 중이었어요.

"빵 하나.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상추 한 통이 통째로 들어갔어요. 국자도 들어갔어요.

"국자는 왜?"

"누가 수프를 끓이고 싶어 할지 모르잖아."

바구니는 뚜껑이 다 닫히지 않을 만큼 불룩해졌어요. 맨 위에는 상추 잎이 삐죽.

점심때 형제는 연두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성이가 밥그릇을 내밀었어요.

"밥에 반짝이 뿌려 줘. 많이 많이."

반짝이는 밥 위에도, 식탁 위에도, 지성이 무릎 위에도 떨어졌어요. 우성이는 딸기잼 바른 빵을 세 개 먹고, 네 개째는 지성이 접시에 슬쩍 올려 주었어요. 그러고는 둘 다 쿠마타 옆에 누워 낮잠을 잤어요.

느루 생각은 그만 깜빡 잊어버렸어요. 형제도, 두두도, 피오도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해가 기울자 다들 그루터기 식탁으로 모였어요. 보리는 바구니를 안고 뒤뚱뒤뚱 왔어요. 오는 길에 두두를 만나, 바구니를 내려놓고 한참 수다를 떨다 왔어요.

피오가 식탁 한가운데로 폴짝 올라섰어요.

"느루 없다! 들었지?"

지성이가 벌떡 일어나 발을 쿵쿵 굴렀어요.

"내가 데리러 갈래. 지금."

그때 보리 바구니 속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나, 아침부터 오는 중이었어."

보리가 뚜껑을 열었어요. 상추 잎 한가운데에 동그란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 속에 느루가 앉아 있어요.

"느루야! 어떻게 왔어?"

"다 내 발로 왔지."

느루가 상추를 오물거리며 말했어요.

"강가 모랫길이 젖어서 미끄러웠어. 그런데 따뜻한 돌이 줄줄이 누워 있더라. 하나씩 건너왔지."

해달이 바구니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내 돌들이 쉬고 있었는데? 그럼 동글납작이가 느루를 업어 줬네."

"도랑에는 다리가 있었어. 길고, 보들보들하고, 가끔 꿈틀거리는 다리."

뇨끼가 목을 쓰다듬었어요.

"어쩐지 낮잠 자는데 목이 간질간질하더라. 모리 말대로 쭉 펴서 도랑 위에 올려놨었어."

모리는 가슴을 쭉 폈어요.

"거봐. 목은 말이지, 뼈가 줄줄이……."

"모리야, 그건 아침에 들었어."

"갈림길에서는 어느 쪽인지 몰랐어. 그런데 땅에 커다란 종이가 깔려 있고, 굵은 선이 식탁 쪽으로 가더라. 그 선만 따라왔어."

콩이가 지도를 펼쳤어요. 연필 선 위에 반짝이는 줄이 한 줄 더 겹쳐 있어요. 느루가 지나간 자국이에요.

"그다음엔 길가에 바구니가 있었어. 상추 냄새가 솔솔 나더라. 들어가서 좀 먹고 있었는데, 바구니가 갑자기 걸어가는 거야."

"두두랑 이야기하느라 내려놨을 때구나!"

보리가 손뼉을 쳤어요. 두두는 눈을 반짝였어요.

"내 수다 덕분이야? 진짜? 그럼 내일은 더 많이 할까?"

다들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성이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 봤어요.

"해달 돌, 뇨끼 목, 콩이 종이, 두두 수다, 보리 바구니."

손가락 다섯 개가 다 접혔어요. 우성이는 동그래진 주먹을 내려다보며 혼자 히죽 웃었어요.

.

해가 산꼭대기에 걸렸어요. 식탁 위로 노란 빛이 길게 누웠어요. 보리가 주전자를 들고 컵마다 차를 따르자, 컵들이 하나씩 반짝, 반짝.

우성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풀밭에 앉았어요. 지성이도 형 옆에 앉았어요. 빛이 둘의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우성이는 햇님 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햇님, 우리 숲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두두가 하던 말을 멈추었어요. 피오도 부리를 다물었어요.

"아침에 두두가 초대장을 돌렸어요. 피오는 반만 말하고 날아갔어요. 느루는 해 뜨자마자 출발했어요. 해달은 강물이 코를 밀어서 늦었대요."

"돌 이름도 불렀어요."

지성이가 끼어들었어요.

"몽글이, 바람구멍, 동글…… 동글 뭐였지?"

"동글납작이."

해달이 작게 알려 줬어요.

"모리는 목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우리는 하품했어요. 콩이 지도는 또 커졌어요. 보리는 국자를 쌌어요. 수프는 아무도 안 끓였는데요."

보리가 볼을 긁적였어요.

"점심에 나는 딸기잼 빵 세 개 먹었어요. 네 번째는 지성이 줬어요."

"나는 반짝이 밥 먹었어요. 무릎에 쏟았어요."

"쿠마타는 잤어요. 계속."

풀밭에 누운 쿠마타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맞아."

"그리고 느루가 왔어요. 다 같이 데려왔어요. 근데 다들 몰랐어요."

우성이는 말을 멈추고 더 할 이야기가 있나 생각했어요.

"……끝."

햇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느루가 갑자기 빨라지지도 않았고, 콩이 지도가 작아지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날 저녁, 햇님은 산꼭대기에서 오래오래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내가 해는 안 기다려 준다고 했잖아. 틀렸네."

두두가 말했어요. 보리는 바구니에서 국자를 꺼내 이리저리 돌려 봤어요. 내일은 그 국자로 또 수프를 끓여야겠어요.

그날 밤, 잠옷을 입은 지성이가 이불 속에서 한 번 더 했어요.

"오늘 내 양말은 이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한 짝 없어졌어요. 빈백 밑에 있었어요. 끝."

옆에서 우성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킥킥거렸어요.

(여러분 양말은 오늘 어떻게 살았나요?)

셋째 마당

달님이 비추는 밤

열일곱 번째 이야기

의자를 치우지 않은 밤



우성이가 햇님께 하루 이야기를 다 해 드리고 "……끝." 하던 그 저녁이 지나갔어요.

그 뒤로 여러 날, 숲 친구들은 저마다 바빴어요. 콩이는 지도를 그리고, 두두는 초대장을 나르고, 보리는 그 국자로 또 수프를 끓이고, 형제는 미끄럼틀을 탔어요.

보리는 첫 잔을 그 컵에 붓는 걸 깜박했어요. 아무도 그 컵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컵에는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어느 아침, 해가 떠서 연두집 지붕을 데우고, 빈백에 누운 쿠마타의 배까지 따끈하게 데웠어요.

보리가 아침 빵을 들고 그루터기 식탁으로 갔어요. 형제도 졸랑졸랑 뒤따라갔어요.

식탁 위에는 빛이 내려와 있어요. 보리 의자에도, 해달 컵에도, 지성이의 산 같은 의자에도. 그런데 식탁 한쪽, 팔걸이가 반들반들 닳은 그 의자만 그늘 속에 있지 뭐예요.

"햇빛 자리 없어."

지성이가 그 앞의 컵을 두 손으로 들어 볕 드는 쪽으로 옮겼어요. 컵이 금세 반짝.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자, 컵은 다시 그늘 속으로.

지성이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햇님은 저기 계신데, 식탁엔 안 오셔."

우성이도 하늘을 봤어요. 햇님은 늘 계시던 곳에 그대로 계셨어요.

"햇님 바빠?"

지성이가 물었어요.

보리는 말없이 빵을 내려놓았어요. 그 자리 앞에도 하나.

.

그날 저녁, 해가 산 너머로 내려가자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해달은 강으로, 콩이는 굴로, 두두는 집으로. 식탁에는 넷이 남았어요. 우성이와 지성이, 모리와 보리.

저녁을 먹고 나면 컵을 모으는 건 지성이 일이에요. 손잡이가 떨어진 해달 컵, 이가 나간 모리 컵, 바닥이 넓은 보리 컵. 지성이는 컵을 하나씩 두 손으로 들어 쟁반 위에 포갰어요. 하나, 또 하나.

마지막 컵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그 의자 앞의 컵이었어요. 다른 컵들보다 크고 둥글어서 지성이가 늘 두 손으로 드는 컵. 지성이가 컵을 감싸 쥐었다가 얼른 손을 뗐어요.

"차가워."

그 컵의 물은 언제나 미지근했는데요.

하늘에 달님이 뜨셨어요. 그런데 길은 금방 밝아지지 않았어요. 얇은 구름이 달님 앞을 천천히 지나가는 중이었거든요.

우성이가 동생 옆으로 왔어요. 지성이가 쟁반 쪽으로 끌어오다 만 컵을 살며시 받아 들고, 의자 바로 앞 제자리에 다시 놓았어요. 컵 바닥이 식탁에 닿으며 톡.

"이건 여기 있자."

지성이는 쟁반 위의 컵들을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두었어요.

보리가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담아 왔어요. 걸음마다 뚜껑이 달그락, 달그락.

보리는 식탁 앞에 서서 컵들을 둘러봤어요. 첫 잔은 늘 그 컵에 붓는 보리였어요. 보리는 주전자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리는 식탁을 돌며 의자를 하나씩 밀어 넣었어요. 모리는 의자가 식탁에 딱 붙는 소리를 좋아해요. 그 소리가 나야 하루가 끝나요. 해달 의자, 콩이 의자, 두두 의자. 드르륵, 드르륵.

그 의자 앞에서 모리의 손이 멈췄어요.

모리는 등받이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어요. 밀어 넣지도, 손을 떼지도 않고. 그러다 바늘을 내려놓을 때처럼 살며시 손을 거두었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구름이 비켜나자 우성이가 하늘에 대고 물었어요.

"달님은 오늘 어디 가?"

달님은 밤마다 숲 위를 지나 먼 데까지 가세요. 그런데 오늘은 달빛이 식탁 가장자리에 닿더니, 컵 하나의 테두리까지 와서 거기 머물렀어요.

우성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아봤어요.

콩이랑 같이 그린 새 지도가 떠올랐어요. 파란 줄도 있고, 삐뚤어진 동그라미도 있는 지도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자 네모나게 접힌 종이가 손끝에 닿았어요. 우성이는 종이 모서리를 몇 번 만지작거리다가, 꺼내지 않았어요.

지성이가 식탁 옆 풀밭에 털썩 앉았어요. 우성이도 동생 옆에 내려앉았어요. 이슬 젖은 풀 때문에 엉덩이가 차가웠어요.

"형아."

"응."

지성이는 형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성이는 더 묻지 않고, 동생에게 바짝 붙어 앉았어요. 어깨와 어깨가 콕.

모리는 식탁 밑을 들여다봤어요. 풀 사이에 작고 동그란 나무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지 뭐예요. 처마 밑에 쌓인 물건이라면 무엇이 누구 것인지 모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단추의 주인은 오늘따라 떠오르지 않아요.

모리는 바느질 상자를 열어 단추를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딸깍.

지성이가 일어나 그 의자로 갔어요. 그리고 앉는 자리에 손바닥을 펴서 얹었어요. 나무가 서늘해요.

"여기 맨날 따뜻했는데."

지성이는 손을 떼지 않았어요.

"보고 싶어."

아주 작은 소리. 우성이가 다가와 그 손 옆에 자기 손을 놓았어요. 형의 손가락이 동생 손가락보다 한 마디쯤 길어요. 두 손이 나란히 의자 위에.

달님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식탁 가장자리에 있던 달빛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의자까지 미끄러져 왔어요. 빛은 팔걸이를 지나, 앉는 자리를 지나, 아이들 손등 위에 내려앉았어요.

"나도 많이 그립구나."

보리가 그때까지 들고 있던 주전자를 내려놓았어요. 손잡이를 놓는 손이 아주 조용했어요.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요. 식탁보 한쪽이 훌렁 들리고, 쟁반 위 컵들이 달그락거리고, 의자 앞의 컵도 기우뚱!

모리가 얼른 식탁보 한쪽 끝을 잡았어요. 우성이는 반대쪽 끝을. 지성이는 두 손으로 의자 앞 컵을 감쌌어요. 넘어지지 않게, 꼭.

바람은 금방 잦아들었어요.

다들 다시 앉았어요. 보리는 바구니 바닥에 남은 빵 하나를 넷으로 나누어 건넸어요. 지성이는 빵을 쥔 채 들여다보다가,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머니가 빵 모양으로 볼록.

달님은 산 너머로 이어진 길을 보고 계셨어요. 달빛이 그 길을 따라 멀리까지 하얗게 깔려 있어요. 숲 바깥, 아직 아무도 가 보지 않은 데까지.

보리가 주전자를 다시 들었어요. 이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의자 앞의 컵에서 나뭇잎을 살며시 꺼내고, 첫 잔을 거기에 부었어요. 남은 물은 컵마다 나누어 부었어요.

우성이는 자기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바닥보다 따뜻한 컵이에요. 지성이도, 모리도, 보리도 두 손으로 컵을 감쌌어요.

물이 식을 때까지, 넷은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

집에 갈 시간이에요.

우성이는 지성이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 아침에 빵 구울게. 일찍.”

보리가 말했어요. 지성이는 볼록한 주머니를 꾹 눌러 봤어요.

모리가 그 의자를 바라봤어요. 저녁마다 마지막으로 밀어 넣던 의자예요.

모리는 그 의자를 밀어 넣지 않았어요.

의자는 식탁에서 한 뼘쯤 떨어진 채, 누가 막 일어난 자리처럼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달빛이 앉아 있었어요.

모리와 보리가 연두집 계단까지 바래다주었어요. 이제 구름은 없어요. 몇 걸음뿐인 길이 오늘은 하얗게 밝아요.

우성이는 걸으면서 주머니 속 종이를 다시 만졌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고 작게 말했어요.

"지도는 내일 보여 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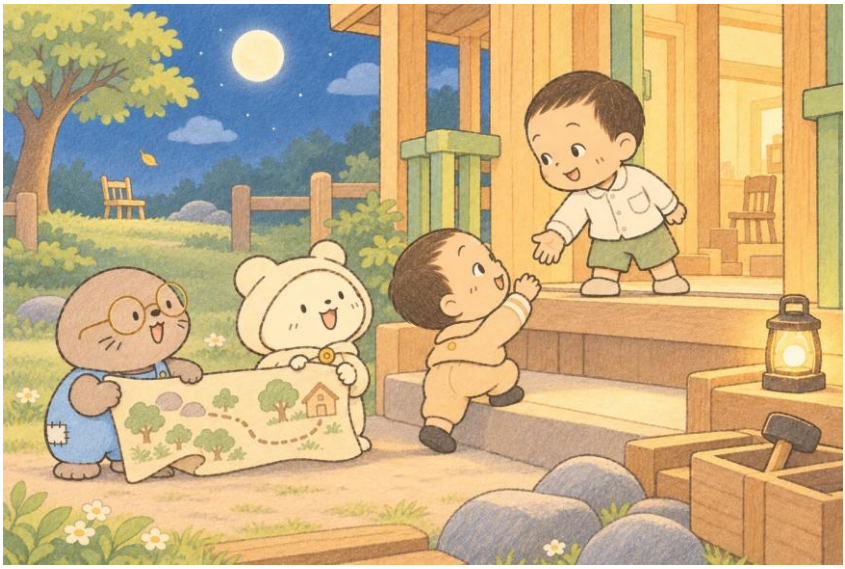
달님은 우성이 발 앞의 길을 한 뼘 더 밝혀 주셨어요.

계단 앞에서 지성이가 돌아섰어요. 식탁 쪽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컵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열여덟 번째 이야기

달님이 다시 길을 비춘 밤



저녁을 먹고 나서, 두두가 연두집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올라왔어요. 손에는 늘 그렇듯 초대장 두 장. 한 장은 형제에게 내밀고, 한 장은 도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건 누구 줄지 아직 몰라요.

"오늘 밤에 달 뜨면 콩이네 언덕 갈 사람? 콩이가 밤 지도 그린대! 밤길은 낮이랑 어떻게 다를까? 그림자는 밤에도 있을까? 겉옷 있어? 꼭 입고 와!"

형제는 벌써 잠옷 차림이었어요. 가을 밤이라 지성이는 잠옷 위에 털조끼를 껴입고, 우성이는 겉옷 주머니에 지도를 챙겼어요. 어젯밤 달님께 보여 드리겠다고 한 바로 그 지도예요.

콩이는 연두집 계단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둘 만 종이는 옆구리에, 연필은 귀에.

달님이 떠오르시자 넷은 길을 나섰어요. 달빛이 등 뒤에서 비춰서, 그림자들이 한 발 앞장서 걸었어요.

"내가 알아. 콩이네는 이쪽이야."

우성이가 앞장섰어요. 콩이는 자기 집 가는 길인데도 잠자코 따라왔어요. 밤길은 정말로 낮과 달랐어요. 미끄럼틀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어서, 우성이는 그게 커다란 짐승 꼬리인 줄 알고 한 발 물러섰어요.

(숲의 미끄럼틀은 밤이 되면 그림자를 두 배로 길게 늘어뜨려요. 낮에 아이들을 너무 많이 태워서, 밤에는 다리를 쭉 뻗고 쉬는 거래요.)

"미끄럼틀이야."

콩이가 말했어요.

"알아. 나도 알았어."

콩이네 입구는 두 갈래예요. 그 앞에 두두가 세운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집 그림 하나, 삽 그림 하나. 글씨는 못 읽어도 그림은 지성이도 읽을 줄 알아요.

"집 그림이 이쪽!"

"지성아, 그쪽 아니야. 그 표지판 거꾸로야."

"아니야. 그림이 이쪽이래. 지난번엔 형아가 그림을 잘못 본 거야. 그림은 안 틀려."

"형이 알아."

"그림이 알아!"

지성이는 발을 딱 버티고 섰어요. 두두가 볼을 긁적였어요.

"내가 세웠는데? 세울 땐 맞지 않았어? 아니었나?"

지성이는 끝내 집 그림 쪽으로 갔어요. 몇 걸음 가자 발밑이 푹신해지더니, 지성이가 흙더미 속으로 쑥! 무릎까지 빠졌어요.

"여긴 내 흙 창고야."

콩이가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어요. 잠옷 바짓단이 온통 흙투성이예요.

"……그림이 거짓말했어."

그런데 지성이 발끝에 뭔가가 걸려 나왔어요. 흙 묻은 털목도리 한 자락.

"내 목도리다! 지난겨울에 잃어버린 거!"

콩이가 목도리를 탁탁 털어 목에 두르더니 지성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성이는 흙 묻은 얼굴로 씩 웃었어요.

콩이네 굴 위는 둥그스름한 언덕이에요. 넷이 언덕을 오르는데 구름이 달님을 가렸어요. 길이 갑자기 까매졌어요. 바로 옆 친구 얼굴도 안 보여요.

지성이가 형 소매를 꽉 붙잡았어요. 우성이도 사실은 무서웠어요. 그때 두두가 말을 시작했어요.

"나 여기 있어. 내 목소리 들려? 지성아,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 감자? 몇 개?"

두두는 쉬지 않고 물었어요. 묻는 동안에는 두두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콩이가 목소리 쪽으로 손을 뻗어 두두 멜빵바지 끈을 잡았어요. 우성이는 콩이 바지 뒷주머니를, 지성이는 형 소매를. 넷은 기차처럼 줄줄이 이어졌어요.

"두두야, 계속 말해."

"걱정 마. 나 이거 제일 잘해. 큰 감자였어? 작은 감자였어? 작은 게 더 맛있지 않아?"

두두 목소리를 따라 한 발, 또 한 발. 구름이 지나가고 보니, 넷은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강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밤에는 은빛 줄이 되어 숲 바깥까지, 산 너머까지 구불구불 이어져 있어요.

"강이 저렇게 길었어?"

콩이가 풀밭에 커다란 종이를 펼쳤어요. 연필을 귀에서 빼서 오늘 온 길을 그렸어요. 연두집, 미끄럼틀, 거꾸로 선 표지판, 흙 창고, 그리고 언덕. 그다음에는 은빛 줄을 따라 연필을 움직였어요. 종이 끝까지 가도 강은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종이가 모자라."

지도 바깥쪽 모서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지성이가 잠옷 주머니에서 몽당 색연필을 꺼내, 그 빈 곳에 친구 하나를 그렸어요. 얼굴은 동그랗고, 눈은 콕콕 점 두 개, 입은 웃는 줄 하나.

"여기 올 사람."

"누군데?"

두두가 물었어요.

"몰라."

"그럼 이름 짓자. 동글이 어때?"

우성이가 말하자 지성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이 말해 줄 거야."

달빛이 지도 모서리로 옮겨 가, 동그란 얼굴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어요. 얼굴이 꼭 웃는 것처럼 환해졌어요.

지성이는 색연필을 꼭 쥐고 씩 웃더니, 동그란 얼굴 옆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어요.

"이건 뭐야?"

"이 사람 컵."

콩이는 그 동그란 얼굴까지 가는 길에, 비 오면 질척해지는 곳마다 작은 점을 찍었어요.

"처음 오는 친구는 모를 테니까."

두두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초대장 한 장을 꺼냈어요. 칸마다 소리 내어 물으며 적었어요.

"어디서? 언제? 누구랑?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그루터기 식탁, 해가 기울 때, 다 같이. 그리고 맨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늦게 와도 됨.'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바람한테 맡길래."

두두가 초대장을 높이 들자 밤바람이 냉큼 채어 갔어요. 초대장은 팔랑팔랑, 은빛 강 쪽으로 날아가 금세 보이지 않았어요.

.

돌아갈 때는 콩이도 지도를 둘둘 말아 들고 따라나섰어요. 집에 가는 길도 그려야 하니까요.

"올 때는 그림자가 앞에 있었어. 그럼 갈 때는 뒤에 있어야 해."

우성이는 그림자가 뒤에 잘 있나 보려고 뒤로 돌아서서, 뒷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다들 따라 돌아섰어요.

그러다 우성이 엉덩이가 무언가에 쿵 부딪혔어요. 단단하고, 둥글고, 반들반들한 것.

그루터기 식탁이었어요. 연두집 마당 끝까지 다 온 거예요.

"거봐. 내가 알았다니까."

식탁 위는 하얗게 밝았어요. 우성이가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 팔걸이가 닳은 그 의자 앞에 펼쳐 놓았어요.

"달님, 이거예요. 어제 말한 지도."

파란 줄도, 삐뚤어진 동그라미도 달빛 아래에서 다 보였어요. 우성이는 그거면 됐다는 얼굴로 지도를 도로 접었어요.

콩이는 식탁 위에 밤 지도를 펼치고, 언덕에서 식탁까지 온 길을 그려 넣었어요.

"뒷걸음 길은 어떻게 그려?"

"발자국을 거꾸로 그리면 되지."

지성이가 말했어요. 콩이는 정말로 발끝이 뒤를 향한 발자국을 그렸어요.

다 펴 놓은 밤 지도는 식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컸어요. 콩이는 연필 자국이 마르라고 지도를 펴 둔 채, 네 귀퉁이를 컵으로 하나씩 눌러 놓았어요. 내일 아침에 가지러 오기로 하고, 두두랑 둘이서 콩이네로 돌아갔어요. 두두가 쉬지 않고 떠드니까 길 잃을 걱정은 없어요.

식탁에서 연두집 계단까지는 몇 걸음이에요. 지성이는 그 몇 걸음도 뒷걸음으로 갔어요.

"형아, 내일 밤에도 거꾸로 걸어?"

열아홉 번째 이야기

달님이 보따리를 싸 준 날



이튿날 아침, 콩이가 밤 지도를 가지러 그루터기 식탁에 갔어요. 형제도 콩이 꽁무니를 졸졸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도가 없어요. 귀퉁이를 눌러 두었던 컵 네 개만 식탁 가장자리에 나란히 서 있어요.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에 보따리 하나. 달빛처럼 희뿌연 천인데, 네 귀퉁이가 토끼 귀처럼 쫑긋 묶여 있었어요.

"어? 내 지도는?"

우성이가 토끼 귀 하나를 당기자 보따리가 스르르 풀렸어요. 맨 위에 콩이 지도가 네모반듯하게 접혀 들어 있었어요.

"누가 접었지? 나는 이렇게 반듯하게 못 접는데."

지도 밑에는 컵이 하나 있었어요. 손잡이가 없고, 바닥이 넓적하고, 옆구리에 작은 홈이 하나 파인 컵.

"이건 누구 컵이야?"

지성이가 컵을 귀에 대 봤어요. 조용.

식탁 옆 풀밭에 누워 있던 쿠마타가 한쪽 눈을 떴어요.

"밤에 달빛이 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더라. 나는 그것밖에 몰라."

지성이는 컵을 두 손으로 꼭 껴안았어요.

"내 거 할래."

"네 거 아니잖아."

"내가 제일 처음 들었어."

"그래도 주인이 따로 있을걸."

"그럼 주인 찾을 때까지 내 거야."

지성이는 컵을 쥐는 자리를 찾다가, 옆구리 홈에 손가락을 대 보았어요. 손가락이 너무 뭉툭해서 안 들어가요. 새끼손가락도요.

"형아, 여기 손가락 자리 아니야. 뾰족한 거 자리야."

"뾰족한 거?"

"응. 발톱 같은 거."

지성이는 컵을 윗옷 앞주머니에 쑥 집어넣었어요. 주머니가 컵 모양으로 불룩.

두두가 초대장 두 장을 흔들며 뛰어왔어요.

"컵 주인 찾을 거야? 지금? 어디로? 찾으면 초대할까?"

지성이가 주머니에서 컵을 도로 꺼내 안을 들여다봤어요. 바닥에 마른 잎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길쭉하고,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뾰족뾰족한 잎.

"형아, 이건 아직 안 봤잖아."

콩이가 안경을 콧등에 올리고 잎을 들여다봤어요.

"밤나무 잎이야. 밤나무는 강이 크게 굽는 데 있어. 내 지도로 치면…… 여기."

콩이가 지도를 펼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가락이 강 줄을 따라 내려가다가 종이 끝에서 멈췄어요. 강이 크게 휘어지는 자리, 종이 밖으로 막 나가려는 데예요.

두두는 연필을 입에 물었다 뗐다 하며 초대장 한 장을 채웠어요. '컵 주인님께. 우리랑 같이 차 마셔요.'

넷은 강을 따라 걸어요. 지성이 주머니에서는 컵이 달그락, 달그락.

해가 머리 위를 지나자 강이 크게 휘어졌어요. 휘어진 자리에 밤송이를 매단 밤나무가 한 그루, 그 밑에 작은 집이 한 채. 문이 손가락 하나만큼만 열려 있었어요.

(오소리는 숲에서 문을 제일 조금 여는 동물이에요. 그 틈으로 바람 냄새부터 맡아 보고, 손님 얼굴은 그다음에 본대요.)

"누구냐?"

문틈으로 작은 눈 하나가 보였어요. 오소리 할머니였어요. 문짝 가장자리를 뾰족한 발톱 네 개가 꼭 붙잡고 있었어요.

지성이가 형 소매를 쿡쿡 찔렀어요.

"형아, 뽀족한 거."

두두가 문 앞에 바짝 다가섰어요.

"안녕하세요! 이 컵 아세요? 할머니 거예요? 왜 보따리에 들어 있었을까요? 아, 그 전에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할머니는 문을 닫으려다 손을 멈췄어요. 질문이 어디까지 가나 궁금해진 거예요. 문틈이 손가락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셋이 되었어요. 두두가 숨을 쉬려고 말을 끊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래서, 무슨 모임이냐?"

두두에게는 물어볼 말이 아직 열 개쯤 남아 있었어요. 두두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씩 웃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할머니 집은 작았어요. 의자는 없고 방석이 둘. 할머니는 방석 하나를 지성이 쪽으로 밀어 주고, 자기는 맨바닥에 앉았어요. 다들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선반에는 컵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컵에 따뜻한 꽃차를 따라 내밀었어요. 그런데 손님은 넷이고 컵은 하나. 할머니가 컵을 든 채 머리를 긁적였어요.

지성이가 주머니에서 컵을 꺼냈어요.

"내 컵에 마셔도 돼. 나부터."

지성이는 제 컵에 꽃차를 받아 꿀꺽꿀꺽 마셨어요. 우성이도, 두두도, 콩이도 그 컵으로 돌려 가며 마셨어요. 마지막 차례에서 지성이는 홈이 할머니 쪽을 보게 컵을 빙 돌려서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여기 잡아."

할머니가 컵을 받아 들자, 옆구리의 작은 홈에 발톱 하나가 쏙 들어갔어요.

딱 맞았어요.

할머니가 컵을 이리저리 돌려 보더니 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녀석, 지난 보름에 달 보러 나갔다가 언덕에 두고 온 건데. 어디 갔다 왔누?"

지성이는 그 컵을 선반 위, 할머니 컵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여기 둬. 다음에 와서 또 이걸로 마실 거야."

우성이가 동생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네 거라며?"

"응. 내 건데, 여기 사는 거야."

할머니가 선반 위의 컵 두 개를 발톱으로 톡, 톡 두드려 봤어요.

"이제 우리 집에도 손님 컵이 생겼네."

두두가 초대장을 할머니 손에 쥐여 드렸어요. 할머니는 비어 버린 지성이 주머니에 주먹밥 하나를 넣어 주었어요.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

돌아오는 길에 달님이 뜨셨어요. 식탁에 닿으니 달빛이 그 의자 위에 하얗게 앉아 있었어요.

식탁 가장자리에는 느루가 붙어 있어요.

"보따리 어디 갔어? 나 아침부터 보러 오는 중이었는데."

우성이가 빈 보따리 천을 펼쳐 보였어요. 느루는 텅 빈 천을 오래오래 들여다봤어요.

"다 봤다."

우성이는 천을 반듯하게 개어 그 의자 위, 달빛 앉은 자리에 올려 두었어요. 그러고는 콩이 지도를 펼쳤어요. 밤나무 집을 그려 넣을 차례예요.

그런데 강이 굽는 자리부터는 종이가 없어요. 바깥쪽 모서리는 지성이가 그린 동그란 얼굴이 벌써 차지하고 있어요.

"종이를 조금만 더 펴면 돼."

콩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더 펼 데가 없어요.

우성이가 손뼉을 짝 쳤어요.

"그럼 붙이면 되지! 지성아, 풀!"

지성이가 연두집 쪽으로 쌩 달려갔어요. 계단 앞까지 가더니 쌩 돌아왔어요.

"풀 어디 있는데?"

우성이도 몰랐어요. 콩이도, 두두도. 지성이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주먹밥을 꺼냈어요.

"풀은 없고, 밥은 있어."

콩이가 바지 주머니에서 흙 묻은 종이 띠를 한 장 꺼내 주었어요. 우성이는 밥알 몇 개를 손가락으로 꾹꾹 으깨 지도 끝에 바르고, 띠를 대고 문질렀어요. 지도가 한 뼘 길어졌어요.

우성이는 새 띠 위에 밤나무 한 그루와 작은 집을 그렸어요. 집 안에는 컵 두 개를 나란히. 그리고 주머니 속 네모난 지도도 꺼내, 밤 지도 안쪽 끝 흙 창고 그림 옆에 밥알로 꾹꾹 이어 붙였어요.

콩이가 길어진 지도를 둘둘 말아 우성이 품에 안겨 주었어요.

"이제 이건 너희가 들고 다녀. 가는 데마다 그려 와. 다 그리면 나한테 보여 줘."

우성이는 지도를 가방에 꽂았어요. 지도 끝이 어깨 위로 삐죽 나왔어요.

지성이는 남은 주먹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풀 맛있다."

넷째 마당

먼 길에서 온 친구들

스무 번째 이야기

아루의 배



며칠 뒤 아침, 그루터기 식탁 위에 그 보따리가 또 놓여 있었어요. 네 귀퉁이가 토끼 귀처럼 쫑긋.

두두가 토끼 귀를 풀었어요. 안에는 낯선 편지 두 통.

"누가 썼어? 누구한테? 우리한테?"

한 통에는 흰 깃털이 한 가닥 끼워져 있었어요. 모리가 읽어 주었어요.

'가는 길에 며칠 쉬어 가도 될까요? 곧 찾아갈게요. 새온.'

다른 한 통에서는 톱밥 냄새가 났어요. 거기에는 딱 두 줄.

‘못 쉰 개가 필요해요. 강 아래 모래톱, 목수 아루.’

둘 다 지도에 아직 없는 데서 온 편지였어요.

못이라면 모리네 처마 밑에 깡통째 있어요. 형제는 마루에 못을 와르르 쏟아 놓았어요. 세는 건 우성이, 늘어놓는 건 지성이.

“하나, 둘, 셋…… 열하나, 열둘, 열……”

우성이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어디까지 셌지?”

“형아, 이건 아직 안 셌잖아.”

지성이가 마루 틈에 낀 못 하나를 쏙 뽑아 들었어요. 세 번을 세고서야 쉰 개가 딱 맞았어요. 세다 남은 못 몇 개는 슬그머니 지성이 주머니로 들어갔지요.

보리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자기를 펼쳤어요.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하나 더 넣자.”

담요가 들어가고, 냄비가 들어가고, 작은 의자까지 들어갔어요. 이튿날 아침 보따리는 두 개가 되어 있었어요.

커다란 날개 무당벌레는 오늘도 어디서 자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보따리를 나눠 들고 모래톱까지 걸어갔어요.

강 아래 모래톱에는 커다란 배가 엎어진 채 누워 있었어요. 그 옆에서 비버 한 마리가 망치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딱, 딱, 딱.

“아루예요. 못 왔어요?”

아루는 인사를 하면서도 망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우성이가 깡통에서 못을 집으면 지성이가 아루 손바닥에 얹어 주었어요. 딱, 하나. 딱, 하나. 셋이 박자를 맞추니 꼭 노래 같았어요.

"배는 왜 만들어?"

지성이가 묻자, 아루는 꼬리로 모래를 탁탁 쳤어요.

(모래톱 비버들은 말 대신 꼬리로 대답할 때가 많아요. 탁, 하면 '응'이고, 탁탁, 하면 '나중에'래요.)

그날 저녁부터 가을비가 왔어요. 밤새 오고, 이튿날 낮에도 그치지 않았어요. 형제와 친구들은 아루의 나무 움막에 모여 빗소리를 들었어요. 아루는 그사이에도 배 밑바닥에 마지막 판자를 댔어요.

보리가 보따리 맨 밑에서 작은 비옷 두 벌과 장화 두 켤레를 꺼냈어요.

"혹시 몰라서."

해가 지자 빗소리가 바뀌었어요. 토독토독이 아니라 쏴아아. 움막 문턱 밑으로 물이 손가락 하나만큼 기어들어 왔어요.

아루가 꼬리로 바닥을 쳤어요.

탁.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그날 밤, 물이 차올랐어요. 모래톱 물이 한 뼘, 또 한 뼘. 이웃들 집 문턱이 잠겼어요.

깜깜한 데서 물소리만 자꾸 가까워져요. 지성이가 우성이 손을 꽉 잡았어요. 우성이도 지성이 손을 꽉. 누가 먼저 잡았는지는 둘 다 몰라요.

아루가 등불을 높이 들고 배를 바로 세웠어요. 일어선 배는 이웃들 지붕만큼 컸어요.

"타요."

이웃들이 이불이며 바구니를 안고 올라탔어요. 보리는 보따리 두 개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배 문으로 들어서다가……

꽉.

보따리 둘이 나란히 문틀에 끼어 버렸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꿈쩍을 안 해요.

"혹시 모르잖아. 담요도 있고, 냄비도 있고, 작은 의자도 있고……"

보따리 뒤에서 보리 목소리만 웅웅 울렸어요.

지성이가 보리 다리 사이로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다 입으면 돼!"

담요는 지성이 어깨에 둘러져 망토가 되고, 냄비는 보리 머리에 얹혀 투구가 되었어요. 작은 의자는 우성이 등에 거꾸로 업혀서 꼭 달팽이 껍데기 같았어요. 홀쭉해진 보따리 둘은 그제야 문틀을 쑥 빠져나왔어요.

"다 들어왔네. 하나도 안 두고."

냄비 투구 밑에서 보리가 말했어요.

아루는 빗속에서 밧줄을 쥐고 마지막 이웃까지 기다렸어요. 서두르라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어요. 물이 배 밑까지 차오르자 배가 둥실 떠올랐어요.

.

배 안은 좁고 시끌시끌했어요. 이웃 아이들은 담요 속에서 눈만 말똥말똥. 빗줄기가 지붕을 북처럼 두드렸어요.

똑.

지성이 코끝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똑. 또 똑. 판자 틈으로 물이 한 방울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루가 못 깡통을 들여다보았어요. 텅 비었어요.

지성이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짤랑.

"이거."

세다 남은 못이에요. 딱, 하나. 딱, 하나. 지성이가 못을 대 주고, 아루가 쳤어요. 못 머리가 비뚤배뚤했지만 아루는 고치지 않았어요. 스며들던 물이 뚝 그쳤어요.

지성이는 잠이 안 와서 동그란 창에 코를 댔어요. 구름이 두꺼워 달님이 어디쯤 계신지도 몰랐어요.

"달님, 나도 배 하나 주세요. 작은 거요. 내가 타는 거."

옆에 누운 우성이가 소곤거렸어요.

"달님은 배 안 만들어."

"그래도. 작은 거요."

지성이는 입김에 흐려진 창에 손가락으로 작은 배를 그렸어요.

그날 밤 배 같은 건 오지 않았어요. 지붕 두드리는 빗소리뿐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형제는 동그란 창 앞에서 지붕 끝 빗방울을 셌어요. 똑, 하나. 똑, 둘. 못을 셀 때보다 훨씬 잘 셌어요. 빗방울은 마루 틈에 숨지 않으니까요.

"……열여섯. 열일곱."

그다음 방울이 오지 않았어요.

"형아, 비가 조용해."

물이 빠지면서 배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쿵! 배 바닥이 처음 배를 짓던 그 모래톱에 도로 닿았어요.

이웃 하나가 배를 툭툭 쳤어요.

"이제 이 배는 버려도 되겠네."

"다음에 탈 이가 있을지 몰라요."

아루는 배를 그 자리에 세워 두었어요. 비뚤배뚤한 못 머리도 그대로 두었어요.

연두집에 돌아온 형제는 장화를 벗자마자 그루터기 식탁에 콩이 지도를 폈어요. 우성이가 띠 위 밤나무 집 옆에 모래톱을 그리고, 배를 그렸어요.

지성이는 연필을 받아 배 옆구리에 점 두 개를 콕, 콕 찍었어요. 일부러 비뚤배뚤하게. 자기가 대 준 못 자리예요.

스물한 번째 이야기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어



아루의 배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저녁, 흰 깃털 편지를 보낸 손님이 마당에 내려앉았어요. 다리가 길고 목이 가느다란 흰 두루미, 새온이에요.

"편지 먼저 보냈어. 큰 새가 갑자기 내려앉으면 다들 놀라니까."

새온은 연두집 마당에서 사흘 밤을 묵었어요. 잠은 파란 빈백 위에서 잤어요. 쿠마타는 새온 밑, 빈백 속에 폭 파묻혀 잤는데, 새온이 워낙 가벼워서 위에 누가 자는 줄도 몰랐어요.

(두루미는 한쪽 다리로 자요. 접어 둔 다리는 밤새 꿈을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다른 다리하고 자리를 바꾼대요.)

새온은 산 너머 연못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에는 어릴 때 옆 둥지에서 같이 자란 작은 물새가 살아요.

"오래전에 그 애한테 줄 게 있다고 약속했어."

새온의 날개 밑에는 풀줄기로 꼭꼭 묶은 나무 상자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안에 뭐 있어?"

"만나면 열 거야."

두두가 초대장 두 장을 흔들었어요.

"언제 가? 누구랑? 우리도?"

나흘째 되는 새벽, 대문을 나서려는데 새온이 빈백으로 걸어가 자기 자국 위에 한 번 더 앉았어요.

"여기, 자리가 좋았어."

"또 오면 되지."

지성이 말에 새온은 깃털 하나를 뽑아 빈백 옆구리에 꽂았어요. 그러고서야 겨우 일어났어요.

새온은 날지 않고 형제와 나란히 걸었어요. 강의 징검돌도 같이 폴짝폴짝 건넜어요. 갈림길마다 깃털을 하나씩 남기느라고요.

"왜 꽂아? 우리 벌써 지나왔잖아."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잖아."

상자만은 두두가 들어 주겠다고 해도 날개 밑에 꼭 끼고 갔어요.

언덕 꼭대기는 바람이 셌어요. 새온의 큰 날개가 자꾸 휘청거려요. 두 날개를 다 펴야 버틸 수 있는데, 한쪽 날개 밑에 상자가 있으니 어쩌겠어요. 새온은 몇 걸음 못 가서 상자를 쑥 내밀었어요. 바로 지성이 앞이었어요.

지성이는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아 가슴에 꼭 붙였어요. 우성이는 뒤에서 지성이 허리를 꽉 끌어안았어요. 새온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탔어요. 언덕을 다 넘자 지성이는 상자를 돌려주었어요.

"고마워, 지성아."

언덕 아래에는 갈대가 빙 둘러선 동그란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가 작은 둥지 앞에서 물새 하나가 물고기를 씻고 있어요. 새온보다 훨씬 작고, 다리도 짧은 물새예요.

새온은 갈대 뒤에서 멈췄어요. 긴 목을 쭉 뺐다가 도로 움츠리더니 날개를 반쯤 폈어요.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요.

그때 두두가 갈대숲을 헤치고 튀어 나갔어요.

"안녕! 어디서냐고? 연두집 마당! 언제냐고? 그건 비워 놨어! 누구랑이냐고? 저기 저 두루미랑!"

두두가 '두루미'라고 할 때마다 손가락이 갈대 뒤를 콕콕 가리켰어요. 그러니 새온은 날아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자꾸 가리키는데 거기서 휙 사라지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작은 물새가 손가락 끝을 따라 갈대 뒤를 오래 보더니, 새온 말고 형제한테 말을 걸었어요.

"저 누나, 내 국수 먹었어."

"국수?"

"옛날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내 그릇에 든 걸 다 먹었어. 그러고 다음 날 멀리 가 버렸어."

지성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새온 나빠! 누나가 동생 거 먹으면 안 돼!"

"지성아, 그게……"

우성이가 말을 꺼냈지만 지성이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성이는 작은 물새 옆에 딱 붙어 앉더니 팔짱까지 꼈어요.

"나 새온이랑 안 놀아. 나도 동생이야."

오후 내내 지성이는 새온 쪽으로 등을 딱 돌리고 앉았어요. 새온은 갈대 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긴 목이 아까보다 더 낮게 내려가 있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저녁이 되자 작은 물새가 국수를 삶았어요. 손님 대접이에요. 그릇을 늘어놓는데 하나가 모자라요. 작은 물새는 자기 그릇을 새온 앞에 놓고, 자기는 냄비 뚜껑을 들었어요.

젓가락을 드는 이는 없고, 국수 김만 혼자 바빠요.

"그날 내가 먼저 먹었어."

새온 목소리가 작았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 네 거인 줄 알면서 먹었어. 그러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 하고 떠났어."

작은 물새는 냄비 뚜껑만 내려다보다가, 김이 다 날아갈 즈음에야 입을 열었어요.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어. 나도 심술부렸어. 누나가 먹는 거, 문틈으로 다 보고 있었어."

지성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팔짱도 스르르 풀렸어요. 지성이는 새온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나, 반만 들었어."

"응?"

"반만 듣고 나쁘다고 했어. 미안해."

새온이 긴 목을 숙여 지성이 정수리에 부리를 살짝 댔어요.

그제야 새온이 상자의 풀줄기를 풀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작은 나무 그릇 하나. 바닥에 다리 짧은 물새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어요.

"네 그릇이야. 이 그릇은 네가 맨 처음 써."

작은 물새가 그릇을 두 날개로 받았어요. 그러더니 냄비 뚜껑에 있던 국수를 덜어 그 그릇에 담고, 새온 앞으로 쓱 밀었지 뭐예요.

"누가 처음 쓸지는 내가 정해."

새온은 국수를 딱 한 가닥만 집어 먹고 그릇을 도로 밀어 주었어요. 그릇은 둘 사이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답니다.

두두가 남은 초대장을 꺼냈어요.

"시간 칸은 일부러 비워 놨어. 둘이 같이 정하라고."

작은 물새는 초대장을 날개 밑에 끼웠어요. 새온이 상자를 끼고 다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우성이는 가방에서 콩이 지도를 꺼냈어요. 모래톱 배 옆에 뾰족뾰족 산을 하나 그리고, 산 너머에 동그란 연못을 그렸어요. 지성이는 연못가에 새 두 마리를 그렸어요. 하나는 목이 길고, 하나는 다리가 짧고. 둘 사이에는 그릇 하나.

"그릇은 누구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새온은 연못에 며칠 더 묵기로 했어요. 형제와 두두는 올 때 남긴 깃털을 하나씩 짚으며 돌아왔어요. 우성이는 지도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강가에 닿으니 올 때 밟은 징검돌이 물에 잠겨 있어요. 우성이와 두두는 바지를 걷고 건널 수 있지만, 지성이 다리로는 어림없어요.

"나 못 가."

그때 바다로 돌아가던 해달이 물속에서 쑥 올라왔어요.

"왜 거기 서 있어?"

"배가 없어서."

해달은 물 위에 등을 대고 동그랗게 누웠어요. 배가 하늘을 보도록.

"나는 누우면 배야."

지성이는 해달 배 위에 살금살금 올라앉았어요. 해달이 꼬리로 물을 저어요. 지성이 발끝에 강물이 찰방찰방. 강 위로 달님이 하얗게 떠오르셨어요.

"형아, 나 배 탔어."

지성이가 해달 배를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달님이 배 줬어. 작은 거."

"그건 해달이잖아!"

우성이가 물 한가운데서 소리쳤어요. 해달이 누운 채로 말했어요.

"오늘은 배야. 그런데 내 배에는 원래 조개만 타."

"그럼 나 오늘 조개야."

해달이 웃다가 강물을 한 모금 꼴깍 마셨어요.

지성이는 조개처럼 동그랗게 몸을 말았어요. 작은 배는 달빛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을 건넜어요.

스물두 번째 이야기

종이라니까, 냄비라니까



새온을 연못에 두고 온 이튿날 아침, 언덕 너머에서 땡그랑 소리가 넘어왔어요.

"저건 종이야."

"냄비야."

"종이라니까. 내가 알아."

"냄비. 큰 냄비."

지성이는 입술을 앙다물었어요. 한번 냄비라고 하면 해가 질 때까지 냄비인 날이 있어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에요.

피오가 창턱에 폴짝 뛰어올랐어요. 깃털이 온통 부스스해요.

"들었지? 종! 사과!"

그 말만 하고 피오는 벌써 언덕 쪽으로 포르르, 낮게 날아가 버렸어요. 사과 따는 날이라 다 오라는 종이었어요.

"거봐, 종이지."

"……큰 냄비 같은 종."

지성이가 아주 작게 덧붙였어요. 우성이는 그 정도면 자기가 이긴 걸로 치기로 했어요.

갈림길 풀잎 끝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도 종소리 듣고 가는 중이야."

느루였어요. 언덕 쪽으로 세 걸음쯤 와 있어요. 지성이가 손바닥을 내밀자 느루가 더듬이를 까딱하고 올라탔어요.

언덕 꼭대기 큰 집 뒤로 사과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가을이 사과마다 볼을 빨갛게 칠해 놓았어요. 마당 기둥 꼭대기에는 커다란 종.

종 줄을 쥔 건 꼬리 끝이 하얀 붉은 여우였어요.

"어서 와! 나는 로아야. 이 종은 내가 쳐. 내 동생도 어디서 듣고 있을 거야."

로아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줄을 당겼어요.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사과 따기, 시작!"

(종은 한 번 울리고 나면 꼭 한 번만 더 쳐 달라고 조른대요. 로아는 그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땡그랑.

제일 큰 사과나무 밑에는 커다란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언덕 이웃들은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형제는 낮은 가지를 맡았어요.

피오는 사다리 맨 꼭대기 칸 차지였어요. 높이는 못 나니까 한 칸씩 폴짝폴짝 뛰어서요.

"들었지? 바구니가……"

땡그랑, 땡그랑!

"다들 한 줄 더!"

피오의 뒷말은 종소리 밑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피오는 부리를 벌린 채 눈만 끔벅끔벅.

로아는 종을 아주 자주 쳐요. 사다리를 옮길 때도, 누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을 때도.

느루가 지성이 손바닥 위에서 바구니 밑동을 내려다보았어요.

"지성아, 저기…… 바구니…… 밑에……"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물 마시는 시간!"

느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지성아……" 그러자 또 땡그랑.

지성이가 우성이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형아, 사과가 걸어갔어."

"사과는 발이 없잖아."

"걸어갔어. 데굴데굴."

"그건 굴러간 거야."

둘이 다투는 사이에 사과 하나가 또 비탈을 내려갔어요.

점심때가 되자 로아가 기둥 밑에서 손짓했어요.

“손님, 한 번 쳐 볼래?”

우성이는 대답보다 손이 빨랐어요. 두 손으로 줄을 꽉 잡고 온몸으로 매달렸어요.

땡그랑!

배 속까지 쿵 울리는 소리! 우성이 입이 저절로 헤 벌어졌어요.

“한 번 더!”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형아, 나 쉬 마려.”

땡그랑!

“형아아, 쉬.”

땡그랑, 땡, 땡그랑!

그런데 줄을 놓고 돌아보니 지성이가 없네요? 얼마 뒤 지성이가 사과나무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걸어 나왔어요.

“나 혼자 갔다 왔어.”

“언제 말했는데?”

“세 번 말했어.”

우성이는 손바닥을 펴 보았어요. 종 줄 자국이 빨갛게.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해가 기울 무렵 로아가 마지막 종을 쳤어요.

“사과 따기 끝! 바구니 보자!”

그런데 큰 바구니 안에는 사과가 고작 다섯 개뿐이지 뭐예요. 로아의 귀가 스르르 내려갔어요.

"사과가 걸어갔어."

지성이가 또 말했어요. 아까보다 큰 소리로.

우성이가 그제야 비탈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풀밭이 개울까지 미끄럼틀처럼 길게 이어져 있어요.

"좋아. 내가 사과가 되어 볼게."

말릴 틈도 없이 우성이는 풀밭에 옆으로 누웠어요.

데굴, 데굴, 데구르르.

우성이가 비탈을 굴러 내려가요! 지성이는 느루를 손바닥에 모시고 뒤뚱뒤뚱 따라 내려가요. 피오는 사다리 꼭대기에서 목청껏 외쳤어요.

"형 굴러간다!"

종이 조용하니 그 소리는 골짜기 끝까지, 로아 귀에도 잘 들렸어요.

개울가 풀숲에서 우성이가 멈췄어요. 빙글빙글 돌던 하늘이 제자리를 찾자 사과가 보였어요. 아주, 아주 많이.

넓적한 돌 위에 빨간 사과가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꼭대기에 꼬마 다람쥐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앉아 있었어요. 로아 동생이에요.

"드디어 누가 왔네! 아까부터 불렀어. 바구니 밑에 구멍 났다고. 그런데 위에서는 땡그랑뿐이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쌓았어."

"나도…… 말했어. 바구니 밑에…… 구멍."

느루가 지성이 손바닥 위에서, 낮에 시작한 말을 드디어 끝냈어요.

피오도 폴짝폴짝 뛰어 내려왔어요.

"나도 말했어!"

"나는 쉬 마렵다고 말했어."

지성이까지 한마디 보태자, 우성이는 킥킥거리다가 귀가 빨개졌어요.

마지막으로 로아가 내려왔어요. 하얀 꼬리 끝이 땅에 닿을 만큼 처져 있었어요.

"너희, 다 말했구나. 내 동생까지. 위에서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종 칠 때는 종소리만 들려. 나도 아까 쳐 봐서 알아."

우성이가 따끔한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어요.

"그래도 나, 종 치는 거 진짜 좋아해."

꼬마 다람쥐는 대답 대신 꼬리로 땅을 탁 치더니, 사과 더미 위에 엎드려 돌에 한쪽 귀를 댔어요. 로아는 그걸 가만히 보다가 풀밭에 넙죽 엎드려 한쪽 귀를 땅에 납작 붙였어요.

"치기 전에 귀부터 대 볼게. 하나, 둘, 셋 셀 동안."

지성이도 따라 엎드려 땅에 귀를 댔어요.

"형아, 땅이 꾸르륵해."

"그건 개울이야."

"땅이야."

바구니 구멍은 꼬마 다람쥐가 맡았어요. 복슬복슬한 꼬리를 쏙 끼우고 앉으니 꼭 맞았어요. 이웃들이 사과를 부어 넣자 꼬마 다람쥐는 사과에 파묻혀 머리만 내민 채 깔깔 웃었어요.

"로아는 여우인데, 너는 왜 다람쥐야?" 지성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나를 따라다니니까 동생이지."

지성이는 대답 대신 우성이 소매를 꼭 잡았어요.

저녁에 우성이가 가방에서 콩이 지도를 꺼내, 산 너머 연못 옆에 언덕을 그리고 꼭대기에 종을 그렸어요. 종을 너무 크게 그려서 언덕이 모자를 쓴 것 같아요. 로아가 연필을 받아 종 둘레에 오늘 온 친구들 이름을 적었어요. 맨 처음, 제일 크게, 동생.

형제를 배웅하는 로아 허리끈에서 딸랑, 딸랑. 개울 소리보다 작은 손종이에요.

그날 밤 피오와 느루는 연두집에서 자고 갔어요. 넷이 창가에 나란히 누우니 언덕 위로 둥근 달님이 보였어요.

우성이가 두 손을 모았어요.

"달님, 오늘 작은 목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저도 종 칠 때 지성이 말 못 들었어요."

"쉬 마렵다고 했는데."

이불 속에서 지성이가 거들자 피오가 푸흡, 웃음을 삼켰어요.

우성이는 마룻바닥에 한쪽 귀를 납작 붙였어요. 눈도 꼭 감았어요. 하나, 둘, 셋. 방 안이 아주 고요해졌어요.

꼬르르르르륵.

"달님, 방금 그건 지성이 배예요."

피오가 데굴데굴 구르며 웃었어요. 지성이는 배를 덮고 깔깔깔.

웃음이 겨우 잦아들었을 때 언덕 너머에서 종이 울렸어요.

땡그랑.

딱 한 번. 그 앞에는 셋을 셀 만큼 조용한 틈이 있었어요.

“로아다.” 우성이가 속삭였어요.

“귀 대고 있었어.”

지성이가 더 작게 속삭였어요. 그러고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형아, 나 쉬 마려.”

우성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스물세 번째 이야기

수프가 앞치마를 입었대



로아의 종이 울린 다음 날 아침, 형제가 빵을 받으러 보리네에 갔더니 보리가 감기에 걸려 있었어요.

"에취! 괜찮아. 에취! 하나도 안 아파. 에에취!"

보리는 이불을 둘둘 만 채로 반죽 그릇부터 찾았어요. 우성이가 반죽 그릇을 등 뒤로 감추었어요.

"보리는 맨날 우리 밥 챙겨 주잖아. 오늘은 우리가 보리 수프 끓일 거야."

형제는 보리를 이불째 눕혀 두고 연두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연두집 부엌에서 처음으로 둘이서만 수프를 만들었어요.
불은 켜지 않았어요. 물 붓고, 감자 넣고, 당근 넣고. 우성이가 소금 단지를 번쩍 들어요.

"내가 알아. 소금은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

솔솔, 솔솔, 와르르.

지성이는 감자를 껍질째 퐁당 넣다가 물을 제 윗옷에 튀겼어요. 국물을 한 입 떠먹더니 혀를 쑥 내밀어요.

"메에. 이거 눈물 맛이야."

윗옷은 얼룩덜룩, 냄비 속은 짠물.

그때 긴 귀 두 개가 창밖으로 쑥 솟았다가 사라졌어요. 눈 깜짝할 새에 산토끼 한 마리가 부엌 문간에 와 있어요. 한쪽 귀에는 보리네 빨랫줄 양말까지 걸려 있네요.

"나는 타루! 소식 나르는 토끼야!"

타루는 양말을 떼지도 않고 말을 쏟아 냈어요.

"강가에 사슴이 왔대. 앞치마 입은 사슴. 수프를 끓인대. 아니, 수프를 쏟았대. 아니, 수프가 앞치마를 입었대."

"수프?"

형제는 짠물 냄비를 둘이서 들고 강가로 갔어요. 타루도 깡충깡충 따라왔어요.

사슴은 버드나무 밑에 있었어요. 다들 잘 안 가는 자리예요.
바람이 꼭 그쪽으로만 불어요.

(버드나무가 아침저녁으로 머리를 그쪽으로 빗어 넘기기 때문이래요.)

게다가 거기에는 작은 스컹크가 혼자 앉아 있곤 해요. 스컹크는 깜짝 놀라면 냄새가 나요.

바로 그 스컹크 옆에서, 처음 보는 사슴이 냄비를 걸어 놓고 앉아 있었어요. 여기저기 기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요.

"어서 와. 나는 이든이야."

이든은 지성이 윗옷을 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너도 앞치마 입었네."

국자를 들고 일어나던 이든이 앞치마 끈을 밟고 휘청! 수프가 톡 튀어서 앞치마에 얼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지성이는 얼룩마다 손가락을 콕콕 찍어요.

"이건?"

"어제 쏟은 수프."

"이건?"

"그저께 쏟은 수프."

"이건?"

"그건 방금."

지성이가 배를 잡고 웃는 바람에 스컹크가 깜짝 놀라 꼬리를 번쩍 들었어요.

뽕.

냄새가 버드나무 밑을 동그랗게 채웠어요. 이든은 눈만 끔벅했어요.

"오늘은 바람이 진하네."

우성이가 코를 쥔 채 짠물 냄비를 내밀었어요.

"보리 수프인데, 망했어."

이든이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꼭 감았다 떴어요.

"짜구나. 감자를 더 넣으면 돼. 짠 건 감자가 먹어 줘."

이든은 짠물을 자기 냄비에 붓고, 강물을 한 바가지 더 붓고, 감자를 한 아름 꺼냈어요.

"불은 내가 지킬게. 너희는 불에서 두 걸음 떨어져서 감자를 씻어 줘."

이든은 국자를 쥐고 불 곁에 딱 붙어 앉았어요. 형제가 감자를 씻으면 이든이 받아서 퐁당. 지성이가 씻는 물을 철벅일 때마다 윗옷에 얼룩이 하나씩 늘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수프가 보글보글 끓을 무렵, 강둑 위에서 누가 타루를 불렀어요. 언덕에 사는 산토끼 친구들이었어요.

"타루야, 거기서 뭐 해? 그 사슴은 누구야?"

타루의 귀가 움찔했어요. 한쪽 귀가 반쯤 접혔다가 도로 섰어요.

"나? 나 걔 몰라."

타루는 친구들을 따라 언덕 쪽으로 깡충깡충 가 버렸어요.

"아까 같이 왔잖아."

"양말도 걸었어."

지성이가 덧붙였어요. 이든은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냄비에 걸쳐 두었어요.

수프가 다 됐어요. 감자를 너무 많이 넣어서 냄비가 넘칠 듯 가득해요.

"너무 많아. 보리 혼자 다 못 먹어."

"괜찮아. 수프는 손님 수를 안 세."

이든은 불을 흙으로 꼭꼭 덮어 끄고, 냄비를 등에 메고 형제를 따라 보리네로 갔어요.

보리는 이불 속에서 수프를 한 숟가락 먹고, 또 한 숟가락 먹었어요.

"음. 감자 맛. 그리고 눈물 맛이 쪼끔."

보리는 두 그릇을 비웠어요. 그러고는 재채기를 반만 했어요. '에취' 말고 '에.'

.

해 질 녘, 이든은 보리네 부엌에서 남은 수프를 데웠어요. 불 곁은 이든이 지키고, 국자는 형제에게 맡겼어요. 우성이가 국자를 휘휘 돌리자 이든이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천천히. 바닥까지 한 바퀴."

"빨리 하면 안 돼?"

"수프는 빙글빙글 기다리는 거야. 서두르면 바닥에 눌어붙어."

지성이 차례가 오자 지성이는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너무 천천히 돌려서 국자가 거의 서 있었어요. 이든이 귀를 까딱했어요.

"잘하네. 너는 앞치마만 있으면 되겠다."

그사이 창밖에서 긴 귀 두 개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야 타루가 들어왔어요.

"나…… 아까 모른다고 했어. 그 말이 귀에 붙어서 안 떨어져."

지성이가 까치발을 하고 타루 귀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든이 타루 몫으로 그릇을 하나 더 꺼냈어요. 그런데 타루는 창밖으로 뛰쳐나가 언덕을 향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든이 수프를 끓였어! 형제가 소금을 쏟았어! 짠 건 감자가 먹었어! 그리고…… 나는 이든을 알아!"

마지막 말은 언덕 너머까지 닿을 만큼 컸어요. 타루는 그제야 돌아와서 이든이 꺼내 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이튿날 아침, 형제가 버드나무 밑에 가 보니 이든은 냄비를 등에 메고 있었어요.

"어디 가?"

"먼 데. 가 볼 데가 있어서."

"언제 와?"

지성이가 앞치마 자락을 꼭 잡았어요.

"오래 걸려. 소식은 타루 편에 보낼게."

이든은 앞치마를 풀어 곱게 접어 지성이 팔에 얹어 주었어요.

"이건 두고 갈게. 누가 수프 끓일 때 입어."

끝자락이 풀밭에 질질 끌려요. 이든이 끈을 지성이 허리에 두 번 감아 묶어 주었어요.

"주머니도 봐."

주머니 속에서 가을 씨앗 두 알이 또르르 굴러 나왔어요.

"어디 심어?"

"너희가 정해. 자주 가는 데면 좋겠다. 그래야 싹 나는 걸 제일 빨리 보지."

이든은 귀를 까딱하며 웃고는 강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등에 멘 냄비가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형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성이가 고른 곳은 그루터기 식탁 옆이었어요. 저녁마다 달빛이 고이는 자리예요. 날마다 밥 먹으러 오는 데니까요.

지성이는 손가락으로 흙을 콕콕 파고 씨앗 한 알을 쏙 넣었어요. 남은 한 알은 앞치마 주머니에 도로 넣었어요.

"이름도 불러 줘야 돼?"

우성이 물음에 지성이는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어요.

"싹 나면."

지성이는 흙을 두 손으로 토닥토닥 덮었어요. 이불을 덮어 줄 때처럼, 아주 살살.

우성이는 식탁에 콩이 지도를 펴고, 연두집 가까운 강가에 버드나무와 동그란 냄비를 그렸어요. 지성이는 냄비에서부터 강물 줄을 죽 그었어요. 이든이 걸어간 강이에요. 줄은 띠 끝을 넘고, 새로 이은 종이를 따라 빈백 밑으로 쏙 들어갔다 나와서, 미끄럼틀 밑에서야 멈췄어요.

빈백 위에서 쿠마타가 눈도 안 뜨고 물었어요.

"나 지금 강이야?"

“응. 제일 깊은 데.”

다섯째 마당

돌아오는 길

스물네 번째 이야기

보물상자의 질문



"또 이 길이야?"

우성이가 작은 돌을 발로 밀었어요. 돌은 낙엽 위를 데굴데굴 건너가다가 파란 빈백 앞에서 멈췄어요.

"다 아는 길인데."

마당에서 놀이터까지, 놀이터에서 강가까지. 우성이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정말로 감고 걸어 본 적도 있어요. 그날 미끄럼틀 계단에 이마를 콩 찧은 뒤로는 눈을 뜨고 다니지만요.

지성이는 주머니를 뒤집었어요. 어제 넣은 돌, 그저께 넣은 도토리 모자, 모래 한 줌.

"이것도 다 본 거야."

식탁 옆 흙도 그랬어요. 이든의 씨앗을 묻고 열흘 동안 날마다 들여다봤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났어요.

빈백에는 쿠마타가 제 모양대로 꺼진 자국 안에 꼭 맞게 누워 있었어요.

"쿠마타, 너는 안 심심해?"

"누워 있으면 안 심심해."

울타리 너머로 뇨끼의 얼굴이 쑥 들어왔어요. 몸은 한 박자 늦게 따라왔고요.

"저 숲 너머에 상자가 있대. 열면 뭔가 달라진대."

"무슨 상자?" 지성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뇨끼도 피오한테 들은 얘기예요. 피오는 "알려 줄게!" 외치자마자 포르르 낮게 날아가 버려서, 그다음은 아무도 몰라요.

처마 밑에서 모리가 실패를 든 채 나왔어요.

"상자라고? 그럼 뚜껑이 위로 열리는지 옆으로 열리는지부터 보고, 그다음에……."

모리가 그다음을 꺼낼 때, 우성이는 벌써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왼발과 오른발이 바뀐 채로요.

지성이는 콩이 지도를 끌어안았어요. 띠를 붙이고 또 붙여서, 둘둘 말아도 지성이 몸통만 해요.

"이것도 가."

"그거 펴면 숲이 다 덮여."

그래도 지성이는 놓지 않았어요. 결국 지도는 우성이 가방에 꽂혔어요. 삐죽 나온 지도 끝이 우성이 머리보다 한 뼘 위.

강가 쪽에서 첨벙, 해달이 올라왔어요. 배 위에 돌 바구니를 얹고요.

"어디 가? 나도 가. 얘네도 데려가야지."

바구니 끈에는 모리가 묶어 준 동글동글한 매듭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모두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났어요.

"나도 갈래."

쿠마타가 빈백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머리부터, 그다음은 어깨, 그다음은 길고 긴 허리.

(쿠마타가 다 일어나는 동안 느루는 마당을 반쯤 건널 수 있어요. 느루가 직접 재 봤대요.)

"그거, 누워서 열 수 있어?"

"가 봐야 알지." 지성이가 대답했어요.

빈백에는 길쭉한 자국만 남았어요. 지성이는 그 자국을 손바닥으로 톡 두드려 주고 따라나섰어요.

숲 깊은 곳에서 길이 갈라졌어요. 발밑에는 갈색 잎이 수북수북.

모리는 오른쪽 길을 안다고 했어요.

"이쪽이야. 콩이 지도에 이 길이 있었어. 옆에 뭐가 그려져 있었는데……."

우성이는 가방에 꽂힌 지도를 돌아보다가 그만두었어요. 여기서 펴면 갈림길이 통째로 덮일 테니까요.

뇨끼는 왼쪽에서 물소리를 들었어요. 해달은 바구니 속 돌에게 물었어요.

"넌 어느 쪽이 좋아?"

돌은 대답이 없었어요.

우성이 손가락은 오른쪽, 지성이 손가락은 가운데. 가운데에는 길이 없었어요. 무릎까지 오는 풀숲뿐.

"거긴 길 아니야."

"길이야."

"아니라니까."

"길이야!"

지성이가 발을 쿵 굴렀어요. 입술이 새 부리만큼 쑥.

쿠마타는 길가 풀밭에 등을 대고 누웠어요.

"다 말하면 불러."

우성이는 오른쪽으로 한 발을 내디뎠어요. 내가 안다는 말이 혀끝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지성이가 입술을 내민 채 꼼짝도 안 해요.

우성이는 가려다 멈췄어요.

"지성이 말도 들어 보자."

지성이는 풀숲 앞에 쪼그려 앉아 납작한 돌 밑을 가리켰어요. 나뭇가지로 그은 금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 있었어요.

"이건 화살표야." 모리가 말했어요. "뾰족한 쪽이 가라는 쪽. 그러니까…… 풀숲 안쪽."

"거봐. 길이잖아." 지성이가 턱을 치켜들었어요.

"길은 아니고, 가라는 표시지."

"그게 길이야."

우성이는 할 말이 없어서 코만 찡긋했어요.

다섯이 한꺼번에 쿠마타를 불렀어요. 어찌나 크게 불렀는지 쿠마타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만 두 번째예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풀숲을 헤치고 나가자 동그란 빈터가 나왔어요. 한가운데 나무 상자가 하나. 반짝이지도 않고 자물쇠도 없는, 모서리가 닳아 둥글어진 상자예요.

"이게 보물이야? 내 바구니보다 작은데." 해달이 말했어요.

우성이가 뚜껑을 들어 보았어요. 들썩도 안 해요. 뇨끼가 코끝으로 밀어 봐도, 모리가 상자 둘레를 빙빙 돌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성이가 풀밭에 벌렁 드러누웠어요.

"형아, 뭐 해?"

"쿠마타처럼 보는 거야."

누워서 보니 세상이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하늘은 왼쪽에, 풀은 오른쪽에. 그리고 상자 밑동, 땅에 닿을락 말락 한 자리에 작은 나무 고리가 보였어요.

우성이가 팔을 쭉 벋었어요. 한 뼘이 모자라요.

쿠마타가 그 옆에 길게 누웠어요. 누운 채로 긴 팔을 벋어 고리를 당겼어요. 덜컥.

상자는 누워서도 열 수 있었어요. 아니, 누워야만 열 수 있었어요. 뚜껑이 옆으로 스르르 열리자 쿠마타가 그 뚜껑을 받쳤어요.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 해달이 구석구석 손을 넣어 보았지만 돌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성이가 종이를 펼쳤어요. 앞면은 하얬어요.

"뒤에도 봐." 쿠마타가 말했어요. 누운 쿠마타한테는 뒷면이 먼저 보였거든요.

모리가 종이를 뒤집어 한 글자씩 소리 내어 읽었어요.

"딱 하나 바꿀 수 있으면, 뭐 바꿀래?"

지성이가 얼른 주머니를 뒤졌어요. 돌 하나, 도토리 모자 하나.

"이거랑 바꿀래?"

"그 바꾸기 말고." 모리가 쿡 웃었어요. "너한테서 딱 하나. 키든, 목이든, 꼬리든."

빈터가 조용해졌어요.

숲 위 하늘 한가운데, 햇님이 계신 쪽에서 햇빛이 한 줄기 내려왔어요. 햇빛은 둥글게 모인 친구들 머리 위에 골고루 내려앉았어요.

뇨끼는 자기 목을 내려다보았어요. 모리는 후드 끈을 만지작거렸어요. 해달은 바구니를 꼭 끌어안았어요. 쿠마타는 뚜껑을 받친 채 하품을 했어요.

우성이는 길을 다 아는 형을 생각했어요. 갈림길에서 한 번도 헷갈리지 않는 형.

그러다 지성이 얼굴을 봤어요.

지성이 볼에는 흙. 화살표를 찾느라 엎드렸을 때 묻은 흙이에요. 모리 소매에도, 쿠마타 발바닥에도 흙. 해달의 바구니 끝에는 마른 풀씨가 붙어 있었어요.

지성이가 흙 묻은 두 손을 쫙 폈어요.

"난 지금이 좋은데."

우성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그대로도 돼?"

종이에게 묻는 건지, 멀리 계신 햇님께 묻는 건지 우성이도 잘 몰랐어요.

"우리, 다 같이 온 거." 지성이가 덧붙였어요.

바람이 빈터를 한 바퀴 돌며 풀잎을 쓸었어요. 사락. 꼭 "응." 하는 소리 같았어요. 머리 위의 햇빛은 비켜 가지 않았어요.

뇨끼는 뇨끼였고, 모리는 모리였어요. 해달은 여전히 바구니를 안고 있었고, 쿠마타도 여전히 눕고 싶었어요. 사실은 벌써 누워 있었지만요.

우성이는 종이를 처음 접혀 있던 대로 반듯하게 접어 상자에 넣었어요.

지성이가 상자를 닫으려다 손을 멈췄어요.

"손, 빼야지."

쿠마타가 뚜껑 밑에서 발을 꺼냈어요.

"손 아니고 발인데."

모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해달도 웃다가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성이가 뚜껑을 닫았어요.

탁.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

해달의 풀어진 바구니



돌아가는 길은 쿠마타가 골랐어요.

"저쪽은 누울 데가 있어."

쿠마타가 가리킨 쪽은 올 때 지나온 길이 아니었어요. 나지막한 언덕 하나를 넘어가는, 마른 풀이 푹신하게 덮인 길이에요.

모리가 언덕 꼭대기를 가늠해 보더니 말했어요.

"저 언덕을 넘으면 강가로 이어질 거야. 아마."

모리 입에서 '아마'라니! 뇨끼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웃었어요.

친구들이 나란히 걸었어요. 해달은 줄 끝에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바구니가 무거워서 자꾸 뒤처져요.

(숲의 언덕은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보다 길어요. 올라오는 친구 얼굴을 오래 보고 싶어서래요.)

언덕을 반쯤 올랐을 때예요. 해달의 발이 낙엽 속에 숨은 나무뿌리에 턱 걸렸어요. 바구니가 휙 기울더니, 모리가 묶어 준 동글동글한 매듭이 스르르 풀렸어요.

달그락, 데구루루!

돌들이 언덕 아래로 굴러가요. 둥근 돌은 쌩쌩, 납작한 돌은 깡충깡충, 모난 돌은 몇 번 구르다 멈칫멈칫.

모리가 풀린 끈 끝을 들여다보았어요.

"그건 말이지, 나무뿌리용 매듭이 아니었어."

해달은 빈 바구니를 든 채 서 있었어요.

"다 갔어."

"다는 아니야."

지성이가 자기 발등에 와서 멈춘 돌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언덕 아래에는 쿠마타가 있었어요. 누울 데를 찾자마자 벌써 거기 길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굴러 내려오던 돌들이 쿠마타의 배와 옆구리에 툭, 툭 부딪혀 하나씩 멈췄어요.

"누워 있는 것도 쓸모가 있네."

쿠마타는 눈을 감은 채 말했어요. 목소리가 꽤 뿌듯해요.

모두 언덕 여기저기로 흩어져 돌을 주웠어요. 모리가 주워 온 건 한쪽 귀퉁이가 깨진 납작돌이었어요. 귀퉁이에는 분홍 조약돌 콩알이 아직도 반만 끼어 있어요.

"바람구멍이다!" 지성이가 손뼉을 쳤어요.

쿠마타의 배 위에는 둥글고 거뭇한 돌이 올라앉아 있었어요.

"그건 '길 잃은 날'."

그날 해달은 거기 없었어요. 그래도 다 알아요. 피오가 숲에 다 말하고 다녔거든요.

우성이의 귀가 빨개졌어요.

"나 그날 안 울었어."

"울었어." 지성이가 말했어요.

"……아주 쪼끔."

우성이가 엄지와 검지 사이를 손톱만큼 벌려 보였어요. 그러고는 돌을 해달에게 건네며 피오 목소리를 흉내 냈어요.

"우성이 여기 있다!"

너무 똑같아서 모두 배를 잡고 웃었어요. 쿠마타 배 위의 작은 돌까지 웃음에 맞춰 통통 튀었어요.

"그날 길, 지도에 있어."

지성이가 형 가방에서 지도를 잡아당겼어요. 우성이는 지도를 쿠마타 배 위에 펼쳤어요. 밤 지도 안쪽 끝, 흙 창고 옆에 이어 붙인 주머니 지도에 그날 길이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동그라미 속 노란 꽃, '뿌리만 있음', 덤불 틈에 지성이가 그린 작은 화살표.

배 위가 무거워진 쿠마타가 한쪽 눈을 떴어요.

"나 지금 식탁이야?"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지성이는 풀 사이에서 반들반들한 흰 돌을 찾아냈어요. 군데군데 하얀 가루가 묻어 있어요.

"그건 '짠물이'. 바다에서 데려온 거야."

지성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혀를 쏙 내밀어 돌을 핥았어요.

"짜!"

해달이 배를 잡고 데굴데굴 굴렀어요. 바구니가 비어 있으니 마음 놓고 구를 수 있었어요.

그사이 뇨끼는 가시덤불 앞에 엎드려, 다른 친구들이 돌을 세 개씩 주울 동안 꼼짝도 않고 무언가를 들여다보았어요.

"뇨끼, 뭐 봐?"

"이게 돌인지 도토리인지 보는 중이야."

뇨끼는 숨을 열 번 쉴 만큼 더 보고 나서야, 덤불 밑으로 목을 쭉 뻗어 그것을 물고 나왔어요. 반들반들한 도토리!

"거봐. 오래 보면 알게 돼."

지성이가 뇨끼 앞다리를 끌어안았어요.

"뇨끼야, 나 태워 줘. 다리 아파."

"숲 끝나면 태워 줄게. 숲에는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

그다음 돌에서 일이 생겼어요. 지성이가 동글동글하고 울퉁불퉁한 돌을 들어 올렸어요.

"이건 감자."

"그건 원래 '구름 조각'인데."

"감자야."

"구름 조각이야."

"감자라니까!"

지성이가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고 돌을 등 뒤로 감췄어요.

해달은 앞발로 턱을 괴고 생각했어요. 구름 생각도 하고 감자 생각도 했어요.

"그럼 구름 감자."

지성이의 볼에서 바람이 푸슈 빠졌어요.

"……좋아."

돌 이름이 하나 더 길어졌어요.

해달이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하나가 없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바구니가 하나만큼 가벼워."

모리가 나뭇가지로 언덕에 줄을 쭉쭉 그었어요.

"첫째, 칸을 나눠. 둘째, 다 본 칸에는 나뭇가지를 꽂아. 셋째, 금 위에 걸친 돌은……."

쿠마타는 듣는 동안 한 번 잠들었다 깼어요. 그래도 모두 칸대로 찾았어요. 정말로 두 개가 더 나왔어요. 하나는 가랑잎 밑에, 하나는 뇨끼 발가락 사이에.

그러고도 하나가 모자라요. 해달은 언덕 아래쪽에 대고 손을 흔들었어요.

"나중에 데리러 올게."

이제 바구니 끈을 다시 묶을 차례예요. 모리가 손을 내밀었지만 해달이 끈을 꼭 쥐었어요.

"내가 해 볼래."

한 바퀴 감고, 끼우고, 당겼어요. 매듭이 쏙 빠져 버렸어요. 다시 감고, 이번엔 두 번 끼웠어요. 매듭이 주먹만 해졌어요. 해달은 혀끝을 살짝 내밀었어요.

지성이가 해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형아, 매듭이 웃는 거 같아."

정말로 고리 세 개가 삐뚤빼뚤 늘어진 모양이 웃는 얼굴 같았어요.

우성이는 집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해달 옆에 앉아 한쪽 끈 끝을 잡아 주었어요. 지성이도 반대편 끈 끝을 잡았어요.

"당겨도 돼?"

"응!"

세 손이 한꺼번에 당기자 울퉁불퉁한 매듭이 생겼어요. 모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또 풀릴 매듭이에요. 모리는 손끝으로 매듭을 한 번 쓰다듬기만 했어요.

"이건 '우리 매듭'."

해달은 돌을 하나씩 바구니에 넣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들어가, 들어가, 오늘은 나랑 가자. 나와, 나와, 내일은 네가 쉬어."

세 번째부터는 지성이가 따라 불렀어요. 다섯 번째부터는 우성이도. 열 번째쯤에는 쿠마타까지 누운 채 콧노래로 따라 했어요. 가사는 하나도 안 맞았지만요.

친구들은 다시 언덕을 올랐어요. 해달은 몇 걸음에 한 번씩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어요. 아직 안 온 돌 하나 때문이에요.

지성이 주머니도 불룩했어요. 늘 불룩한 주머니라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지성이도요.

지성이는 해달 바로 뒤에서 언덕을 올랐어요. 걸음마다 주머니가 달그락, 달그락.

스물여섯 번째 이야기

지성이가 먼저 달린 길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자 아래로 낯익은 것들이 보였어요. 연두색 지붕, 그 앞마당 끝의 그루터기 식탁, 놀이터 미끄럼틀, 마당 구석의 파란 빈백. 보리네 부엌 굴뚝에서는 하얀 김이 가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언덕을 타고 올라왔어요. 빵 냄새가 묻어 있네요.

모리가 숨을 고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길이 두 개야. 왼쪽은 좀 가파르고, 오른쪽은……."

지성이가 우성이 손을 놓았어요.

누가 부르기 전이었어요. “가자”라는 말도, “지성아, 이리 와”라는 말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지성이가 달려요.

모자 챙이 통통 튀어요. 작은 발이 마른 잎을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우성이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성이는 늘 맨 뒤에 있던 아이예요. 다들 출발한 다음에야 솔방울을 줍고, 개미 줄을 들여다보고, 형의 소매를 잡아당기던 아이. 그런 지성이가 지금 맨 앞에 있어요.

우성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달렸어요.

등 뒤에서 모리의 설명이 뚝 끊겼어요.

“어, 지성이는 벌써 정했구나!”

우성이는 다리가 더 길어서 몇 걸음 만에 지성이 바로 뒤까지 갔어요. 손을 뻗으면 모자 끈이 잡힐 만큼 가까웠어요.

우성이는 손을 뻗지 않았어요.

한 걸음 뒤에서 그냥 계속 달렸어요. 웃음이 자꾸 새어 나와서 숨이 금방 찼어요.

지성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형이 뒤에 있다는 걸 이미 아는 것처럼요.

앞에서 달리는 건 늘 우성이 몫이었어요. 오늘은 우성이 눈앞에서 지성이의 작은 발뒤꿈치가 번갈아 들썩여요. 그걸 보는 게 이상하게 재미있었어요.

비탈길 끝에서 지성이가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우성이가 "괜찮아?" 하고 묻기 전에 지성이가 소리쳤어요.

"나 혼자."

지성이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났어요. 무릎에 묻은 흙은 털지도 않았어요.

언덕 아래에서 길이 또 갈라졌어요. 지성이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이쪽이었나?"

우성이는 웃음이 터질 번했어요. 어디서 아주 많이 듣던 말이었거든요.

"맞아, 그쪽."

지성이는 다시 달렸어요. 낙엽 더미를 와삭 지나고, 한쪽 눈을 찡긋하는 노란 꽃 앞도 그냥 지나갔어요.

마지막 모퉁이 앞에서 지성이가 멈췄어요. 그 모퉁이만 돌면 바로 연두집 마당이에요.

지성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우성이가 바로 뒤에서 무릎을 짚고 헉헉거리고 있었어요. 그보다 훨씬 뒤, 언덕 중간쯤에 친구들이 콩알만 하게 보였어요.

"다 안 왔어."

지성이는 길가의 굵은 나무뿌리에 털썩 앉았어요. 우성이도 그 옆에 털썩.

언덕에서는 해달이 또 멈춰 서 있었어요. 바구니를 내려놓고 끈을 만지작거려요. '우리 매듭'이 벌써 헐거워진 모양이에요. 모리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 쿠마타는 그 옆에 누워 있어요. 뇨끼는 목을 길게 빼고 이쪽을 보다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손 대신 머리로 하는 인사예요.

"형아, 빨리 오라고 할까?"

예전 같으면 우성이는 벌써 두 팔을 휘저었을 거예요. 빨리 와, 빨리.

"해달 묶는 중이잖아."

"응."

지성이는 발을 달랑달랑 흔들었어요. 우성이는 신발 끝으로 흙을 콕콕 팠어요. 기다리는 건 달리는 것보다 어려웠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지성이가 나뭇가지를 주워 땅에 그림을 그렸어요. 길쭉한 것 하나, 목이 아주 긴 것 하나, 후드 쓴 동그라미 하나, 바구니 안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 두 개를 나란히.

"이건 형아랑 나."

"다 해서 여섯이네."

"응. 여기 다 오면 여섯."

그루터기 식탁 쪽에서 종소리가 한 번 울렸어요. 두두가 치는 저녁 종이에요. 지성이의 엉덩이가 들썩했어요.

"먹는 거다."

그래도 지성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성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우성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걸음만 가면 빵이 있는데. 반대쪽에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성이는 아예 언덕 쪽을 보고 돌아앉았어요. 지성이도 형을 따라 돌아앉았어요.

해달이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또 멈췄어요. 쿠마타가 안 일어나서예요.

우성이는 두 손을 나팔처럼 입가에 댔어요. 빨리 오라는 말이 나오려다가, 다른 말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여기 있어!"

언덕 위에서 뇨끼가 목을 한 번 크게 흔들었어요. 쿠마타도 그제야 누운 채로 손을 들었어요.

"알았어! 매듭 하나만!" 해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왔어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야!" 모리의 목소리도 따라왔어요.

지성이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웃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지성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어제 넣은 돌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왔어요. 회색 바탕에 하얀 줄이 한 줄 지나가는,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돌이에요.

"어? 형아, 해달 돌이 여기 있었네."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지성이 손은 지성이보다 먼저 주머니로 가요.

"해달이 나중에 데리러 온다던 그 돌이다."

"응. 데리러 안 와도 돼."

지성이는 돌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해달이 오면 바로 줄 수 있게요.

해가 서쪽으로 조금 기울었어요. 모퉁이 길에 둘의 그림자가 길쭉하게 누웠어요.

모퉁이에 맨 처음 닿은 건 뇨끼였어요. 다리가 길어서 몇 걸음이면 되니까요. 그다음은 모리와 해달. 쿠마타는 맨 마지막에 하품을 하며 걸어왔어요.

"먼저 가도 되는데." 해달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기다렸어."

지성이가 손을 펼쳤어요. 해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마중'이다! 강가에 친구가 오기 전에 내가 늘 이 돌부터 내다 놓았거든. 가서 기다리는 돌이라서 마중이야."

해달은 마중을 바구니 맨 위에 올려놓고, 지성이를 빤히 보았어요.

"너도 오늘은 마중이네."

지성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볼만 긁었어요. 볼에 묻은 흙이 더 넓게 번졌어요.

모리가 우성이를 보았어요.

"아까 '우리 여기 있어' 하는 소리, 언덕 위까지 잘 들렸어. 피오 목소리보다 컸어."

우성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콧구멍이 벌름벌름 커졌어요.

쿠마타는 땅에 그려진 그림 여섯 개를 내려다보았어요. 길쭉한 것이 자기라는 걸 금방 알아보았어요.

"나 이렇게 길어?"

"응. 더 길어."

여섯이 모퉁이를 돌았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요.

놀이터 미끄럼틀이 먼저 나왔어요. 뇨끼가 미끄럼틀 옆에 엎드리더니, 꼭대기에 턱을 척 걸쳤어요.

"숲 끝났지? 약속대로 태워 줄게."

지성이가 미끄럼틀 계단을 다다닥 올라갔어요. 꼭대기에서 뇨끼 목에 올라앉더니, 슝! 목을 타고 등까지, 등에서 꼬리 끝까지. 풀밭에 엉덩방아를 쿵 찧고도 깔깔 웃어요.

"형아, 세상에서 제일 긴 미끄럼틀!"

우성이도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슝, 쿵.

그루터기 식탁 둘레는 벌써 시끌벅적해요. 식탁 옆에서 두두가 초대장 두 장을 머리 위로 흔들고 있었어요.

"왔다! 다 왔어? 누가 아직이야? 해달은? 쿠마타는?"

지성이가 풀밭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뛰었어요. 우성이는 이제 한 걸음 뒤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뛰었어요.

"형아, 누가 더 빨라?"

"둘 다!"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

먼저 내어 주는 자리



그루터기 식탁 둘레는 시끌벅적했어요. 형제가 그동안 만난 친구들을 두두가 모두 불렀어요. 며칠 전에 벌써 초대장을 다 보내 두었거든요. 아는 집에는 타루가 날라 주고, 집을 모르는 손님 몫은 그 달밤에 바람한테 맡기고. 날짜 칸에는 '보름달 뜨는 날, 해가 기울 때'. 형제가 상자를 찾으러 간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식탁 한쪽, 팔걸이가 반들반들 닳은 그 의자는 오늘도 비어 있었어요. 그 앞에는 크고 둥근 컵 하나.

컵 옆 식탁 모서리에는 느루가 붙어 있었어요.

"나, 아침부터 오고 있었어."

지성이는 식탁 옆 흙부터 들여다봐요. 아침에 나설 때는 맨흙이었는데, 작은 떡잎 두 장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형아! 우리 없을 때 났어!"

그러고는 우성이 가방에서 지도를 쑥 뽑아요. 띠를 이어 붙인 지도는 식탁을 다 덮고도 모자라 풀밭으로, 빈백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맨 끝은 지성이가 그은 강물 줄, 이든이 걸어간 강이에요.

"손님들 여기서 와."

지성이 손가락이 밤나무 집에 닿자, 오소리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 손에는 옆구리에 홈이 난 컵이 들려 있었어요.

"내 컵이다!"

"그래, 네 컵. 오늘은 여기서 사는 거다."

지성이 손가락이 모래톱 배에 닿자, 아루가 왔어요. 아루는 식탁에 닿자마자 의자 하나를 흔들어 보았어요.

"다리 하나가 흔들리네."

아루는 그 다리를 쑥 뽑아 들고, 풀밭에 주저앉아 새 다리를 깎기 시작했어요.

지성이 손가락이 산 너머 연못에 닿자, 새온과 작은 물새가 왔어요. 나무 그릇 하나를 둘이 같이 들고서요.

지성이 손가락이 언덕 위 종에 닿자, 로아가 왔어요. 손종이 딸랑, 꼬리 끝에는 동생 꼬마 다람쥐가 대롱대롱.

지성이 손가락이 버드나무에 닿자, 타루가 왔어요.

"이든 소식! 싹 나면 이름 지어 달래!"

그 뒤로 작은 스컹크가 말없이 따라와, 식탁 맨 끝 풀밭에 꼬리를 얌전히 내리고 앉았어요. 할머니 말고는 새 손님들 모두 의자보다 풀밭이 편하대요.

보리가 밥 냄비 뚜껑을 열어요. 콩이는 그릇 놓을 자리를 만들려고 지도를 끝에서부터 둘둘 말았어요. 식탁 위에는 밤 지도 귀퉁이 하나만 남겨 두었어요. 지성이가 동그란 얼굴과 동그라미 컵을 그려 둔 귀퉁이예요.

"밥에 반짝이 뿌려 줘!"

보리가 김 가루 반짝이를 솔솔 뿌려 주자 밥알 사이가 반짝반짝. 지성이가 숟가락을 번쩍 들었어요. 첫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부스럭.

식탁 다리 뒤, 풀숲 끝에서 동그란 얼굴 하나가 쏙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지성이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 버려요.

"형아. 쟤."

지성이 숟가락 끝이 지도 귀퉁이를 가리켜요. 동그란 얼굴, 점 두 개, 웃는 줄 하나.

"내가 그린 애."

풀숲에서 동그란 얼굴이 다시 나왔어요. 지성이보다도 작은 너구리예요. 눈가에 까만 무늬가 있고, 꼬리가 몸보다 굵어요. 두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두두가 떠들던 말을 뚝 멈춰요.

"그거 내 초대장이야? 바람한테 맡긴 거?"

두두는 구겨진 초대장을 식탁 위에 쫙 폈어요. 밤이슬에 번진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두두는 읽기 전에 늘 하는 말부터 했어요.

"어디서? 언제? 누구랑?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었어요.

"그루터기 식탁. 해가 기울 때. 다 같이."

맨 밑 줄에서 두두 손가락이 멈췄어요.

"늦게 와도 됨."

너구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게 와도 된대서, 늦게 왔어."

두두 콧구멍이 벌름벌름 커져요.

"맞아! 내가 그렇게 썼어!"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그런데 앉을 의자가 없었어요.

우성이가 의자를 세어 봐요. 손가락이 모자라서 지성이 손가락까지, 해달 손가락까지 빌렸어요. 빈 의자는 그 의자 하나뿐이에요. 다리 빠진 의자는 아루 옆에 누워 있고요. 서 있는 건 너구리, 그리고 두두.

"두두, 너는?"

"어? 나? 내 의자? 어디 있지?"

두두가 눈을 끔벅였어요. 친구들 초대장은 다 쓰면서 자기 자리는 한 번도 안 센 거예요.

우성이가 의자에서 폴짝 내려왔어요. 의자를 두두 쪽으로 밀어 주고는, 비어 있는 그 의자 옆 풀밭에 털썩 앉았어요.

"난 풀밭이 좋아."

풀밭에 앉으니 식탁 모서리가 딱 턱 앞이에요.

이제 남은 건 너구리. 팔걸이가 닳은 그 의자는 컵과 함께 비어 있었지만, 그 의자를 끌어오자는 친구는 없었어요.

"하나 새로 짜 줄게. 내일 아침이면 돼." 아루가 망치를 들어 보였어요.

"내일은 너무 늦어. 밥이 식어." 해달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성이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숟가락은 여전히 손에 든 채예요. 남은 한 손으로 자기 의자를 끙끙 끌어다 형 옆 풀밭에 놓았어요.

"여기 앉아."

너구리가 의자를 쳐다봐요. 앉는 자리가 너구리 머리보다 높아요.

"산 같은 의자." 지성이가 말했어요.

우성이가 푸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다 의자 앉는 자리가 제 가슴께에 딱 와 있는 걸 보았어요.

"어? 이거 식탁이다."

우성이는 자기 밥그릇을 의자 위에 올렸어요. 지성이도 반짝이 밥그릇을 그 옆에 올렸어요. 보리가 얼른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 세 번째 자리에 놓아 주었어요.

"의자에 밥을 올려? 왜? 누가 정했어?" 두두가 물었어요.

"오늘은 식탁이야."

너구리가 의자 다리 뒤에서 한 걸음 나왔어요. 또 한 걸음. 그러더니 우성이와 지성이 사이 풀밭에 쏙 들어와 앉았어요.

"컵!" 지성이가 지도 귀퉁이를 가리켰어요. "컵도 그렸어. 얘 컵."

보리가 멜빵옷 주머니를 뒤졌어요. 도토리만 한 작은 컵이 나와요. 지성이가 그 컵을 너구리 그릇 옆에 반듯하게 놓았어요. 손잡이도 너구리 쪽으로 돌려서요.

그걸 보고 뇨끼가 풀밭에 턱을 내려놓았어요. 해달이 바구니를 끌어안고 내려왔고, 쿠마타는 빈백째로 끌려 내려왔어요. 끌어 준 건 보리였어요. 모리는 빈 의자들을 식탁 뒤로 하나씩 물려 놓았어요. 그 의자만 빼고. 풀밭은 점점 좁아졌어요.

모리가 너구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첫째, 너구리는 물가에서 앞발로 먹을 걸 씻어 먹어. 둘째, 눈가까만 무늬는 왜 생겼냐면…… 아, 네 이름은 아직 못 들었네."

너구리가 입을 달싹였어요. 그런데 아루의 망치 소리, 타루가 "소식이야, 소식!" 하고 떠드는 소리, 피오가 "들었지? 나 여기!" 하는 소리에 다 묻혀 버렸어요.

로아가 작은 손종을 번쩍 들었어요.

딸랑!

다들 깜짝 놀라 입을 꾹 다물었어요. 망치도 멈추고, 타루도 멈추고, 피오도 부리를 꼭 닫았어요.

조용해진 틈에 너구리가 지성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지성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씩 웃었어요.

"뭐래?" 우성이가 물었어요.

"비밀."

지성이는 그 이름을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구리가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입 떠먹어요. 반짝이 밥이에요. 너구리 눈이 동그래져요.

지성이는 그제야 자기 숟가락을 내려다보았어요. 아까부터 들고만 있던 숟가락에 밥알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형아, 나 이제 먹어도 돼?"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

다행이다,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



어느새 해가 숲 가장자리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빵 바구니는 텅 비고, 밥 냄비 바닥에는 반짝이 몇 알만 남았어요. 그것도 지성이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콕콕 찍어 먹는 중이에요.

아루는 그제야 망치를 내려놓았어요. 다리 하나가 빠졌던 의자가 이제 반듯하게 서 있어요. 새로 끼운 다리 하나만 하얀 나무 빛깔이에요. 아루는 고친 의자를 식탁 건너편, 팔걸이가 닳은 그 의자와 마주 보는 자리에 가만히 놓았어요. 앉을 친구는 더 없는데도요.

"의자는 하나 남는 게 좋아."

아루는 그 말만 하고 앞니로 나뭇가지 끝을 갉작갉작.

친구들은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콩이는 둘둘 만 지도를 베개 삼아 눕고, 새온은 한쪽 다리를 접은 채 꾸벅꾸벅. 두두는 무릎에 내일 초대장 두 장을 펴 놓은 채 잠들었어요. 한 장에는 받는 이 이름 대신 동그란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느루는 식탁 모서리에서 자기 껍데기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해달은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가겠대요.

"바다한테는 내일 아침에 말하면 돼. 바다는 넓어서 이해해 줄 거야."

해달은 바구니 속 돌들에게 하나씩 잘 자라고 인사했어요.
퐁당이에게, 바람구멍에게, 길 잃은 날에게, 구름 감자에게.
마중만은 바구니에 넣지 않았어요. 그 의자 앞, 크고 둥근 컵 옆에 살그머니 내려놓았어요.

"너는 오늘 여기서 자."

왜 그러는지는 해달도 말하지 않았어요.

식탁 옆, 지성이가 이든의 씨앗을 묻어 둔 자리에는 떡잎 두 장이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떡잎에게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지성이 말로는 너무 작아서 이름이 안 들어간대요.

너구리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우성이와 지성이 사이에 앉아 굵은 꼬리를 배에 둘둘 감고, 노을 지는 숲을 두리번두리번.

지성이가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씨앗 한 알을 꺼냈어요. 이든이 두고 간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둔 둘째 씨앗이에요. 지성이는 그 씨앗을 너구리 손에 꼭 쥐여 주었어요.

"이름은?" 너구리가 아주 작게 물었어요.

"싹 나면."

너구리가 우성이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그러고는 마중이 놓인 컵 쪽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저기는 누구 자리야?"

"몰라."

"그런데 왜 비워 둬?"

지성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여기 있었어."

너구리는 꼬리를 고쳐 감았어요. 우성이도 더 묻지 않았어요.

부엉, 먼 데서 소리가 났어요. 너구리가 꼬리 속에 코를 푹 묻었어요.

"저건 무슨 소리야?"

너구리가 큰 소리로 말한 건 그게 처음이에요. 모리의 귀가 쫑긋 섰어요.

"첫째, 저건 부엉이야. 부엉이는 밤에 일어나서 아침에 자. 둘째, 쏴아 하는 건 강물 소리. 셋째, 푸우 하는 건 쿠마타 콧바람인데, 다섯 번에 한 번씩 길어져. 넷째, 빈백이 사각사각 하는 건 안에 작은 알갱이가 아주 많아서야. 몇 개냐면, 내가 한번 세어 보려고 귀퉁이를 아주 살짝 열었는데……."

모리의 설명은 길었어요. 아주아주 길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그게 꼭 알맞았답니다.

너구리의 눈꺼풀이 한 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두 번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요.

지성이 눈도 슬슬 감기려 해요. 지성이 손바닥 위에서는 피오가 발 한쪽을 배 밑에 쏙 넣고 벌써 자는 중이에요.

"나 안 졸려."

"응."

"진짜 안 졸려."

"알았어."

지성이는 하나도 안 졸린 얼굴로 하품을 세 번이나 했어요.

모리가 알갱이가 와르르 쏟아진 대목에 이르렀을 때, 너구리는 우성이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어 있었어요. 굵은 꼬리가 우성이 발등까지 덮어요. 보송보송, 간질간질. 우성이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깨물어요.

"아, 다 잤네. 아직 반도 안 했는데."

"내일 나머지 해 줘." 우성이가 속삭였어요.

모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 * *

여기서 한 번 쉬어 가도 좋아요

새온은 잠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같이 있던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 보는 거예요. 기다란 목을 접으며, 아주 작게.

"작은 물새. 우성이. 지성이. 모리. 해달……."

이름이 하나 불릴 때마다 반쯤 잠든 지성이가 "네" 했어요. 자기 이름이 아닐 때도요.

너구리 차례가 오자 새온이 멈칫했어요.

"얘는……."

"비밀." 지성이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새온은 쿡 웃더니 "비밀아, 잘 자" 하고 머리를 날개 밑에 묻었어요.

연두집 부엌 안에서 노랫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하나 더 넣자."

보리가 담요를 한 아름 안고 나왔어요. 노래를 그렇게 불렀으니, 담요가 하나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씩 덮어 주다 보니 마지막 담요가 딱 마지막 친구에게 가요. 우성이 무릎에서 잠든 작은 너구리에게.

"하나 더 넣길 잘했다."

보리는 자기 몫이 없는 줄도 모르고 빈백 끝에 가서 앉았어요. 쿠마타가 눈을 감은 채 자기 담요 한쪽을 들어 보리 무릎에 덮어 주었어요.

해달은 풀밭에 벌렁 누워, 옆에 엎드린 뇨끼의 발가락 하나를 꼭 잡았어요.

(해달은 바다에서는 떠내려가지 않게 친구 손을 꼭 잡고 자요. 오늘은 숲이라 뇨끼 발가락.)

푸우, 쿠마타 콧바람 소리. 해달 바구니 속에서는 아주 작게, 드르릉. 돌 하나가 코를 골았어요. 우성이는 저도 모르게 세어

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푸우우우. 정말로 다섯 번째에 길어져요.

우성이는 잠든 친구들도 속으로 세어 보았어요. 열을 넘기니까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새온 다리가 하나인지 둘인지도 헷갈려요. 그래서 지성이처럼 세기로 했어요.

'하나, 둘, 셋, 많이.'

그거면 충분했어요.

숲 위에서 부웅, 낮은 날갯소리가 났어요. 늘 자기만 하던 커다란 날개 무당벌레가 처음으로 눈을 떴어요. 무당벌레는 식탁 곁 풀밭에 날개를 접고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해가 나무 사이로 낮게 내려왔어요. 반대편 하늘에는 달님이 벌써 하얗게 떠 계셨어요.

햇빛 한 줄기가 길게 뻗어 와요. 빈 빵 바구니를 지나고, 잠든 친구들의 담요 위를 지나서, 식탁 한쪽까지. 팔걸이가 닳은 그 의자 위에서 빛이 멈춰요.

반대쪽에서는 달빛이 내려와요. 하얀빛이 같은 의자 위에 사뿐히 앉아요.

주황빛과 하얀빛이 크고 둥근 컵 안에서 겹쳐 찰랑찰랑. 컵 옆의 마중도, 풀밭의 떡잎 두 장도 두 가지 빛을 한꺼번에 받고 있어요.

우성이는 숨을 죽였어요. 빈백의 쿠마타도 한쪽 눈을 뜨고 있네요. 쿠마타는 식탁 둘레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중얼거렸어요.

"다들 여기 있네."

쿠마타의 눈이 도로 스르르 감겼어요.

우성이는 너구리가 깨지 않게 몸을 조심조심 기울여, 바로 옆 그 의자 팔걸이에 손바닥을 얹었어요.

"앗, 따뜻해."

지성이가 눈을 반쯤 떴어요.

"형아, 내일도 또 이 길이야?"

"응. 또 이 길이야."

"좋아."

지성이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안 졸리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았어요.

어깨 한쪽이 저려 와요. 무릎에는 너구리가, 옆구리에는 지성이가, 지성이 손바닥에는 피오가 있으니까요. 우성이는 그래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식탁 옆 풀밭에는 아직 자리가 남아 있어요. 조금만 당겨 앉으면 한 사람쯤 더 앉을 수 있을 만큼. 식탁 건너편에는 아루가 남겨 둔 새 다리 의자도 하나 있고요.

'다행이다.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른에게 건네는 한 장

이 책의 햇님과 달님은
하늘에 뜬 해와 달 그 자체가 아니에요.
늘 먼저 와서 자리를 데워 두시는
하늘부모님의 마음을
아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아이가 햇님께 하루를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가만히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

당신은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나요?

그리고 지금의 아이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나요?